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합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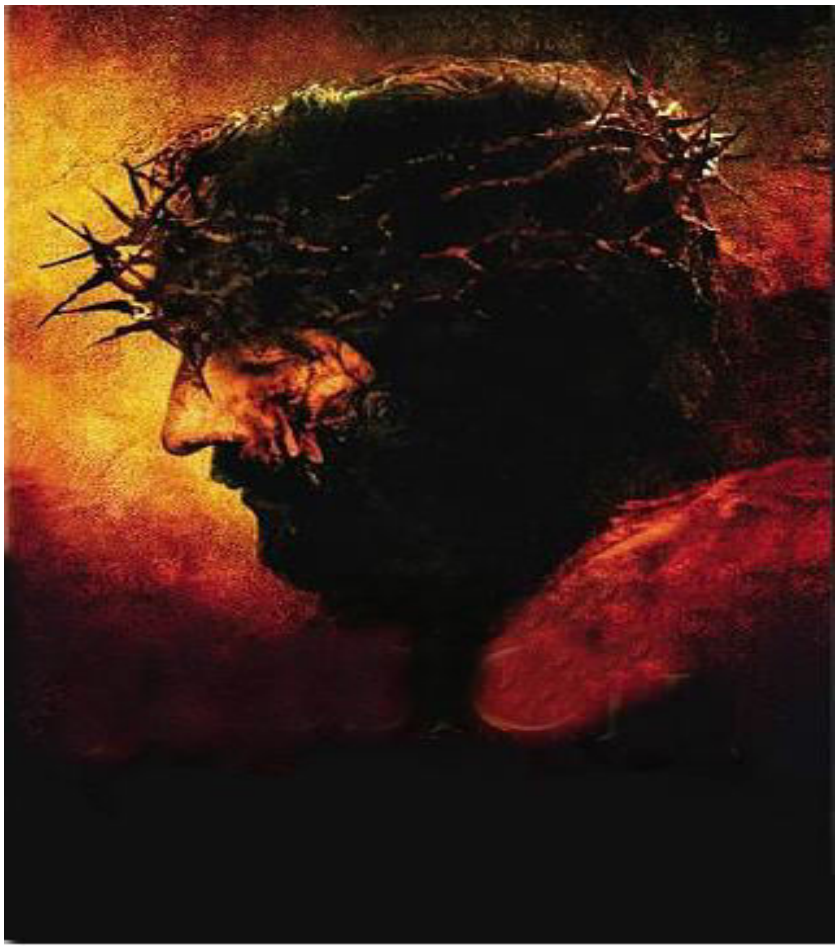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P.O. 박스 7777-777
데본, 런던, 영국 234-543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굳센 백향목처럼 서서 당신에게 분노를 퍼붓던 반대의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 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완고한 의도와 적의와 교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분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서 계셨다. 지금 그분은 분노한 폭풍에 시달려 꺾인 갈대와 같으셨다 - 죄의 짐을 지고 초자연적인 고문을 당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언은 성취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다. 그분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폭도와 연합하여 막 숨을 거두려는 구주를 조롱하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과 끝없는 생명과 뜨거운 열정을 증거한다.

.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Inc.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Alt-Heerdt 104, 40549 Düsseldorf, Germany
Tel : +49 211 399 435 234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목차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9

2장 선택된 백성 15

3장 “때가 차매” 20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25

5장 봉헌식 29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36

7장 유년 시대 43

8장 유월절에 참여하심 50

9장 투쟁의 시절 58

10장 광야의 외치는 소리 66

11장 침 례 78

12장 시 험 83

13장 승 리 93

14장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99

15장 혼인 잔치에서 110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120

17장 니고데모 131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140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145

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157

21장 베데스다와 산헤드린 161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175

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187

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192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 200

26장 가버나움에서 206

27장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216

28장 레위 마태 226

29장 안식일 235

30장 열둘을 세우심 243

31장 산상수훈 251

32장 백부장 267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273

34장 초청 280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285

36장 믿음으로 만짐 294

37장 최초의 복음전도자들 299

38장 “와서 잠간 쉬어라” 309

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14

40장 호수의 밤 322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328

42장 유전 341
43장 장벽이 무너짐 345
44장 참된 표적 351
45장 십자가의 예표 357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367
47장 봉사 372
48장 “누가 가장 크냐” 377
49장 초막절에서 389
50장 함정 가운데서 396
51장 “생명의 빛” 404
52장 거룩한 목자 417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424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434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441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 446
57장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451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456
59장 제사장들의 음모 468
60장 새 나라의 율법 474
61장 삭개오 479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483

63장 “네 왕이 임하나니” 495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 505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512
66장 논쟁 524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533
68장 바깥뜰에서 544
69장 감람산 위에서 550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560
71장 종의 종 566
72장 “나를 기념하여” 576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585
74장 겟세마네 605
75장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616
76장 유다 632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640
78장 갈바리 659
79장 “다 이루었다” 675
80장 요셉의 무덤에서 682
81장 “주께서 살아나시고” 693
82장 “어찌하여 우느냐?” 700
83장 엠마오로 가는 길 706

84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711

85장 다시 한 번 바닷가에서 717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725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737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분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쳐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필적은 남아 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나 땅위에 기어 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하찮은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도 또한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열매를 내고 싹을 틔우기 위함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은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봉사로 인간의 영혼을 감화시켜서 잃은 자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밀접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로 이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요 8 : 28; 6 : 57; 7 : 18; 8 : 50).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 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그분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을 애정이 깊은 창조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悲哀)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말 4 : 2)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事後考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알게 하신 그 비밀"(롬 16 : 25)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로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3 : 16)었다.

루시퍼는 "내가...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 : 13, 14)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빌 2 : 6, 7)셨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주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王位)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약 2천 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한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 : 5~7). 이 말씀 가운데 영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려고, 곧 육신이 되려고 하셨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지니신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이 가려졌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 안에 감춰졌다.

이 큰 목적이 표상과 상징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신성(神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외관상 주목을 끌지 못하는 초라한 관목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려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視力)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빌 3 : 21),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춰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출 25 : 8)으라고 명령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장막 곁에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 : 14).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주의 지상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모든 거룩한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始祖)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히 2 : 17).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히 4 : 15)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써 승리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 : 8)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I AM)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 : 14)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딤전 3 : 16)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I AM) 선한 목자라", "나는(I AM)...산 떡이"다, "내가(I AM)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요 10 : 11, 6 : 51, 14 : 6; 마 28 : 18)라고 말씀하신다. 나는(I AM)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I AM)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 : 8).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봉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제물도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사 53 : 5)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 : 16).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經綸)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분은 바로 "인자"(사 9 : 6)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I AM)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양 척 사이에 손을 얹으신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히 7 : 26, 2 : 11)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안에 안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슥 9 : 16, 17)라고 말씀하신다. 구속받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 2 : 7; 3 : 10, 11).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汚點)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셨고 영광의 왕께서 사셨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2장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은 1천 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가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으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사 53 : 2; 요 1 : 11).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 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가 머물던 땅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네게 복을 주어...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 : 2, 3)고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과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황폐된 이후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미 5 : 7)라는 약속은 그들의 것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하여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 : 7)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의 풍습을 좇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모세는 말하였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열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신 26 : 19, 28 : 10, 4 : 6)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들은 바벨론에 종속되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그들이 버드나무 위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 놓고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에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다. 이방 사람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였다. 안식일을 범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의 절기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를 멸절시키려고 분기했을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왕들과 위정자들 앞에 서게 함으로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가장 위대한 군주들이, 그들의 히브리 포로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최상권을 선포하게 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바벨론 포수(捕囚)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강대해지는 수단으로써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 해석되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나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종교적인 교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국내 각처에 회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학교들도 세우고 예술과 과학과 아울러 의의 원칙을 가르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부패하게 되었다. 포로생활 중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교(異敎)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종교 예식에 도입되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따랐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제사 제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다.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분을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다. 이 제도에는 생명력과 영적 미(美)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그들은 제물이 가리키는 그분을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儀文) 그 자체를 신뢰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여러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이 규정들이 엄격하여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결함을 의식의 다과(多寡)로 측정하였으나,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까다롭고 짐이 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서 랍비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힘써 본 자들은 무거운 부담에 눌려 애를 썼다. 그들은 번민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멸시를 받게 하려고 힘썼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하였을 때에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메시야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야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서 메시야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유대 나라는 그들을 지배하는 외국의 통치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받는 한편 내분으로 고통을 겪었다. 유대인들은 독립된 정부 형태를 유지하도록 허용은 받고 있었으나 그들이 로마의 기반(羈絆) 아래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으며, 그들의 권력의 제한에 대해 단념하고 만족할 수도 없었다. 로마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직분은 흔히 부정(不正)과 뇌물 또는 심지어 살인 등의 수단에 의해 획득되었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졌고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재리적(財利的)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무자비한 요구에 시달렸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런 사태는 불만을 널리 확산시켰다. 민중의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탐욕, 폭력, 불신, 영적 냉담이 유대 나라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3장 "때가 차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 : 4, 5).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겔 12 : 22)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 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을 보여 주셨으며 그들이 4백 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 : 14)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런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출 12 : 41)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大時計)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온 세상에 메시야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이교(異敎)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禹話)에 싫증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를 갈망하였다.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믿음은 더욱 희미해지고 소망은 장래를 비추어 주기를 거의 그쳤다. 선지자들의 말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두려운 신비였다. 삶의 피안(被岸)은 불확실하였고 암담하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마 2 : 18)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통곡만을 말한 것이 아니요, 인류 전체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눈으로 구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때에는 어둠이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이었다.

유대 백성 외에도 신성한 교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어두운 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과 같이 이런 교사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예언은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붙여 놓았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도 메시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갖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야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 죄에서 구원해 줄 자로 그분의 강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이 빛의 전파를 막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기에 골몰하여 표상적인 예배 의식에 관하여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주기를 꺼렸다. 참된 해석자께서 오셔야 하였다. 이 모든 표상들을 예표한 분께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셔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하여,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부조(父祖)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교훈은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였다. 언약의 사자께서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음성이 그분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 오셔야 하였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 놓으셔야 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였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온 거룩한 혈통의 후손인 견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을 여전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행 3 : 22)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보증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한 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읽었다(사 61 : 1, 2). 그들은 어떻게 주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고 열방이 그의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그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읽었다(사 42 : 4, 60 : 3).

야곱이 임종 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창 49 : 10)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야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야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영광을 묘사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단 2 : 44)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 안에 왕국을 세우시고 만국 백성의 구원자로 올 강력한 군주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다.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 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그분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듯이 보였다. 각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가지셨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죄와 부패에서 이끌어 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매개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폭행으로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세상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만 갔다.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思考)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가두어 두었던 종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모조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暴君)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意義)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쳤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는 인류를 위하여 그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이 모든 제도는 일소되어야 했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作因)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사단의 잔인무도함의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다. 그분은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어맨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器官)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에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새 요소를 나누어주셔야만 하였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지나 않으실지 주목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이끌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면 사단은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의 반역을 하늘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비록 이방 나라 각 지방에서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볼 수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길이 준비되었다. 사단이 승리할 듯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한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야의 품성은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였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다. 다른 민족들은 우화를 취급하고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쳤던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미 선구자가 출생하였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야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다윗성을 향하여 여행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였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내에 사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갈릴리 산악 지방의 거주민에게까지 미쳤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위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 : 2)고 말하였다. 왕가의 후손이 사는 성에 왔으나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으나 얻지 못한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신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룩한 존재들은 더 깊고, 더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린다.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더욱 환해진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인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다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나친 바 된다.

하나님께서는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사 44 : 3; 시 112 : 4)라고 말씀하신다.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빛줄기가 비칠 것이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찬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다. 그분의 강림은 권세와 존귀와 승리를 연상시키나 천사는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 나신 구주를 그들이 알아보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천사는 말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늘의 사자는 목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천사는 저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광채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그러나 기쁨과 영광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천군 천사들의 밝은 광채가 온 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땅은 숨을 죽이고 하늘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땅을 굽어보았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에도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 선포한 선언과 그때에 울린 선율(旋律)은 끝 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 끝까지 반향될 것이다.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면서 떠오를 때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 : 6)라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에 의하여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천사들이 사라지자 빛도 희미해지고 베들레헴 언덕은 다시 밤의 어둠에 싸였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찬란한 광경이 목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眷顧)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롬 11 : 33)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 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5장 봉헌식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른 것으로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 하셨다. 그분은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 이미 할례를 받으셨다.

율법은, 어머니를 위해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어린 비둘기나 반구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일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경우 반구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두 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였는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벧전 1 : 19)이셨다. 그분의 신체 조직은 어떠한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몸은 튼튼하고 건강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토록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셨는지를 보여 준 모본이셨다.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이 다시 주어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출 4 : 22, 23)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셨다.

모세는 이 기별을 전하였으나 거만한 애굽 왕은 듣고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 5 : 2)고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들을 보내셨다. 마침내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천사가 살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이렇게 표를 해 놓아야 하였다.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신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출 13 : 2; 민 3 : 13).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서 속전(贖錢)으로 다시 사도록 되어 있었다.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해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가! 그러나 제사장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린아이를 바치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었다. 매일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하여 별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처럼 차리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그들의 외양에 주목을 끌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렸을 뿐이었다.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쳐들었다.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 준 후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기었을 때에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재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 제사장은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행 3 : 22)고 기록한 것이 이 아기를 가리킨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모세가 간구했었던 분이 바로 이 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욱 크신 분께서 제사장의 팔에 안기었다. 제사장이 그 아기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을 때에 그는 곧 온 유대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다. 그 이름은 그 제도에 종말을 고할 것이었다. 그 까닭은 제사와 제물의 제도가 점점 낡아가고 있었으며 표상은 그 원형(原型)에, 그림자는 그 실체에 거의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나던 여호와의 영광(쉐키나)은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아기 안에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그는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셨다. 그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분이셨다. 그는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셨다.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어 우리의 형제임을 선포하는 그 연약한 작은 아기의 이름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요,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 직분"의 머리시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셨다(히 10 : 21, 7 : 24, 1 : 3).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이 행하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하여 성전에서 바쳐지셨다.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를 보듯이 그를 보았다. 그 제사장이 어떤 비범한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지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인정을 받았다. 이 기회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본다. 그들의 외양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인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에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 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온다. 그가 아기 구주를 공중에 쳐들면서,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취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한다.

예언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말에 놀라면서 곁에 서 있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복을 빌고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말하였다.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므온이 말할 때에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1천8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아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가난과 수고와 비난이 따르는 의로운 사업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시므온의 의미심장한 예언을 깊이 생각하였다. 자기 팔에 안긴 아이를 주목하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말을 회상할 때 그녀의 마음은 감사의 기쁨과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시므온의 말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을 상기시켰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사 11 : 1~5, 9 : 2~6).

그러나 아직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시므온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일 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그와 같이 구주의 탄생이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야의 사업에 대한 편협한 유대인의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하였다.

마리아는 메시야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보좌는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므온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메시야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길을 걸어가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에게 하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는 말씀 가운데서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 받기 시작한 그 고민을 암시하신 것이다.

시므온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렘 29 : 11)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 주지 않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 놓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진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 주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退位)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분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 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天命)은 죄의 종범(從犯)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계 15 : 3, 4)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이며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야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계시되어 있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 그 별은 항성(恒星)도 유성(游星)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민 24 : 17)리라.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히 11 : 8)간 것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같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동방의 나라에는 귀한 물건들이 풍부하였으므로 박사들은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왕이나 지위가 높은 명사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로써 예물을 증정하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이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분에게 예물로 드려져야 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써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에 피곤한 여행길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메시야의 탄생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대화의 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열띤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들은 헛일이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성전으로 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제사장들은 유전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은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비난한다. 이 박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신속히 퍼졌다. 그들의 이상한 사명은 백성들 가운데 흥미를 일으켰으며, 그 소식은 헤롯의 왕궁에까지 들어갔다. 이 간교한 에돔 사람은 혹시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가 왕위를 획득하기까지 걸어온 길은 무수한 사람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이방인의 혈통이었으므로 그가 다스리는 백성으로부터 증오를 받았다. 그의 유일한 안전책은 로마의 총애였다. 그러나 이 새로 나신 왕은 보다 높은 권리를 가졌으니 이는 바로 그 나라 태생인 까닭이었다.

헤롯은 제사장들이 이 낯선 박사들과 음모하여 대중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지나 않을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심을 숨기고 보다 뛰어난 간계로써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메시야께서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 그들의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물었다.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왕위 찬탈자의 이 질문은 유대인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언서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질투심이 많은 폭군을 격노케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권위를 가지고 그는 그들에게, 면밀히 살펴서 예상되는 왕의 탄생지를 밝혀 달라고 명령하였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조용히 만나자고 초청하였다. 그의 심중에는 분노와 공포의 폭풍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이 외국인들을 정중히 영접하였다. 그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환영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이 방문객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야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다.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나설 때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매우 기쁘게도 그들은 그 별을 다시 보았고, 베들레헴으로 인도 받았다. 그들은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었다.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확신을 잃어버렸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사람도 그 곳에 없었다. 예수님은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가 그분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이 아기가 과연 성경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기록된 바로 그분이실까?(사 49 : 6).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 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훗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마 8 : 10)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이루자 그들의 성공을 헤롯에게 알릴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꿈 가운데서 그와 더 이상 교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하여 다른 길로 고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요셉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경고를 받았다. 천사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더욱 안전한 곳을 향하여 밤중에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에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야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사단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다. 그러나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먹이신 분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하여 이방 나라에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주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다.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첫째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아래 바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의혹이 일어났다. 랍비들이 메시야의 탄생지를 지적해 주기를 꺼려하던 것으로 미루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격분하였다. 계교는 실패하였으나 폭력에 호소하는 수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본보기로 이 아기 왕을 처치하고자 하였다. 저 거만한 유대인들은 왕을 추대하려는 그들의 시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했다.

두 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즉시로 베들레헴에 파견되었다. 다윗 성의 평온하던 가정들은 이미 6백 년 전에 선지자에게 공개되었던 공포의 장면들을 목도하였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다.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야가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런 자랑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증오심을 자극시켰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구주를 멸망시키려는 일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머리 위에 돌아왔다.

이 잔인한 행동은 헤롯의 치세를 어둡게 한 마지막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 무죄한 자들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자신이 아무도 비껴가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셉은 예수를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부친의 자리를 이어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부친의 계획이 그 아들에 의하여 실행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헤롯의 모든 아들 중에 아켈라오는 성격

면에서 그의 부친과 가장 흡사하였다. 그가 정권을 인계 받자 벌써 예루살렘에서는 소요가 일어났으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수비병들에 의하여 살육을 당하였다.

요셉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자기의 본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으며 예수께서는 그 곳에서 30 년간을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다. 갈릴리는 헤롯의 아들의 통치 하에 있었으나 거기는 유대 지방보다 더 많은 외국 사람이 섞여 살았다. 그러므로 그 곳에서는 특히 유대인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비교적 적었고 따라서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권세 잡은 자들의 시기를 사게 될 가능성도 적었다.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다. 아기 구주를 위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고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손에 돌아가시기까지 천사들에게 그분을 시중들고 보호하도록 명하셨다.

7장 유년 시대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산촌에서 보내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지 않을 장소는 하나도 없었다. 왕궁에서라도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이나, 유명한 학자의 저택을 지나치시고, 궁벽하고 천시 받는 나사렛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분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추는 햇빛 아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눅 2 : 52)셨다. 그분은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정신력과 체력은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달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분의 자발적인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분은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분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주목하였으며 그분의 품성에 나타난 완전의 표적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기쁨으로 그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은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힘썼다. 그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받았다.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께서는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찬미와 기도와 성경의 교훈들은 지성이 뜨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적응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였다. 가르치는 일은 주로 구두로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또한 히브리

저술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청년들의 종교적 지도를 위하여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마을이나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교훈은 형식화되어 있었다. 유전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많았다. 참된 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행 17 : 27) 하도록 인도할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에서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외양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랍비들의 훈련을 받음으로 청소년들의 능력은 억압을 당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제한을 당하고 좁아졌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은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에서 소년으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분은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교사이셨기 때문이다.

구주의 공생애 동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한 질문은 예수께서 글을 읽으실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요 7 : 15). 그분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소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분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유년 시대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분은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다.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분은 보이는 사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공생애 동안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천연계의 감화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 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일상생활의 환경으로부터 영적 교훈을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힘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의 깊은 뜻이 그분께 펼쳐졌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의 수종자였으므로 거룩한 사상과 교제를 계발시킬 수 있었다. 지성의 눈이 처음 뜨일 때부터 그분은 영적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나셨다.

어떤 아이든지 예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 마음은 연단되며 우리의 성품은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볼 때에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을 좇아간다. 정신은 경외감에 젖어드는 한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통하여 무한하신 자와 접촉함으로 활기를 얻는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지적·도덕적 기능을 계발시키며, 우리가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상을 계발시킴에 따라서 영적 능력은 굳세어진다.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였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는 생각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아무런 죄의 흔적도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시험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악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낮은 평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 : 46)는 나다나엘의 질문에서 엿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을 싸우셨으니

이는 그분이 아이 때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그날을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분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분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들일만 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돈이나 오락이나 또는 칭찬이나 비난도 그릇된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분을 유인할 수 없었다. 그분은 악을 식별하는 일에 지혜로웠으며 그 악을 대항하는 일에 강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 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계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예수께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그분은 전에는 하늘의 사령관이었으며 천사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그분은 기술을 배우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하셨다. 그분은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고 비천한 작업을 위해 내왕하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내리셨다. 그분은 자신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수고를 덜기 위해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유년과 청소년 시대에 일을 하심으로 심신이 계발되었다. 그분은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각 방면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가르치고 청소년들로 인생의 부담을 나누어지도록 훈련시키는 활동은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 주며 모든 기능을 계발시킨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영광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에 그분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 : 4)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관에 봉착하거나 곤경을 극복하여야 할 때에는 무기력하고 거의 무익하여진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활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은 그분께서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계발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분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 그분은 경험을 통하여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의 생애의 교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계급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거나 부자는 유덕한 가난한 자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의 종교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실천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분이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분은 노래로써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분의 동료들은 일로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원기를 얻었다. 그분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하였다. 그분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 하늘 본향으로 이끌러 갔다.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셨다. 나사렛에서 은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 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무론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예수께서는 더욱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다. 그분은 몸소 모든 사람을 능히 동정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의 공명을 이끌어 내셨다. 그분을 둘러쌌던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는 그분을 모든 가정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의 교훈을 낭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 새로운 빛이 비춰 나오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분은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칭호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분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유년 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공생애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분의 가정 생활에서였다.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그분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분은 목수대에서 일하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과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청년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에 대하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사 42 : 1)고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8장 유월절에 참여하심

유대인들에게 열두 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分岐點)이었다. 히브리의 남아들은 이 연령이 차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릴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며 예수께서 적령(適齡)이 되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데리고 갔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연례적인 세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세 절기 중 유월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팔레스틴 각처로부터 경배자들이 많이 왔다. 갈릴리로부터의 여행은 여러 날이 걸렸으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큰 무리를 지어서 갔다. 부녀들과 노인들은 험준한 돌작길을 소나 말을 타고 갔다. 건강한 사람과 젊은이들은 도보로 갔다. 유월절의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해당했으므로 온 땅은 꽃들로 화사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로 흥겨웠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줄곧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념될 만한 고적들이 있었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여행을 즐겁게 했으며 마침내 예루살렘의 탑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모두가 목소리를 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가를 불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시 122 : 2~7).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에 최후의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을 집에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문설주에 살해된 어린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구운 어린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였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 : 11)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밤 자정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 때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출 12 : 31)라는 기별을 보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 국가로 나왔다. 주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유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릿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제단 위의 피 흘리는 제물을 바라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분은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분은 부모 곁에 머무르시지 않았다. 그분은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성전 뜰에 남아 계셨다.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분은 뒤에 남으셨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분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교사들과 접촉시키기를 원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히 순종하였으나 랍비의 의식과 관습은 따르지 않으셨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이 학식 있는 랍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들에 더욱 더 유의하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 그분은 받으신 것을 곧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의 본을 따라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이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여기에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하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 위엄 있는 학자들의 발아래 앉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야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려져 왔었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 랍비들은 메시야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그분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그분께서 지적해 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의 종교에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랍비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예언에 대한 이해는 그들을 훨씬 능가하였다. 그들은 이 생각이 깊은 갈릴리의 어린이가 장래성이 매우 많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을 학생으로 삼아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교사로 만들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이 독창적인 재능을 그들의 뜻대로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교육을 책임지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빛을 주려고 하셨으며,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타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냉소하고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그들은 듣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고 있거나, 적어도 그분의 성경 지식을 시험하고 있다고 자위하였다. 예수님의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의식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들은 메시야에 대한 기대가 예언에 의해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겨 준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노라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는 질문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빛이 흑암 중에 비치고 있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요 1 : 5)였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큰 혼란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뒤에 남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당시 나라의 인구는 매우 조밀하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무리의 대열은 매우 컸다. 그들이 도시를 떠날 때에 큰 혼잡이 있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쉬기 위하여 머물렀을 때에 도움이 되는 아이의 손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이 무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비록 어렸지만 그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언제든지 와서 그들을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염려가 되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다 살펴보았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유아 시절에 헤롯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던 것을 기억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크게 자책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 이튿날 그들이 성전에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분의 음성처럼 진실되고 열성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음조로 충만한 음성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랍비의 학교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기쁘기는 하였으나 괴로워하고 걱정하던 것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있게 되자 어머니는 책망 섞인 말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을 때에 그분은 위를 가리키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성전에서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분과 랍비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고 그분의 질문과 대답에 놀랐다. 그분의 말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을 여러 생각을 연달아 일으켰다.

그리고 부모에게 한 그분의 질문에는 교훈이 있었다.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에 종사하고 계셨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다. 거룩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의 행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을 온 종일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근심에서 놓여났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질책의 말을 던졌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분을 그들의 자식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분은 날마다 저희와 같이 살고 그분의 생애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구주와 함께 살게 하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그분과 헤어짐으로 그들이 괴로워한 일이나 그분이 은근히 책망한 말은 그들에게 그들이 맡은 책임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였음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탄생 전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눅 1 : 32, 33)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될 것은 믿으면서도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분이 요셉과의 친족 관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 수고스러운 부모들의 생계를 도우셨다. 그분은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고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한 후 18 년간 당신과 나사렛 가정과의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성전에서 당신의 사명이 그분에게 공개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무리들과 접촉하기를 꺼리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이 세상의 근심과 수고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때에 행하신 큰 기사를 회상시키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 기사 가운데서 그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기 원하셨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구원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표상적 예식은 예배자들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에만 효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예식은 잊혀졌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갈바리에서 겪을 당신의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 주려고 힘쓰셨다. 지금 그분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마지막 고통을 목도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녀가 그분의 사명을

깨달아서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를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에 어머니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은 것처럼 그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때에도 어머니는 다시 사흘 동안 그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녀의 슬픔은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지금 예수께서 그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성경절을 깨달았다면 그분께서 운명하실 때에 당할 고민을 얼마나 더 쉽게 견딜 수 있었을까!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부재(不在)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警醒)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고후 3 : 18)를 것이다.

9장 투쟁의 시절

유대 나라의 소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었다. 청소년들은 회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배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유년 시절부터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분은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분의 입술에 있었다.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 공개되자 그분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상충됨을 아셨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였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그분은 학자들의 교훈과 행습을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단순한 습관에 대하여 견책을 받을 때에 그분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셨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당신께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힘쓰셨다. 그분이 너무 온순하고 겸손하신 까닭에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분이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감화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언들과 유전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것들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만든 것을 순종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듯하였으며 성경의 참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 랍비들은 어린아이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분을 설복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그분의 불복종하는 행동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그분은 책망과 꾸지람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셨으며,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이 가족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동기는 곧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랍비의 영향은 그분의 생애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분은 소년 시대에서조차도 침묵과 끈기 있는 인내의 어려운 공과를 배워야 하셨다.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분의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완고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랍비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신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놀랐다. 그들은 그분이 박사들에게서 교훈을 받은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이 그들의 교사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육이 그들의 교육보다 더욱 고상한 종류의 교육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생명나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근원과 접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지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특별히 그들을 성나게 하셨다. 그분은 일상 생애의 문제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배타적인 높은 장벽의 담을 쌓은 종교의 아성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파당의 벽을 허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하늘 성품을 보여 주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그분은 성경상 종교가 육체의 고행에 있지 않다는 원리를 설득시키셨다. 그분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파는 정해진 때와 특별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위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책망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종교라는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개인적인 이욕에 대한 병적 헌신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 주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감화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감화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분은 당신의 형제 중 아무도 갖지 못하고 또 갖기를 원치 않은 재치를 가지고 계셨다.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에 그분은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 주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을 때에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졌다.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의 형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예수님보다 손위인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을 그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또 예수께서 저희의 교사들과 제사장과 나라의 관리들보다 당신을 높인다고 책망하였다. 그들은 가끔 그분을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성경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음으로 이겨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 안에서 큰 대조(對照)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면서도 무력한 아이였다. 세계들과 지구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소유였으나 빈곤이 그분의 생애의 매 발걸음의 특징이 되었다. 그분은 세상의 교만과 주제넘음과는 아주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해 분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비천한 지위에서도 만족해 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형들을 노하게 하였다. 그분이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온하신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고후 8 : 9)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욥의 친구들이 그의 겸비와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분의 형들은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것은 그분이 그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에 그들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그들이 지켰던 종교의 형식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마 23 : 23)다. 예수님의 모본은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분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그분은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외형적인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 사이의 대조는 명백하였다. 예수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으셨다. 그분의 이기심 없는 결백성은 오히려 조소 섞인 평을 받았다. 그분의 인내와 친절은 소심(小心)으로 불렸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의 탄생을 이유로 그분을 멸시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유년 시절에도 그분은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만일 그분이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 형들에게 양보했더라면 그분은 완전한 모본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어도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분을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분의 한 가지 대답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그분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좀처럼 책망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주셨다. 그분은 종종 어떤 금지된 행동에 형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하심으로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기록하였으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욥 28 : 28)였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려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많은 사람은 그분의 흠 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견책을 받으므로 그분을 피하였다. 젊은 동무들은 그분에게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도록 권하였다. 그분은 명랑하고 쾌활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분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치밀함을 보고 조급하여 말하기를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기록하였으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 : 9, 11).

그분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그분은 기록하였으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시 119 : 1~3)라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의 환락에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분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시 119 : 14~16)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분은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왜 너는 이러한 악의에 찬 대접을 심지어 친형제에게서까지 받으면서도 감수하는가라는 질문을 빈번히 받으셨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였으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3 : 1~4).

예수님의 부모가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였던 때로부터 그분의 행동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분은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그분의 모본은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분은 따로 구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일하던 곳에서 떠나 들로 가서 푸른 골짜기 가운데서 명상하고 또는 산비탈이나 삼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분은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그분은 이 조용한 시간들을 가진 후에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집안 일을 돌보며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특징지어졌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난 거룩한 아이가 오래 전부터 약속되어 온 메시야임을 마음에 믿었으나 감히 그 믿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예수님의 온 지상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에 당하시는 시련을 슬픔으로 목도하였다. 그분의 행위 가운데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옹호함으로써 마리아 자신도 어려운 입장에 빠졌다. 마리아는 가정의 교제와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자상한 보살핌이 아이들의 품성 형성에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요셉의 아들과 딸들은 이것을 알았으므로 마리아의 염려하는 마음에 호소함으로 그들의 표준에 따라 예수님의 행위를 교정하려고 힘썼다.

마리아는 종종 예수님에게 충고하면서 랍비의 규례를 따르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명상하는 일과 고난을 당하는 인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고난까지도 덜어주기 위하여 힘쓰시는 그분의 습관을 고치도록 설복시킬 수 없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을 제어하는 일에 그녀의 도움을 청하였을 때에 마리아는 매우 괴로웠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을 찾아서 보여 주실 때에 마리아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때때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지 않는 그분의 형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러나 그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풍부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있을 때에는 가정 안에 좀더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그분의 생애는 교제하는 자들 가운데서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였다. 그분은 분별이 없고 난폭하고 버릇없는 자들 곧, 부정한 세리, 무모한 탕아,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 나라의 군인, 거친 농부, 잡된 무리들 가운데서 해받음 없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행하셨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볼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분은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선하심에 대하여 당신이 천연계에서 배웠던 교훈을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보화를 가져다 줄 고귀한 재능들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자신들을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생애 가운데서 허영이란 것을 일체 제거해 버리셨으며, 매 순간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매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모본을 통해 가르치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 주려고 하셨다. 그분은 어떤 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와 환경에 적절한 교훈을 주셨다. 그분은 매우 난폭하고 희망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자들에게도 소망을 고취시켜 주고 그들도 흠 없고 유순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그러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분은 종종 사단의 지배 아래 휩쓸려 들어가서 그의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낙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 곧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그분은 영혼의 원수와 백병전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셨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승리를 줄 것이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증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격려하셨다. 그리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동정하는 귀에 털어놓은 비밀을 결코 누설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치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자신이 목도하는 온갖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분의 친절한 말씀은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어떤 사람도 그분이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흘러나왔다. 이와 같이 그분은 유년 시절부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처럼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들은 것은 이 까닭이었다.

그러나 유년, 청년, 장년기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이러한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억눌렀으며 아무도 그분이 진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열렬한 목적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당신의 생애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10장 광야의 외치는 소리

메시야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일어났다.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서 그 당시의 악하고 흑암한 시대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의 빛이 비쳐나왔다. 이 경건한 부부에게 한 아들이 약속되었는데 이 아들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였다. "사가랴는 유대 산중"에 거주하였으나 성전에서 한 주일 동안 봉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봉사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일 년에 두 번씩 행하는 봉사였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

그는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금 제단 앞에 서 있었다. 향연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갑자기 그는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 그 천사가 선 위치는 은총을 위하여 왔음을 나타내주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다. 이제 그의 이러한 기도가 막 응답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자책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쁜 보증을 받았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이 불신은, 천사가 그 귀한 기별을 전하였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 : 38)라고 대답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가랴의 물음에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하였다. 5백 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었다. 이 예언적 기간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사가랴는 메시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제 이 예언을 알려 준 바로 그 천사가 또한 이 예언의 성취를 알려 주기 위하여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그리스도)뿐이니라"(단 10 : 21)고 말하였다. 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 1 : 1)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함께 된 종이니"(계 22 : 9)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다음 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의심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천사의 말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었다. 천사는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예식을 집전할 때 일반 공중과 국민의 죄의 사유를 위하여 또한

메시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가랴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와서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혹시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나 않았는지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으며 백성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는 그가 보고 들은 바를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약속되었던 아들이 출생하자 곧 아버지의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였다. 이 모든 일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었던 메시야의 강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이바지했다. 성령이 사가랴에게 임하자 그는 그의 아들의 사명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예언하였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천사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을 부르셨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주를 그의 동역자로 모셔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잔치와 먹고 마시는 일이 육체에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유년과 소년 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 자제력도 이 때 습득해야 한다. 노변(爐邊)과 가정 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원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天稟)보다도 더 인생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씨를 뿌리는 때이다. 청소년기는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거둘 수확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류와 우화(寓話)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올무는 증가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보다 더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라면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

그가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황량한 언덕들과 거친 계곡들과 암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하였다. 이곳의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의심과 불신과 부정(不淨)이 거의 만연된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그는 옛날 선지자의 옷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

그러나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 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므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이는 데 힘썼다.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았으나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영적 식별력은 예민하였다. 그는 의지의 견고성과 과단성을 수양하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학교와 성소를 발견했다. 미디안 산중의 모세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싸여 있었고 그분의 능력의 증거로 둘려 있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모세처럼 웅대한 산중의 고요한 곳에 거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었으나 그의 앞에는 요단 건너편의 모압의 산들이 있어서 산들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그것들을 띠띠게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여 주었다. 그의 광야의 거처가 있던 천연계의 암담하고 두려운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다. 열매를 많이 맺던 주의 포도원은 황폐해졌다. 그러나 광야의 하늘은 밝고 아름다웠다. 폭풍우를 머금고 모인 검은 구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궁형(弓形)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위에 메시야의 통치의 약속된 영광이 비췄다. 진노의 구름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무지개가 걸쳐 있었다.

홀로 고요한 밤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다. 모압 산들을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여명의 빛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없는 아침 같"(삼하 23 : 4)으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리고 낮이 되어 환하게 밝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사 40 : 5)게 될 그분의 나타나심의 광휘(光輝)를 보았다.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언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메시야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된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에 나타나실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자"이셨다.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 한 로마의 통치자가 시온산의 왕궁에 자리하였다. 주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사야가 메시야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그분을 곧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으며 다시는 그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하며 그 땅을 뿌라라 하신 것들이었다(사 11 : 4, 32 : 2, 62 : 4 난외주).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요한은 메시야의 왕국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적대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의로우신 왕의 강림과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서 건설되는 것이 그의 소망의 큰 목표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출생 시에 주어진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을 갈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 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안전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어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 때에 굴욕을 준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킨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의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있었다.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제거되자 유대는 로마의 직접적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다. 로마 총독들의 폭정과 강탈, 그리고 이교의 상징과 풍습을 도입시키려는 그들의 단호한 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그 반란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야 진압되었다. 이러한 모든 형편은 로마에 대한 유대 국민의 증오심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하였으나 희망이 가득 찬 음성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사건이 가깝다고 선포되었다. 요한의

이상한 외양은 청중들의 마음에 옛날의 선지자들을 연상시켰다.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또한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많은 무리가 광야로 모여들었다.

요한은 메시야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 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야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왔다.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엄숙한 경고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이 선포한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요구에 순복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높였고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애의 은밀한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오(悔悟)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다.

요한은 그들을 통렬한 질문으로 대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그릇되게 해석하였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31 : 35~37).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 약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조건들을 간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을 주기 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 : 33, 3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과거에 여러 번 주께서 그토록 큰 은총을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변명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했다.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고전 10 : 11)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자아 만족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죄로 굳어지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은, 그들이 의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임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에 비춰 볼 때에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던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악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려져 나온 반석과 파여져 나온 구덩이를 잊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셨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광야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신은 그들을 각성시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에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청중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요한의 말에 죄를 자각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와서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다. 그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리들에게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일상 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져질 쭉정이와 같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마 3 : 11)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곧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사 4 : 4, 1 : 25)시겠다는 것이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히 12 : 29)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창 32 : 30)고 외쳤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살후 2 : 8)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려고 하셨다. 그분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다.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 허다한 무리가 이 새 교사를 여러 곳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혹시 메시야가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11장 침 례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분의 때는 왔다. 그분은 자신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 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셨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고 그들의 출생에 따른 사건 때문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애하셨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애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 은둔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차 교통한 일이 없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특징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의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야가 되실 것을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은 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시고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특별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사실은 그분이 과연 "약속되신 분"이실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메시야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분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야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에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분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분이 계신 자리는 그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 주위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서 범죄에 대한 험악한 이야기를 들었고 숱한 죄 짐에 눌린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었으나 그처럼 신령한 감화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야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된 것과 부합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기를 주저하였다. 죄인인 그가 어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죄책이 씻기기를 바라는 고백인 의식에 순복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셨을 때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외치며 뒷걸음을 쳤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고도 온유하신 권위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셨다.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물속에 장사지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의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분 앞에 열리고 있었다. 그분은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지만 그분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분이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이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공생애 동안도 그분은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일생 동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에 거하셨으나 그분의 지상 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끼셔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으셨으나 그분의 목적은 여전히 견고하였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분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미셨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했다. 그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매어 둔 차꼬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異像)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엄숙함이 회중 위에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빛났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다. 범죄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가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 : 7, 8)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취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그가...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으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사 53 : 7, 6).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 중의 대다수는 희생 제물을 마치 이방 사람이 자신들의 제물에 대하여 생각하듯이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예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화목시키는 예물은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엡 1 : 6)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가납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 : 2).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러 가신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 3 : 7, 8).

12장 시 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다. 마가의 말은 좀 더 의미심장하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는 말한다. 예수께서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분은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분은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빛의 임금과 흑암의 나라의 지도자와의 투쟁에 걸려 있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칭하였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신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곳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쥐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반증(反證)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人子)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세상이 자기 것이라는 사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해방될 것이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통치권은 회복될 것이다.

에덴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창 3 : 15)는 선언이 있은 후로 사단은 자신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지배에 대항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큰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물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의식 가운데서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의 표상을 보았다. 그는 이 교통을 방해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구주를 예표하는 예식을 그릇 해석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하도록 이끌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야 할 제물이 다만 그분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드려졌다. 사단은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굳게 붙잡기 위해 사람들의 악한 감정을 격발시켰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사단은 자신의 통치권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한 분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 나신 왕의 권위를 증거하는 천사의 기별을 듣고 떨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하늘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그를 놀람과 염려로 가득 채웠다. 그는 이 큰 희생의 신비를 측량할 수 없었다. 그의 이기적인 정신으로는 기만당한 인류를 위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다.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도 사람의 심령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데 장애가 없지 않았다.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맹공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으므로 사단의 회의들에서는 예수를 정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기만자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악의 동맹군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그분을 따라다녔으며 가능하면 그분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당신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 : 3) 오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이 회복되었음이 드러났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그 싸움을 지휘해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시험들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람으로 이끄는 과시를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써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았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4천 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 있으셨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의 무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유혹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에 둘려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그분은 시험과 싸우도록 남겨지셨다. 그 시험은 순간마다 그분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투쟁으로부터 움츠러들었다. 40 일간 그분은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셔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사 52 : 14)다. 사단에게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마치 그분의 기도의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한 존재가 구주께 다가왔다. 그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피 묻은 길로 들어가시려는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마음을 만족히 여기고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예수께 전달된 기별이었다. 구주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한 중에 음식을 갈망하셨다. 바로 그 때 사단이 갑자기 그분에게 나타났다. 광야에 널려 있는 떡덩이 모양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유혹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첫 말이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여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동일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한다.

사단은 에덴의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던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 : 1). 유혹자의 말은 여기까지는 진리였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 말 가운데는 은밀한 부정(否定),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는 모순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 그와 같이 이제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취시키려고 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에는 그의 마음속의 쓰라린 감정이 사무쳐 있다. 그의 어조에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암시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격심한 배고픔에서 그대 자신을 건짐으로 그대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 : 17)는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그는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맞서 싸웠을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만군의 사령관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발생한 반역의 지도자였던 사단은 쫓겨났다. 이제 그들의 형편이 역전된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이용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천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예수의 외관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사람에게서 외면 받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적인 존재라면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확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창조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은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 유혹자는 주장했다. 그것으로 투쟁은 종결될 것이다.

예수께서 조용히 대 기만자의 말을 들으실 때에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자기 비하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반역자의 요구에 응함으로 인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조금도 없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제의에 응하셨더라면, 사단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표적을 내게 보이라고 여전히 말하였을 것이었다. 증거는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적 세력을 깨뜨리는 데 무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 주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나 이후의 지상 생애의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사단인 줄 아셨으나 그와 투쟁할 충동은 받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분은 시험과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분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실 때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 왔다. 힘이 진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 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유리함으로 피곤해졌을 때에 그의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놓았다. 그는 약속의 땅 바로 경계선에서 실패했다. 아합왕 앞에 담대히 섰었으며, 또한 4백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선두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맞섰던 엘리야도 그러했다. 갈멜산상에서의 그 두려운 날, 곧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언하였던 그날 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그는 확실히 사단의 밥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천4백 년 전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 : 2, 3)고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구주께서는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백성들에게 도움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도 도움이 주어질 것이었다. 그분은 도움을 베푸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광야에 계셨으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음식을 얻지는 않으실 것이었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사 33 : 16).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시 37 : 19)리라.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 : 17, 18).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 버리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제어하지 않은 방종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질병과 퇴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극심한 죄악과 함께 다시 존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형편은 홍수 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언명하셨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두려운 시기의 바로 변두리에 살고 있으므로 구주의 금식의 교훈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제어하지 않은 방종의 사악함을 평가할 수 있다. 그분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 : 33)고 말씀하신다.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당신 자신의 모본을 가리키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 : 7~10).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요 14 : 30)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벧후 1 : 4)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시 119 : 11, 17 : 4).

13장 승 리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그분 자신의 입장에 서서 대하려고 생각한다. 이 간교한 원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직접 제시한다. 그는 여전히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그가 성경에 정통하며 기록된 글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 예수께서 전에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유혹자가 자신의 기만을 가리기 위하여 그것을 인용한다. 그는 예수님의 충성을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분의 확고하심을 칭찬한다. 구주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시하였을 때에 사단은 여전히 그분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시험은 또다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의심을 암시하는 말로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이어든"이라는 말에 대답하도록 유혹받았으나 의심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단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시험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용하여 그분을 참람 되도록 충동질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는 그분을 밀쳐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니 예수께 뛰어 내리라고 말했다. 사단은 또한 예수님을 강제로 "뛰어 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시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게 하실 수 없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그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그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라는 약속을 인용하면서 사단은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생략했다. 예수께서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는 한편 당신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본을 보여 주는 데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출 17 : 7)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께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지금에 와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신을 나타내고 그분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 : 6).

그러나 믿음은 조금도 추측(推測)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믿음은 우리의 첫 부모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추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그는 만일 우리를 스스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 있다면 승리는 자신의 것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막 14 : 38)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종종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추정하지도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전 10 : 13; 시 50 : 14, 15)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둘째 시험에서도 승리자가 되셨으며, 사단은 이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갈라진 발과 박쥐의 날개를 가진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비록 타락하였지만 힘센 천사이다. 그는 자기가 반역의 지도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공언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영광의 전경(全景)을 그분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햇빛이 전각들이 있는 성들과 대리석 궁전들과 비옥한 전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추었다. 악의 흔적들은 숨겨졌다. 조금 전까지도 음침하고 황폐한 것밖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때에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분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 한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한다. 이제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한 데 있었다. 만일 그가 지금 이긴다면 반역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다. 그는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단 4 : 17)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진정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 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것과 같은 통치권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를

원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승낙하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 저주와 그 모든 재난이 이 땅에 임하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혹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제공하여 악의 원칙에 충성하도록 그리스도를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매수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으며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와 같은 시험으로써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 곁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해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영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빼앗는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었다. 사단은 즉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신성이 고난 받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사단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능력이 없었다.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구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에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 4 : 7, 8).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잠 18 : 10)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한다.

마귀가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하였다.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떤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분은 먹을 것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분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보증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다. 생기를 다시 회복하자 그분의 넓은 마음은 인류를 위한 동정을 쏟아낸다. 그분은 당신이 시작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셨다. 원수가 정복당하고 타락한 인류가 구속받을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을 것이었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우리의 황홀해진 감각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 : 12)라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를 것이다.

14장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침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막으셨던 곳이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하늘의 군대에 의하여 허물어진 여리고의 성채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이때에 되살아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감명 깊게 하였다. 지난 세대에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지 않으시겠는가? 요단강 언덕에 날마다 운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요한의 복음 선포는 종교계 당국자들의 주목을 끌 만큼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로마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하여 모든 대중적인 집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백성들의 폭동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유대 관원들은 두려워하였다. 요한은 산헤드린의 권위를 인정하여 자신의 사업에 대해 산헤드린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관원들과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똑같이 견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열렬하게 따랐다. 요한의 사업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증대되어 가는 듯이 보였다. 요한은 산헤드린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한이 공중의 교사로서 그들의 관할 아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단체는 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의 교사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대제사장이 그 회의 의장이었다. 회원들이 모두 연로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든 사람들로서 유대의 종교와 역사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에도 박식한 사람들이어야 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였으며 결혼하여 아버지가 된 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 인정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어야 했다. 그들의 회합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이었다. 유대 나라가 독립 국가였을 때 산헤드린은 국가의 최고 법정으로서 사회와 교회에 대한 권위를 겸유하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로마 총독에 예속되어 있었지만 산헤드린은 민사(民事)와 종교적인 문제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산헤드린은 요한의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 중의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사가랴에게 보이신 계시와 아이를 메시야의 선구자로서 지적하였던 아버지의

예언을 상기시켰다. 격동과 변천의 30년 세월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거의 잊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이 요한의 전도에 관한 사람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개혁을 경험한 지도 오래 되었다. 죄를 자복하라는 요구는 새롭고도 놀랍게 보였다. 지도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생애의 은밀한 것들이 폭로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요한의 호소와 책망의 말을 가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이 전한 말씀은 메시야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였다. 메시야의 강림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의 70주일(週日)에 관한 예언이 거의 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당시 기대하던 국가적 영광의 시대에 참여하기를 열망하였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열광적이었으므로 산헤드린은 불원간 요한의 사업을 재가하든지 거절하든지 곧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권세는 약해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그 새로운 선생과 협의할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요단강에 급파했다.

무리들이 모여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대표단이 다가왔다. 오만한 랍비들은 사람들을 위압하고 선지자의 존경심을 이끌기 위하여 의도된 권위 있는 태도로 거드름을 피우며 나아왔다. 존경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태도로 군중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지위와 권세의 자만심에 찬 이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의 선지자 앞에 섰다. 그들은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요한이 인용한 성경절은 이사야의 아름다운 예언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사 40 : 1~5).

옛날에는 왕이 자주 다니지 않는 그의 영토 내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일단의 사람들을 왕의 수레보다 앞서 보내 험준한 비탈을 평평하게 하고 우묵한 곳을 메우게 함으로 왕이 안전하게, 장애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선지자는 복음 사업을 예증하기 위하여 이 관습을 인용하였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각성시키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진다.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권세는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해지고 모든 생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 : 5)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토록 과소평가되던 겸비와 자아 희생적인 사랑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업이요 요한의 기별도 그것의 일부였다.

랍비들은 심문을 계속하였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그 선지자"란 모세를 두고 한 말이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데려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이미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침례 요한이 공중 전도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으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선지자 모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또한 메시야가 강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요한은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었다. 예수께서 후에 요한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마 11 : 14)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엘리야가 행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다. 요한은 자기가 성취하기 위하여 왔던 사명을 그들을 위하여 완수할 수 없었다.

요단강에 모였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던 그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 때에 주어진 표적은 그들 중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침례 요한의 앞선 몇 달 동안의 봉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부름에 유의하기를 거절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퍅해졌고 이해력은 어두워졌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은 활기를 얻는다. 그들은 안위와 용기와 축복을 받는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은 요한에게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고 물은 후에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를 훑어보던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은 환해졌으며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양손을 뻗치면서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요 1 : 26, 27)고 외쳤다.

산헤드린에 가지고 가서 전달할 그 기별은 명백하고 분명하였다. 요한의 말은 오래 전에 약속된 분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었다. 메시야가 그들 가운데 있다니!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놀라서 요한이 말한 그분을 발견하고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그분을 분간해 낼 수 없었다.

예수님의 침례 때 요한이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야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사 53 : 7)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 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강림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요한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무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본성에 대한 어떤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을 확신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매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표징도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에 대한 침례 요한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과 사귀면서 당신의 특별한 사업에 대한 외적 증거를 주지 않으셨고, 남의 이목을 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머무르자 요한은 그의 두 손을 펴면서 이렇게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요 1 : 29~34).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요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침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그분의 의복이나 태도에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분은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을 입은, 신분이 낮은 인물인 것처럼 보였다.

무리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 때 이후로 구주의 용모는 크게 변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창백하고 쇠약하고 야위어서 선지자 요한만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분는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분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오던 분이신가?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겸비를 가르치실 수 있었겠는가? 산상 설교에서처럼 어찌 예리한 진리들을 제시하실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면 비천한 자들의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무리들에게,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듣기를 갈망했던 말, 즉 예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왕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분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요한은 다시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선지자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어 그는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요한 자신은 그 말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의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야인가?"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첫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고만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고자 하셨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그분의 발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분께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룩한 조명(照明)이 구약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양한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영혼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요일 4 : 7)다.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1 : 14)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시몬은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또한 즉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야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 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는 기별은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였다. 그러나 빌립은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의심을 품은 말을 덧붙였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다시 선입견이 일어났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와보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은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실례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 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 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겨 주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애정 어린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 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겔 34 : 26).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교사들이 된다.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에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실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어조에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이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 : 25).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처럼 충만하고 열렬하며 진실한 나다나엘의 첫 신앙 표현은 예수의 귀에 음악과 같이 울렸다. 그래서 그분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일을 보리라."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사단의 포로가 된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게 될 당신의 사업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신 귀중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표적이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각성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 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 당신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15장 혼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 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 주셨다.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비애의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곧 당신의 감사 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양가(兩家)는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가족의 모임을 알고 가나에 가셨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이 나사렛에 전하여지자 매우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숨겨져 왔던 장면들이 그녀의 마음에 새롭게 떠올랐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요한의 출생 시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의 관계가 그녀의 소망을 새롭게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이상하게도 광야로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짓눌렸다.

마리아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고대해왔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알던 요셉과는 사별(死別)하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 두 달 동안 그녀는 매우 슬펐다. 그녀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분의 동정에서 위로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눅 2 : 35) 하던 시므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고뇌의 3 일간을 회상했다.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친절하고 믿음직한 아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분은 전과 같지 않다. 그분의 용모는 변해 있다. 그분의 얼굴은 광야에서의 투쟁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표정이 그분의 하늘의 사명을 증거해 준다. 곁에는 존경의 눈길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일단의 청년들이 함께 있다. 이 동행자들은 침례 시와 각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상세히 말해 준다. 그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요 1 : 45)다는 말로써 결론을 맺는다.

손님들이 모이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화제에 열중하여 여념이 없는 듯하다. 억압된 흥분이 회중을 감돈다. 여러 작은 무리들은 열심히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의 눈길을 마리아의 아들에게로 돌린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성결한 기쁨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자만의 흔적이 섞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인간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분께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혼인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포도주 없이 잔치를 치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는 표시처럼 보일 것이었다. 양가의 한 친척으로서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곧 예수께서 그들의 부족을 공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이 대답은 우리가 듣기에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냉정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태도는 동양의 관습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태도로 대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친히 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 : 12)고 하신 교훈에

일치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행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당신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위탁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와 십자가 위에서의 어조와 표정과 태도에 나타난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의 평생 사업의 신비가 당신 앞에 공개되었다. 그 때에 그분은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 : 49)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봉사의 기조가 되는 말씀이었다. 만사는 당신의 사업, 곧 당신께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구속 사업을 위하여 제쳐놓은바 되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 교훈을 되풀이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었다. 30년 동안 그분은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며,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두루 다니시며 하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셔야 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도 그분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셔야 했다. 이 교훈은 또한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인연보다도 훨씬 높다. 이 땅의 어떤 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의 발을 이탈시켜서는 안 된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예수님과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나타나 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셨다. 그들 사이에 맺어진 혈연관계가 결코 마리아를 예수와 동등한 지위에 놓을 수 없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분 앞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분은 정한 시기에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은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야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였으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신과 뿌리 깊은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고, 놀라고 몹시 실망하였다. 구주의 초기의 이적들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문간에 물 넣는 돌 항아리가 여섯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셨다. 물은 채워졌다.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 대신에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연회장(宴會長)이나 손님들은 모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종들이 날라 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우수하며, 잔치의 시작에 내놓은 포도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신랑을 돌아보면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환락으로 시작된 것이 피곤과 싫증으로 끝난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수용하는 자들에게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요 1 : 50)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혼인 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첫 번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다시 주고 당신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고전 11 : 26) 전하게 될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 : 29)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과 이별하는 제자들의 슬픈 마음은 재회(再會)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혼인 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에 대해 말할 때에 이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사 65 : 8)고 말했다.

구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20 : 1)는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이러한 음료를 준비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열한 본성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극기의 모본이다. 그는 식욕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지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와 유사한 절제를 명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의 입술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치신 교훈에 배치되게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의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었다.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포도주의 질을 감지하고 사환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고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무리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잠시 동안 너무나 놀랐다. 드디어 그들이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는 이미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리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소망이 불붙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 사람들 가운데 그토록 겸손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새로운 교사의 사명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전과 형식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不淨)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 않았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협소하였다. 그들의 모본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자기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켰다.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됨으로써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애쓰셨다. 그분께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으려고 애쓰셨다. 그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살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를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감화로부터 보호하며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엄격하고 고립된 그의 생애는 백성들의 모본은 아니었다. 요한 자신도 청중들에게 이전 의무들을 버리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으나 그분의 본성은 사교적이셨다. 그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각을 일상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로 끌어올리고자 하셨다. 그분은 방탕을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세속적인 경박의 그림자가 그분의 행동에 흠을 입히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분은 순수하게 행복한 정경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으며 사교의 모임에 친히 참석함으로 그것을 인정하셨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인상적인 행사였으며 그 기쁨은 인자에게 불쾌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함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다.

혼인 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것임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사 62 : 5, 4; 습 3 : 17)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 : 6, 7, 9).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당신의 신령한 임재의 감화를 받게 하셨다. 그분은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분은 산기슭에서 그들 가운데 앉아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혹은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으셨다.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그분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거나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촌락과 도시들을 두루 여행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것은 당신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였다.

인류의 관심사에 당신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의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단지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리석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교제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언행이나 침묵이나 태도를 통하여 죄를 시인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돌담 안에 감추어 둠으로써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교는 사교적인 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조명(照明)을 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 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정하고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들은 조상(彫像)들이 아니요 살아 있는 남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소생된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확장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한다.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는 이 여행에서 수도를 향하여 가고 있던 큰 무리 중의 한 무리와 일행이 되셨다. 그분은 아직도 자신의 사명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군중 가운데 섞여도 남의 주목을 끌지 않으셨다. 이 경우에도 요한의 전도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주목을 끈 메시야의 강림이 흔히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국가적인 위대함을 바라는 소망이 매우 열광적으로 강조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소망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므로 실망을 겪게 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깊은 열의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깨우치려고 힘쓰셨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유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각처와 심지어 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성전 뜰은 혼잡한 군중으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한 크신 희생 제물을 예표 하는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뜰에서 짐승들이 거래되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물을 사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모든 외화는 성전 주화(鑄貨)로 교환되었다.

모든 유대인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 세겔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렇게 모은 돈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출 30 : 12~16). 이외에도 많은 금액이 자원하는 헌물로 드려져 성전 금고에 비축되었다. 그리고 모든 외국 화폐는 성전 봉사에 사용되던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는 주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다.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였으며 그 이익금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나눠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경배자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비싼 가격에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왕 온 다음에는 그들이 행하려고 한 헌신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월절에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그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성전과 관계되는 의식을 이행하는 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의 본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 장소는 그분의 임재로 성별되었다. 모세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 왔다.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무론하고 살지 못하리라"(출 19 : 12, 1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하나님의 성전의 경내(境內)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 뜰에서 벌어지는 악폐를 시정했어야 했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대신에 경배자들의 사정과 필요를 염려하고 필요한 제물들을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강퍅하게 되었다.

이 절기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곤핍과 비탄에 잠겨 있는 자들이 왔다. 그 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 왔다. 너무 가난하여 주께 드릴

하찮은 선물조차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이 호의를 구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광경을 보셨다. 그분은 부정한 거래를 보셨다. 그분은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성전의 바깥뜰이 거룩하지 못한 장터로 변한 것을 보셨다. 신성한 구내는 일종의 거대한 환전소가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다. 백성들은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배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쳤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분께서 인정과 존귀를 받지 못한 채 서 계셨다. 그분께서 헌물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은 그 제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셨으며 이제 그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음을 보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당신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신다. 그리고 몇 년 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그분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지를 보신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인지를 보신다. 그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에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분께로 이끌린다.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던 자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된다. 그들은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어떤 자들은 마치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준엄한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쓴다.

소란이 그친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럽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한다. 마치 그들이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본다. 하늘의 주재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신다. 지금은 그날에 그를 두를 영광으로 둘리어 있지는 않지만 그 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분은 샅샅이 관찰하면서 무리들을 훑어보신다. 그분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며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그분의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아치를 통하여 메아리친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께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구내 입구에 모아 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구내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신다. 그분은 전에 결코 나타내지 않았던 열정과 준열함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다. 주화는 대리석으로 된 보도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아무도 감히 그분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감히 부정으로 모은 돈을 주우려고 멈추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손에 들린 단순한 채찍은 마치 화염검과 같이 무서워 보인다. 성전 관리들, 투기(投機)하는 제사장들, 중간상인들과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난다.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 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떤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른 언행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시 69 : 9)라는 말씀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곧 떠들썩하던 군중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 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성별된 산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였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야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 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말 3 : 1~3).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 17).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계 3 : 20)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고후 6 : 16; 미 7 : 17)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엡 2 : 21, 22) 되게 할 것이다.

공포에 질린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피하여 성전 뜰에서 도망갔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성전으로 가는 다른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장면 가운데서 그분은 온 유대민족이 그들의 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될 상징을 보셨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서 도망갔는가?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자는 세상의 지위나 권세가 없는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한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들은 왜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그토록 부정하게 번 돈을 버리고 그렇게도 비천한 외모를 한 분의 명령을 듣고 도망갔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외모나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그들은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와 강도로서의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임을 확신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야임을 믿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 주셨다.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음을 알았다.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에 부정 이득을 취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분을 증오하였다. 그리스도의 공공연한 책망이 그들의 자만심에 굴욕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시기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저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또한 이 능력을 그분에게 주신 분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눈물어린 눈으로, 당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것들을 굽어 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에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 곧 그들의 좌절된 희망, 고통스러운 날들,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다. 네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하였다.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심신이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각처에서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이와 같이 나음을 입었던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폭도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놀라우신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구주이심을 알았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들이 되었으며 그분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성전 뜰에서 도망갔던 무리들은 잠시 후에 슬금슬금 되돌아왔다. 그들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공포에서 얼마간 회복되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놀랐으며 메시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성전 뜰이 시장으로 변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였다. 백성들은 비교적 무죄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종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한 것을 간섭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는 그들의 손안에 그분의 사명을 묘사한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초인간적인 능력의 현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히 미워하였으나 그분은 성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런 두려움에서 생긴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분에게 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라고 질문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하고 메시야가 해야 할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주셨다. 이제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그분은 그들에게 한 비유로 대답하심으로 저들의 악의(惡意)를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악의가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아셨다. 그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이중의 뜻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죽음, 곧 당신의 몸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언급하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일을 음모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은 성전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말썽을 일으키는 자를 제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앞에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적용시켜 분노한 가운데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고 외쳤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이때에 당신의 말을 깨닫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원수들에 의해 곡해되고 당신을 거절하는 데 쓰이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 심문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은 고소의 재료로, 그리고 갈바리에서는 그분에 대한 조롱거리로 쓰여 질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아직은 감당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슬픔을 그들에게 안겨 주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설명은 편견과 불신의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너무 일찍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었다. 이미 그들은 그분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이 되시기까지 그분을 끈질기게 쫓아다닐 길에 들어섰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이 되풀이될 것을 아셨다. 유월절에 하신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세계 각처에 전달될 것이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명백하게 될 것이었다.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영적 흑암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흔히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이 교훈들 중 많은 것들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주(支柱)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구주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듣는 자들이 이해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성격과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제정되었다. 희생 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 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그분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에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었다. 성전의 신성성은 떠나갔다. 성전은 파괴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날부터 희생 제물과 그것과 관련된 의식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가인이 드린 제물처럼 그것들은 구주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파괴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최후의 큰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주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흑암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승리로 기뻐 날뛰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셉의 갈라진 무덤에서 정복자로서 부활하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 : 1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참 장막에 부리는 자"(히 8 : 2)가 되셨다. 유대인의 성막은 사람들이 건축했다. 유대인의 성전도 사람이 건축했다. 지상에 있는 것의 원형인 하늘 성소는 인간 건축가가 세운 것이 아니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슥 6 : 12, 13)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그쳤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12 : 24, 9 : 8~12).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 : 25).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 : 14~16).

17장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행사하신 권위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결정적인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 이상한 사람의 능력을 두려워하였다. 미천한 갈릴리 사람의 그러한 대담한 행동은 용인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열중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이 음모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뚜렷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그분을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함으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를 기억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의 견책을 거절한 그들의 완고함의 결과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그들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므로 그 결과 나라에 새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니고데모도 이런 생각에 동감이었다.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주의와 자제를 조언했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사장들은 감히 이 권고를 무시하지 못했으며 한동안은 구주께 대항하는 공공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도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해 했었다. 그는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 광경을 목도하였다. 그는 거룩한 능력의 놀라운 현시를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분을 공개적으로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산헤드린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만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본을 좇게 될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 회견을 변명하였다. 감람산에 있는 구주의 휴식처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찾아갔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태연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감추려고 애썼다. 그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교사로서 가지신 드문 재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함으로 그는 면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신임을 얻으려고 계획했지만, 사실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 그분은 이 방문의 목적을 알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고자 엄숙하나 친절하게 직접 요점을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 : 3).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로 편협하고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메시야가 오실 때에는 사물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였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아이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신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고 손을 드시면서 진리를 더욱 확신 있게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는 일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침례 요한이 예언하던 분 앞에 있음을 확신하였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욥 14 : 4)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롬 8 : 7; 마 15 : 19)이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뜻을 예증하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하면서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분을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오랜 구애 곧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재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 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섬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그는 궁금하게 여기면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말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확실히 백성들의 종교적인 교훈을 맡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니고데모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화를 내는 대신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했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으나 표정과 목소리에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을 때에도 성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명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듣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만일 니고데모가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증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성결을 그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하늘 사업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구주의 면전에서 도망갔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진바 되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사 64 : 6; 시 51 : 10; 겔 36 : 26, 27).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율법의 단순한 자구에 대한 순종은 아무리 엄격하게 지킬지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에 니고데모의 생애는 외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야가 있었다. 들림을 받은 뱀의

상징은 그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해졌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 : 3)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 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하였다.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외친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밖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 : 12).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 : 31).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 : 29).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새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시 40 : 8)나이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과업을 그처럼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경우는 이외에는 없다. 예수께서는 봉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초에 산헤드린의 일원, 곧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마음을 지닌 백성들의 임명된 선생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 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청중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한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분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음모를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교훈을 기억하였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쳐오는 빛이 갈바리 위의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았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예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 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관원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의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감화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야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이다. 사단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 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의 증거를 앞에 두고도 그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이제 요한은 인기의 조류가 자기 자신에게서 구주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은 나날이 그 수가 줄어들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지방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분의 제자들의 수효는 날마다 증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하여 나왔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시지는 않았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구자의 사명에 인을 치셨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업을 비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오래 되지 않아 기회를 찾게 되었다. 그들과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침례가 과연 사람을 죄에서 깨끗케 하여 주느냐 하는 질문이 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곧 침례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논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침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하면서 그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단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시험을 가져다주었다. 요한의 사명이 비록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의 독기(毒氣)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야와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말하였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약혼한 양가의 사자로서 활동하는 혼인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고 하였다.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다. 친구가 자기가 추진하여 오던 이들의 결합으로 얻는 행복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구주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기쁨이었다. 그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 더 높이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양을 주시하도록 하였다. 요한 자신은 목소리, 곧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에 삼키어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 : 29)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식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분과 더불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 : 15).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구주의 영광을 증거하였을 때 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니고데모와의 회견시에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이었다.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요 5 : 30)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히 1 : 9).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골 2 : 9, 10)다.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그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요 3 : 33).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에 대하여 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침례 요한이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의 성공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서 광야에 모이는 것을 보고 요한의 감화를 시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군중들을 이끄시는 분이 계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사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분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 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의 증거가 성취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맡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와 같은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에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모습이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때때로 각기 다른 대리자들을 불러들이실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셨다. 그분께서 아름다운 세겜 골짜기에 이르신 것은 정오 때였다. 이 골짜기 어구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여행에 지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간 동안 쉬기 위하여 이곳에 앉으셨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그것은 그들 나라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범위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에 그분은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이제는 정오의 태양이 그분에게 내리쬐었다. 그분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였다. 그분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우물은 깊었다. 그분은 인성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 길으러 오기를 기다리셨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동방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동방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을 매우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였으므로 사막의 아랍 사람들은 이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길가에 나가곤 하였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써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깨운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대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로를 여신 그분이 야곱의 우물에서 당신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까지도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놀라서 그분의 요구에 응할 것은 잊어버리고 물을 달라는 이유를 알려고 하였다.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말하였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우리 발 아래 있는 우물에서 물 한 모금 같은 매우 작은 호의를 네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는구나. 네가 만일 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말에 엄숙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의 경박하고도 농담적인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저희 앞에 있는 그 우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가...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 여자는 단지 여행에 지치고 먼지 묻은 목마른 한 여행자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존경받던 부조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여자는 다른 어떤 우물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야께서 친히 자기 곁에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메시야의 오심을 고대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롬 10 : 6~9)라.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그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엄숙한 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 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의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자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 여자가 말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그 여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 그 여자는 그 방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속하여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고 말씀하셨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 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 보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다지 반갑잖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녀는 깊은 존경을 표시하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했다. 그 때에 그녀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면서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로 화제를 돌렸다.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오래도록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이 문제에 대하여 속 시원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 줄 기회를 살피셨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그 여자는 말했다. 그리심산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그 성전은 파괴되어 그 제단만 남아 있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계속해 왔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중 얼마는 한때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었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되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는 점차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정하게 물들여 놓았다. 그들이 우상들은 그들에게 우주의 통치자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새긴 우상을 공경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의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특권을 거절당했으며 그 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의 의식에 일치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재난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성전은 원수들에게 파괴되어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예배의 형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의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야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신 백성들, 곧 유대인으로 분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 : 3)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에게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의 임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분은 책망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메시야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 여자는 예수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다 .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 : 15)는 약속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였다. 빛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 그 여자에게는 계시된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다.

제자들이 심부름 갔다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주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께서는 원하던 시원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기 위해 멈추지도 않으셨다. 그 여인이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시도록 간청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잠잠히 깊은 명상에 골몰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이 밝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교통하시는 것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기진하여 피곤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그분에게 알려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저희의 애정 어린 염려를 인정하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누가 그분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궁금히 여길 때에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 : 34)고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기 위해 오셨던 사명의 성취는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분으로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자비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감화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녀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 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 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녀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으셔서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곡식밭을 바라보셨다. 밭의 부드러운 녹색이 황금빛 태양빛을 받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상징으로 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물을 향하여 오는 무리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곡식을 추수할 시기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했지만 여기에 추수꾼을 기다리는 열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성한 봉사를 지적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저 사람은 추수한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삯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일한 보수를 받고 함께 기뻐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이때에 오순절 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힘, 곧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성인들의 동역자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그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우물곁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거두어졌던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우물곁에 계신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 예수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었으며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말씀을 듣자 그들의 혼란은 깨끗이 가시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빛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짤막한 대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듣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교사의 말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동네로 초청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체류하셨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단순하심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무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낸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앎이라."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야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로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예언하셨다. 야곱을 통하여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일 것이 선언되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예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야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유대인들이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을 그릇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초림 시에 있을 것으로 돌렸던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경 외에는 모두 버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러한 모든 거짓된 해석들을 일소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후기의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롭게 섞였으며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백성들의 친절을 받아들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지붕 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손수 준비하고 차려 놓은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가장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낮은 담이 있어서 이것이 바깥뜰과 성전 건물의 다른 모든 부분을 구별하여 놓았다. 이 벽 위에는 여러 다른 언어로 유대인 외에는 이 경내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만일 이방인이 감히 구내에 들어간다면 그는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하여 그 형벌로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성전과 그 봉사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적인 동정의 끈으로 이방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당신의 하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신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완강한 고집의 감화를 받고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조국에 충성하려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르기를 거절할 수가 없었으므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르는 동안 그분께 충성하여 자신들의 편견을 억제하였지만 마음속은 불만이었다. 그들은 경멸과 증오심을 갖는 대신 긍휼과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에 느렸다. 그러나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교훈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되살아났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은 후에 그들은 이 멸시받는 외인들에

대한 구주의 표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중과 친절의 태도를 회고하였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에 부르심을 받아 갔을 때에 그는 세겜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이 직면해야 할 역경들을 내다보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늘의 교사에 대한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하였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을 때와 똑같은 사업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기피할 수 있을 것이나 출생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의 조건도 그분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 될지라도 각 영혼에게 네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네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복음의 초청을 선택된 소수에게,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 문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읽으시는 그분께 가납되는 예배를 계시하신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는 우물가의 여자에게 하신 것과 같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기 위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전도가 거의 열매를 내지 못했던 유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당신의 제자라고 고백하던 사람들까지라도 당신의 거룩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기진하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한 여자,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에게 말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회중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흔히 당신 주위에 모인 몇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행인들은 한사람씩 멈추어 서서 듣는 중에 무리들은 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교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람과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적은 청중에게도 큰 무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감화가 얼마나 멀리 미치게 될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그분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부락민들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그분의 행위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 갈릴리에서의 그분의 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오용과 제사장들의 탐욕과 거만을 한탄하였다. 그들은 관원들을 쫓아내신 이 사람이 고대하던 구원자이시기를 바랐다. 이제 그들의 가장 빛나는 기대를 확증하여 주는 듯이 보이는 소식이 이르렀다. 그 선지자가 친히 메시야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가나로 가시는 도중에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가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으며, 이 소식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음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가버나움에서는 이 소식이 왕을 섬기는 한 신하였던 유대 고관의 주목을 끌었다. 이 신하의 아들은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이가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고관은 자기가 몸소 이 사정을 아뢰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크신 의원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랐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보았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를 뚫고 구주 앞으로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분과 마주하여 자신의 용무를 말하고 자기 집에 함께 가시기를 구주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 그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신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신하가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불신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말씀이 위탁된 당신의 친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나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고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하였다. 이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를 바랐다.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 : 26)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 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 열띤 홍조가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연한 혈색으로 변하였다.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나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다. 그 아이에게 병의 흔적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불덩어리 같던 몸은 부드럽고 축축하게 되었으며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바로 정오에 그 아이의 열이 사라졌다. 가족은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다.

가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관은 예수님과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둘지 않았다. 그는 가버나움에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그가 아직도 자기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때 종들이 그들의 주인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불안을 덜어 주고 싶은 나머지 그를 맞으러 나온다.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몇 시에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는다. 그들이 대답한다. "어제 제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 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한다. 그는 아들을 죽은 아이가 살아 나온 것처럼 자기 품에 힘껏 안고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고관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이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가버나움에서 고관을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고통 받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가 수락되는 여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 고관은 그가 믿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엡 3 : 16, 1 : 19, 3 : 20).

21장 베데스다와 산헤드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분은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분은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여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는 38 년간을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 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꼭 혜택을 입어야 할 그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 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앞서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狂奔)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곤 하였다. 그 때 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그를 굽어보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 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 줄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 : 24)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엡 2 : 1)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는 덮고 까는 담요에 지나지 않는 그의 자리를 집어 들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자신의 구원자를 찾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군중 속에 묻혀 버리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의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엄격히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은 이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 관원들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그분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판단에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속죄제와 아울러 자신이 받은 큰 자비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경배자들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앞에 끌려나와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고소에 답변하시게 되었다. 만일 이 때에 유대나라가 독립국이었다면 이러한 고소는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를 로마의 법정에서는 중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던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도 그들의 감화보다 더 큰 감화를 백성들에게 끼치고 계셨다. 랍비들의 연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침에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신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그분의 말씀은 상한 심령에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서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 : 10)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모여들고 있었다. 무리들의 동정적인 마음들은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고루한 의식보다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만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감화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분을 산헤드린 앞에 고소하고 그분의 교훈을 공공연히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랍비의 요구를 비난하거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짐을 덜어 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모독죄뿐 아니라 대역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랍비들은 이런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혐의를 일으키기를 바랐다. 그들은 예수께서 확립된 관습을 전복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므로 완전히 로마에 예속시키기 위한 길을 예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랍비들이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성취시키려고 하던 계획들은 사실은 산헤드린 회의 외의 다른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신 그분을 반대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사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였다. 사단은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계략으로 이루어 보려고 결심하였다. 사단은 광야에서의 투쟁에서 물러서자마자 그와 동맹한 천사들과의 회의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둡게 할 계획을 완성했다. 사단은 종교계의 인간 대리자들에게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계획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여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는 중에 낙담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주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위엄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사 42 : 21, 4)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한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택하여 치료하는 일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이 원하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예수께서는 그 못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지를 통과해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禁令)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셨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날들 동안에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계획들을 수행하신다. 만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올바르다면,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이래로 모든 생물을 살리고 붙들기 위하여 일해 온 여호와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업을 좋다고 선언하고, 그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종결하고 우주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과정을 중지시키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빛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바다의 물결이 그 쉴 줄을 모르는 조수의 간만(干滿)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밀과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결실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워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을 매력 있게 만들어 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천연계는 변함이 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곤궁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구하기를 게을리 하는 자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다른 어떤 날에 경감될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위(無爲)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의 일에서 떠나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에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과 동일하게 신성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그들이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요 5 : 18)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하신 것이었다.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 속에 두신다고 해서 그처럼 격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분이 최고의 의미에서 이 주장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분이 그들의 양심에 깊이 확신시켜 주신 진리를 꺾을 만한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관습과 유전을 인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이런 논증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에서 끌어내신 논증과 비교할 때 빈약하고 맥없어 보였다. 랍비들이 빛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느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요점들은 회피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항하여 분노를 일으키려고 했다. 관원들의 분노에는 한도가 없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감정은 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을 친구로 인정하였으며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그 고통하는 자를 고치신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얼마 동안은 증오심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행하려고 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으며, 자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이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도해 줄 보다 고상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성이 충만했다. 재간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보여 준 모형을 따르지 않고는 방울, 석류, 장식, 술, 휘장 그리고 성소의 어떤 기명들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모세를 덮으신 것은 그가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理想)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출 34 : 6, 7)노라고 선언하셨을 때 산에서 그들에게 식양(式樣)이 보였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 : 8).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엡 2 : 22)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본을 좇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히 8 : 5; 벧전 2 : 21)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친다.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 수중에 쥐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을 지정해 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조화되어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가 되는 사단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권세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 : 1)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권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빌 3 : 10; 롬 8 : 2).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겸손한 나사렛 사람은 당신의 참되신 고결성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인류보다 뛰어난 자로 죄와 수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천사들의 존경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임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망연(茫然)해 진다.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자는 없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그와 같이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당신의 사명과 세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선언하는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요 온 지상의 심판자이심을 선언하셨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전달되었다. 그분은 성육신 후에도 구속주이셨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러하셨다. 죄가 생기자마자 구주가 계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므로, 각

사람은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을 주신 그분, 가장 부드러운 탄원으로 영혼을 돌보고 그를 죄에서 돌이켜 성결로 이끌려고 하신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의 대언자요 심판자이시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단은 기만으로 그의 사업을 유지시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궤계를 드러내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일해 오셨다. 기만자 사단을 대항하고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의 수중에서 포로된 자들을 빼앗아내려고 애쓰셨으며,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시험의 모든 찌끼를 맛보았으며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당당하게 대항하셨고, 자신의 피를 쏟아 구원하려고 한 영혼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심판하도록 지명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7). 그리고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 : 24)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명하신 후에 한층 더 넓은 시각에서 장래의 신비를 그들 앞에 공개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 : 28, 29).

이 장래의 생명에 대한 보증은 곧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해 왔었던 것으로서, 그들은 메시야께서 강림하실 때 받기를 바랐다. 무덤의 암흑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집은 맹목적이었다. 예수께서 랍비들의 유전을 깨뜨리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셨으므로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간, 장소, 기회, 의회에 편만한 강렬한 감정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산헤드린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인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국가의 최고 종교 당국자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회복자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의 주께서 지상의 법정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에 답변하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처럼 두려움 없이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분의 비판자들은 놀람과 분노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논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거나 당신의 사업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 자신의 교만과 오만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죄가 있다는 그들의 비난을 인정하거나 그들에게 심문을 받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들이 당신을 고소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 행위의 목적을 설명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관원들을 대적하여 피고인에서 고소자가 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강퍅함과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의 전체 제도는 하늘의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압축된 예언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행 10 : 43)였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여졌다. 모든 향연(香煙)에서 그분의 의가 올라갔다. 매 희년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렸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그분의 영광이 거하였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그분 자신을 거절하였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야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분이 기만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힘썼다. 그들이 일단 이 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단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북돋아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 마땅히 받아들였어야 할 그 말씀까지도 그분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으므로 구주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역사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수록 그들은 빛을 더욱 더 저항하기로 결심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바라셨던 것은 산헤드린의 영향도, 그들의 인정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아무런 영광도 받으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예수께서 만일 그것을 원하셨다면 천사들이 와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였을 것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유대의 관원들이 당신의 품성을 식별하고, 당신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셨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하고 그들 자신의 의지에 충동되어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영접을 받을 것이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고하기를 원하는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호소에는 응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짓 교사는 영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품고 있던 의견과 유전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자만심에 아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으로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갖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에 대하여 강퍅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들이 만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인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결심하였음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아무런 구실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인적인 증오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하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은 공포에 질렸으나 그분의 호소를 저항하였으며, 자신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전복시키고 백성들의 존경과 주의를 빼앗는 일에 뚜렷이 실패하였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았다. 관원들 자신도 예수께서 그들의 양심에 죄책을 깊이 느끼게 하셨을 때에는 깊은 가책을 느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그분을 더욱 혹독히 반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들은 전국에 기별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은 사기꾼이므로 배척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분을 감시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정탐꾼을 보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이제 분명히 십자가의 그늘 밑에 서 계셨다.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또한 고난에도 으뜸가는 사람이었다. 광야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무리에서 떠나서 요한은 이제 토굴 감방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헤롯 안디바의 성채 안에 있는 죄수가 되었다. 요한은 대부분의 봉사의 생애를 안디바가 지배하던 요단 동부 지역에서 보냈다. 헤롯 자신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였다. 방탕하던 왕은 회개하라는 부름을 듣고 떨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도 그를 신실하게 대하였다. 헤롯은 얼마 동안은 자기를 속박한 정욕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려고 미미하게나마 노력하였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를 자기의 올가미에 더욱 단단히 묶어 놓고 헤롯을 부추겨 요한을 투옥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수하였다.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위(無爲)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함없이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지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가 메시야라면 그분은 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의심하였다.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충실한 선구자가 자유와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기도록 허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 자신들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沮喪)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예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주 앞에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해 왔었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다. 그는 메시야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지적하였다.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왔다. 그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기를 기대하였다.

침례 요한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는 담대하게 헤롯왕을 대면하여 그의 죄를 솔직하게 책망하였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초개처럼 여긴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자기가 갇힌 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압제자의 교만심을 무너뜨리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과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 주위에 제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고치며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였다. 날마다 로마의 멍에가 이스라엘을 더욱 무겁게 누르고, 헤롯왕과 그의 사악한 간부(姦婦)가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며,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잡숫고 계셨다.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처럼 보였다.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별이 요시야와 에스라 시대에 율법을 낭독함으로 끼쳤던 것과 같은 결과를 끼칠 것이며(대하 34장; 느 8, 9장)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층(深層)적인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의 온 생애는 이 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되어 왔다. 그 일은 헛된 일이었던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에 대한 불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보고 염려하였다. 그들을 위한 자신의 사업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가? 그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한 결과로 이제 와서 활동을 못하게 끊어지는 것인가? 만일 약속된 구원자가 나타났고, 요한이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이제 예수께서 압제자의 권세를 타도하고 당신의 기별자를 해방시키지 않으실 것인가?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 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였다.

요한은 자신의 의심과 염려를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질문의 기별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자기 제자 중 두 명에게 위탁하였다. 구주와의 회견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게 되기를 바랐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였다. 제자들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라는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요 1 : 29, 27)고 선포한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하는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구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궁금히 여기며 서 있을 때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왔다.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길을 더듬으면서 왔으며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자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 예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오고 있었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한마디의 말씀, 그분의 손의 한 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었으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때에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이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그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동안에 그날은 저물어 갔다. 드디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가서 전하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눅 7 : 23). 그분의 신성의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 주는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까지 내려오신 그분의 겸비에서 나타났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전파하여"(사 61 : 1, 2)라는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메시야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그 같은 진리가 요한에게도 공개되었다. 그 때에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왕상 19 : 11, 12).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무력의 행사와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엎는 일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침례 요한 자신의 극기의 생애의 원칙은 메시야의 왕국의 원칙이었다. 요한은 이런 모든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원칙과 소망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가를 잘 알았다.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신시킨 증거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되지 않은 그런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은 구주의 전도가 그들에게서 단지 증오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선구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김없이 마셔야 했던 그 잔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그 사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힌 그 충성스러운 증인에게 구주께서는 동정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버리셨다거나 그의 믿음이 시련의 시기에 쓰러졌다고 사람들이 결론짓도록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요단 강변에 자라서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키가 큰 갈대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비평하며 판단하는 자로서 서 있었던 랍비들을 상징하기에 알맞았다. 그들은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들은 마음을 꿰뚫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으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감히 공공연히 그의 사업을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결코 이러한 비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든 군중들은 요한의 사업을 목격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요한이 죄를 두려움 없이 책망하던 말을 들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직을 맡은 사두개인들, 헤롯왕과 그의 조신, 방백과 병정들, 세리와 농부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은 똑같은 솔직성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는 결코 인간의 칭송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에 대한 열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원칙에 대한 충성심에는 바위처럼 견고하였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그 당시의 죄와 방종을 견책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며 그의 간소한 의복과 극기의 생애는 그의 사명의 성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부유한 옷차림과 이생의 사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몫이 아니라 그 권세와 부요함을 소유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곧 "왕궁"에 사는 자들의 몫이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의복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입은 옷 사이의 대조에 주의를 돌리기를 원하셨다. 이런 성직에 있는 자들은 사치한 두루마기와 값진 장식품으로 차려

입었다. 그들은 허식을 사랑하였으며 백성들을 현혹하여 더욱 큰 관심을 모으기를 바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마음의 순결함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칭찬 얻기를 더욱 갈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에 바쳐진 것임을 드러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사는 요한이 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선언할 때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눅 1 : 15)리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게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의는 그 누구도 그에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데 악용될 때에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산헤드린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 준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요 10 : 41).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른다든가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백성들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는 그토록 신실하게 그의 사명을 이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던 교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주님의 제자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요한은 메시야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분이 메시야가 되신다는 하늘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요한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빛도 예수님의 교훈과 모본에서 비쳐 나오는 것만큼 타락한 인류에게 그렇게 명백히 비쳐주었거나 비칠 빛은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예표된 희생 제물로 표상되어 희미하게 이해되어 왔을 뿐이었다. 심지어 요한까지도 구주로 말미암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 큰 빛에 수반되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췬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였던 많은 군중을 통하여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다. 그들은 요한의 투옥의 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의 흠없는 생애와 그를 옹호하는 대중의 강력한 여론 때문에 그를 해치기 위하여 가혹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를 풀어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가 무서워서 그의 목적을 지연시켰다. 헤로디아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요한을 죽이게 하는 일에 헤롯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술책으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왕의 생일에 국가의 관원들과 왕궁의 고관들에게 연회가 베풀어질 예정이었다. 이곳에서는 잔치와 술 취함이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헤롯이 경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좌우될지도 모를 것이었다.

그 성대한 날이 이르러서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헤로디아는 그의 딸을 연회석상에 보내어 손님들을 환대하는 춤을 추게 하였다. 살로메는 여자다움이 한창 꽃피던 때였으므로 그녀의 육욕적인 아름다움은 오만한 이 방탕자들의 관능을 사로잡고 말았다. 궁정의 숙녀들이 이런 연회석상에 나타나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으므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딸이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춤을 추었을 때에 그들은 헤롯에게 아첨하는 찬사를 보내기를 아끼지 않았다. 왕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나가 있었다.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성은 착란되었다. 그는 단지 쾌락의 연회장, 곧 술에 취한 손들과 연회 식탁과 거품이 이는 포도주와 번쩍이는 불빛과 그리고 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 젊은 여자만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전후의 생각 없이 자기 나라의 위인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줄 어떤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원하든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살로메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기 위하여 급히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다. 곧 침례 요한의 머리였다.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간절한 복수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그 요구를 제출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결심이 이기고야 말았다. 그 소녀는 돌아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막 6 : 25)라는 끔찍스러운 청원을 하였다.헤롯은 놀라서 당황하였다. 광적인 환락은 그치고 불길한 침묵이 환락의 장소에 내려앉았다. 왕은 요한의 목숨을 앗는다는 생각을 하고 공포에 질려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언약했으므로 변덕을 부리거나 경솔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손님들의 명예를 걸고 맹세는 하였지만 만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의 이행을 반대하는 말을 하였다면 그는 기꺼이 요한을 살려 주었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그 죄수를 위하여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요한의 전도를 듣기 위하여 먼 거리를 여행하였으므로 그가 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녀의 요구에 충격은 받았지만 간언(諫言)으로 중재하기에는 너무나 취하여 있었다. 하늘의 사자의 생명을 살리라는 음성은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국내의 신뢰할 만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마비되기까지 환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머리는 음악과 춤의 어지러운 장면 때문에 돌아버리고 양심은 잠자는 상태에 빠져 버렸다. 그들은 침묵함으로써 한 파렴치한 여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헤롯은 자신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못해 선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곧 요한의 머리가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던 입술은 영원히 봉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환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정의를 수호하는 자들이 되었어야 할 자들의 부절제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의 생명이 얼마나 자주 희생되어 왔던가! 취하게 하는 잔을 입술에 대는 자는 그가 취기(醉氣) 아래서 저지르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는 그의 감각을 마비시킴으로 냉정한 판단을 하거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료한 지각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는 사단이 죄 없는 자들을 압박하고 멸하는 일에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 준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20 : 1). 그같이 하여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사 59 : 14, 15). 동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법권을 가진 자들은 부절제함으로 범한 죄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모두 법의 준수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지적 활력과 높은 정의감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육체적·정신적·도덕적 능력들을 완전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침례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로 운반되었다. 그녀는 악마처럼 만족하게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헤롯의 양심도 더 이상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위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지은 죄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헤로디아의 이름은 악명 높고 증오스럽게 되는 한편 헤롯은 요한의 경고를 받을 때에

느낀 것보다도 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요한의 교훈이 끼친 감화는 잠잠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각 세대에 걸쳐서 미칠 것이었다. 헤롯의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범죄한 양심의 비난으로부터 평안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애썼다. 요한에 대한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요한의 자기 부정의 생애, 그 엄숙하고도 진지한 호소, 그의 권고 중에 나타난 건전한 판단력 등을 회상하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던가를 생각하자 헤롯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 국사(國事)에 종사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는 미소를 짓는 얼굴과 위엄 있는 태도를 나타냈지만 한편으로 늘 자기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공포에 눌린 채 괴로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헤롯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는 없다고 한 요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므로 연회실의 방탕함을 목격하고 요한을 참수(斬首) 하라는 명령을 듣고 헤로디아의 기뻐 날뜀과 그녀를 책망하던 자의 절단된 머리에 그녀가 나타낸 모욕을 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헤롯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듣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던 설교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그의 양심에 말하였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듣고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죽음에서 일으켜 더욱 위대한 능력으로 정죄하도록 그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요한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정죄의 선고를 내림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지나 않을까 하고 늘 두려워하였다. 헤롯은 죄의 길의 결과가 그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거두고 있었으니, 곧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신 28 : 65~67)고 하신 말씀이었다.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곧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이며 사단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아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이 정신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요한의 유년 시대와 청년 및 장년 시대는 확고부동함과 도덕적 능력으로 특징지어졌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마 3 : 3)는 그의 음성이 광야에 들리자 사단은 자기의 왕국의 안전을 인하여 두려워하였다. 죄의 죄악됨이 사람들을 무서워 떨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던 사단의 권세는 파괴되었다. 사단은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친 그의 생애에서 침례 요한을 돌이키게 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해 왔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정복하는 일에도 실패하였다. 사단은 광야의 시험에서 패배하였으므로 그의 분노는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요한을 침으로 그리스도를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결심했다. 사단은 자기가 범죄하도록 꾈 수 없었던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 주려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 내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감옥의 음울함을 밝게 하기 위하여 즐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사단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상 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은 받았지만 그 파괴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골 3 : 3)어진 저 생명은 어찌할 수 없었다. 사단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나 요한을 정복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죽음 그 자체는 다만 요한을 영원히 시험의 권세의 피안(彼岸)에 두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단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목격하고 있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支柱)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와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고 하신 보증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 : 29).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 : 14, 15). 메시야의 오심이 처음으로 반포된 곳은 유대 지방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선구자의 탄생이 그에게 예고되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다.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침례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에 관한 그의 증거를 들었다. 유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처음 제자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초기 봉사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나타난 그분의 신성의 번쩍임, 병 고침의 이적,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하늘의 진리의 교훈, 이 모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산헤드린 앞에서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 즉 당신께서 영존하시는 분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맨 먼저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산헤드린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 계속되는 각 세대에도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 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가불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불학무식하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그들은 구주의 사업을 위한 더욱 유망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더 열성 있고 신실하였으며 편벽의 지배를 덜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더 널리 열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은거나 격리를 위해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아니었다. 그 지방은 이 당시에 밀집된 인구를 가진 본거지였으며 유대의 어느 지방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고치면서 갈릴리를 여행하실 때에 도시와 촌락에서 군중들이 그분께로 모여들었다. 심지어 유대에서와 부근의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면 안 되셨다. 너무나 열광적이었으므로 로마 당국자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경계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세상을 위하여 이런 시기가 일찍이 있은 적이 없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왔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 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단 9 : 24)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언 상 하루는 1년을 나타낸다(민 14 : 34; 겔 4 : 6 참조). 칠십 이레, 곧 사백구십 일은 사백구십 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곧 육십구 이레, 사백팔십삼 년이라고 하였다(단 9 : 25).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휘하였다(스 6 : 14, 7 : 1, 9 참조). 이때부터 사백팔십삼 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야,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곧 이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 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레(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특별히 전하여질 것이었는데, 삼 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후 삼 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단 9 : 27)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 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한 이레 즉 7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그 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 쳤으며 박해로 말미암아 외국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행 8 : 4)하였고 잠시 후에는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부으심,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백성들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 24 : 15)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눅 24 : 27). 구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벧전 1 : 11)셨다.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래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계 1 : 3).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암 3 : 7; 신 29 : 29).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분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단 12 : 4, 10).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 : 31, 34, 36).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공생애의 해들,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해들을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살전 5 : 4~6).

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신 광명한 시기에 한 그림자가 가로놓였다. 곧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거절한 것이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들은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셨다.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래로 그분은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으나 그들은 그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흥미와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유아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의 낯익은 모습들과 얼굴들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경배자들 사이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향하였다.

그 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였다. 그는 메시야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다. 그는 메시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리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강림의 영광을 묘사하였다.

회당에 랍비가 참석해 있을 때에는 설교를 하도록 기대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라도 선지자의 글에서 읽을 구절을 줄 수 있었다.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예배 순서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 그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다(눅 4 : 16, 17). 그분이 읽은 성경 말씀은 메시야에 대하여 말씀한 것으로 이해되던 구절이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기"(눅 4 : 20~22)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분은 자신이 읽은 말씀을 설명하면서 메시야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분의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거룩한 감화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주께 대한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받았다.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의 행실이 너무도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는 시선에 의하여 검사 받는 것을 겁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그들은 물어보았다. 메시야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한 자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였다. 그들은 그분이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의 형제자매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이 유년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새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들의 장로에게서 들었던 그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목적의 아무런 암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이 의심에 문을 열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으로 인하여 훨씬 더 강퍅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 날에 어두워진 눈이 열리지 않고 노예의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 가운데 묶어 두려고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주어졌던 표적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냄으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사람 나아만 뿐이니라"(눅 4 : 23~27).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자들의 의문에 응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택하신 종들은 마음이 강퍅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용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고 이방 땅의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빛을 좇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더욱 큰 빛에 마음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간과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신이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이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 생활로써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회당에서 청중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그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다. 그들의 참된 상태를 칼처럼 잘라놓는 모든 말씀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처음에 그들을 고무시켰던 믿음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가난과 비천함에서 일어난 그분이 보통 인간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은 악의(惡意)를 낳았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였으며 그들은 분노하고 구주를 대적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신 구주에게서 돌아섰다. 이제 그들은 파괴자의 속성을 드러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청중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분기되어 그분의 말씀은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편견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다. 집회는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회당으로부터 밀어내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가 그분을 죽이려고 기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급히 끌고 가서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다. 어떤 자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회당에서 그분 곁에 있었던 하늘의 사자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원수들로부터 가로막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였다. 그와 같이 천사들은 롯을 보호하여 소돔 가운데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작은 산성에 있던 엘리사를 보호하였다. 주위의 언덕이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가득 찼을 때에 엘리사는 더 가까운 언덕 비탈이 하나님의 군대들, 곧 여호와의 종의 주위를 두른 불 말과 불 병거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와 같이 각 시대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가까이 있었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에서 보호받았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 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하실 때 메시야의 사업에 관한 마지막 설명을 생략하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사 61 : 2)한다는 구절을 생략하셨다. 이 말씀은 그 예언의 첫 부분이 진리인 것처럼 역시 진리인데 예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진리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은 곧 그분의 청중들이 논하기를 좋아했고 성취되기를 갈망하였던 말씀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범과가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이방인에게 곧잘 부인하였던 그 자비를 가장 깊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 그들 중에 서셨던 그 날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들일 그들의 기회였다. "인애를 기뻐하"(미 7 : 18)시는 그분은 그들의 죄가 초래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봉사가 끝날 무렵에 유년시절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배척당하신 이래로 그분의 전도와 이적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졌다. 이제 그분이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이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주위에는 어느 집에서도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 마을들을 지나며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생애의 모든 행위에서 나타난 자비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였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들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약속된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실제로 거절하셨던 그 쓰디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더 없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라고 묻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단지 몇 사람의 심령만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열려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마지못하여 그 곳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마음에 한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이런 모양으로 불신은 산헤드린과 국가를 지배하였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았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의 도성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한 보화를 공개해 주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던가! 그러나 그들의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늘의 진리가 그들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의(敎義)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해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하여 그들의 돈을 소비하였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들이 오류 가운데 있는지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았는가? 구약의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명백히 기술하였고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상고하고 그들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 보았더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눅 13 : 35)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야가 되시는 증거를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긍지를 가졌던 성을 파멸시킨 재앙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이 새 랍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에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 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착한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영적 자만에 가득 차 있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욕망은 성전 봉사에서까지도 드러났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으며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칭호가 불려지는 것에 만족을 느꼈다. 참된 경건이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과 의식을 더 엄하게 수호했다.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빈곤은 자신이 메시야라는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도 겸손하단 말인가? 만일 그가 군사력이 없는데도 만족한다면 그들의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열국들을 유대인의 도성에 예속시킬 수 있을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을까? 라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그분의 생애에 외형적인 영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분은 순결의 화신(化身)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흠 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그분의 책망할 것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다. 예수님의 신실성이 그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 그것은 외식적인 경건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그 죄악의 추악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빛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의를 돌려서 그들의 학식과 경건을 칭찬하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온 인류를 위한 자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묵인할 수 없는 종교의 한 측면을 제시하고 계셨다. 그들 자신의 모본과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배격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을 보았다. 이 사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최악의 감정을 격발시켰다. "유다 지파의 사자"(계 5 : 5)의 영도 하에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보다 높임을 받아 탁월하게 되리라는 자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책과 그분의 순결한 임재 앞에서 그들이 느꼈던 책망을 견디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야심찬 희망이 깨어지는 것을 더 잘 견뎌 낼 수 있었을 것이다.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다. 수확 없는 수고의 밤으로 피곤하여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물가로 오셨다. 그 새벽에 그분은 날마다 계속하여 당신을 따르던 군중에게서 떠나 잠시나마 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수효는 급속히 늘어나서 그분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셨다. 그 동안에 제자들은 육지에 이르렀다. 군중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서 좀 밀어서 띄워 놓도록 분부하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들릴 수 있으셨다. 그분은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대장께서 어부의 배에 앉아 쉴 줄 모르는 파도에 좌우로 흔들리면서, 물가로 밀려와서 귀를 기울이는 군중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셨다!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던 그분이 노천(露天)에서 평민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사물들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활동을 위하여 이보다 더 합당한 장소를 가져본 적이 없으셨다. 호수, 산악, 펼쳐진 들판, 땅을 두루 비추는 햇빛,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교훈을 예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남겨 줄 실물들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어느 교훈이라도 열매 없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별은 어떤 영혼에게는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갔다.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갔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상인과 랍비, 부자와 학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그들은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의 해변에 모인 군중 이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그분은 감옥, 재판소,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보셨다. 기쁨과 투쟁과 곤고의 갖가지 장면들이 그분 앞에 펼쳐졌다. 주위에 모여 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은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이요, 슬픔 중에서는 안위요,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 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말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에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든 고기를 거두어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된 것도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이었다. 그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을 쳐다보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단 10 : 8; 사 6 : 5).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되어 드러날 때에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위하심을 목도하도록 허용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주님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에 연합시키라고 요청하셨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는 보증을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롬 10 : 12; 눅 6 : 38).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엡 3 : 20, 2 : 7).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그분의 지도 아래서 일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보다 의미심장한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즉,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당신의 종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사업에 바쳐질 때에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된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그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잠재 능력들을 일깨워 주는 데는 솜씨 있는 접촉이 요구된다. 예수께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과 친히 사귈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 주셨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신 적은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고의 교육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활력을 나누어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한 모든 생명의 추진력을 흘러 보낸 그 거룩한 생명과 3년간 날마다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 모든 동료들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일 1 : 2; 요 1 : 16).

우리 주의 사도들 중에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노력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이 명백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계발시킨 품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위대한 사업 등은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 주실 것이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백 명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당신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발전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하게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 주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서 그분을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술과 학문에 있어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하다고 칭해지던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생애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이 미천한 제자들은 모든 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던 그분의 발아래 앉았다.

26장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여기저기 다니는 여행의 막간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으므로 그 곳은 "예수의 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있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게네사렛 평야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 변두리에 있었다. 호수의 깊은 침강(沈降)은 해안을 두른 그 평야에 남부의 온화한 기후를 조성시켜 준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곳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가 무성하였으며 과원과 포도원과 푸른 들판과 화려하게 만발한 꽃들이 모두 벼랑에서 분출되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었다. 호수의 기슭과 좀 떨어져 호수를 두른 언덕들에는 고을과 마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호수는 고기잡는 배들로 덮여 있었다. 어디에나 바쁘고 활동적인 생활의 움직임이 있었다.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왕래가 심한 여행의 통로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갔고 혹은 이 곳 저곳 여행하는 길에 쉼을 얻기 위하여 머무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곧 부자와 위인과,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함께 만날 수가 있으셨으며 그분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해질 것이었다. 그리하여 예언을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관심은 구주에게로 향하여지며 그분의 사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분의 사명이 발전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다. 온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구주께로 이끌면서 그분의 봉사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한 증거였다. 그리하여 그 신하와 그의 집안은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하였다. 그 선생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동네가 들먹거렸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안식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

구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눅 4 : 32; 막 7 : 29).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었다.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은 전혀 없었다.예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셨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 주었으므로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분의 청중들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토록 심오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분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왔던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분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특징이 그분의 가르침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대조가 되게 하였다.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한 가지 사물이나 혹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말하였다.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성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책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주제가 무엇이든지간에 그분의 말씀은 전혀 논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권세 있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하셨다. 그분은 이루어야 할 명백한 목적을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세계의 실재들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술을 깨뜨리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생의 사물들을 영원한 관심사들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제 위치에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애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늘과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의식하셨으면서도 인간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 됨을 인식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분의 자비의 기별들은 청중들에게 맞게끔 다양하였다. 그분은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사 50 : 4) 아셨다. 이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진 때문이었다. 그분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면하여 그들의 관심을 끄는 실례들을 제시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지셨다. 그분은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셨다. 그분의 실례들은 일상생활의 사물들에서 취하여졌으며, 비록 단순하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우리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등 이런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으며 청중들은 그 후 언제든지 천연계의 이런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예증들은 당신의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결코 아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그들의 공상이나 상상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영악한 창안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깊고 편견이 없는 사색가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며 그 교훈이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표현된 영적 진리에 경탄하였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에 매혹되었으며 무교육자들은 항상 유익을 얻었다. 그분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기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한 기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에 치유하는 접촉이 되어 임하였다. 성난 원수들의 소요 속에서도 그분은 화평의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분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분의 품성의 자애로움, 그 중에서도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었다.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는 큰 회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께로 왔던 고통 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였다. 하늘이 가까이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위로가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색을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 얼굴들은 그분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며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할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의 눈이 청중을 바라보다가 전에 보았던 얼굴들을 그 가운데서 알아내실 때에 그분의 용모는 기쁨으로 환하여졌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의 유망한 백성들을 보셨다. 명백하게 언급된 진리가 마음에 품은 어떤 우상과 접촉할 때에 그분은 안색이 냉정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보셨는데 이는 곧 그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화평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아프셨다.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우려고 오셨던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어떤 광인이 사람들 가운데서 뛰쳐나오면서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외쳤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혼란과 경악 속에 빠졌다.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으며, 그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단이 그의 희생자를 회당으로 인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귀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어두워졌으나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께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다. 그는 공포의 괴로움 가운데서 소리를 질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있다는 것을 얼마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힘쓸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셨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여기에서 패퇴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것이 될 것이었다.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을 파멸시켜 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구주께서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시므로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 평정(平靜)으로 돌아간 자유를 가지고 행복스럽게 서 있었다. 심지어 마귀까지 구주의 하늘의 능력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바로 조금 전까지 광증으로 번쩍거리던 눈이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로 넘쳐흘렀다. 백성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말을 다시 하게 되자 그들은 피차간에 "이는 어찜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막 1 : 27)라고 말하였다.

이 사람을 그의 친구들에게는 두려운 모습이 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괴로움이 되게 한 그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 자신의 생활 속에 있었다. 그는 죄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환락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의 가족에게 치욕을 안겨 주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천진한 어리석은 행위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그의 발은 급속히 타락의 길에 떨어졌다.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후회는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 그가 자신의 잃어버린 인격을 되찾기 위하여 재물과 향락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을 때에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원수의 땅에 두었으므로 사단이 그의 모든 능력들을 점령하여 버렸다. 시험하는 자는 그 사람을 많은 매력적인 것들로 유혹하였다. 그러나 일단 그 불행한 사람이 자신의 세력 아래 들어 왔을 때에 마귀는 그를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했고 성난 가운데 끔찍스러운 재액을 안겨 주었다. 악에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초기의 생애에 맛본 매혹적인 향락은 절망적인 흑암이나 영혼을 망치는 광증으로 끝을 맺게 된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는 그가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구주를 거절하는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아래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신 개인적인 봉사의 기간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오랫동안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하여 그들에게 죄와 고통을 가져오려고 힘써 왔으며,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씌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고 악의 임금은 분기하여 그의 나라의 지상권(地上權)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쟁하려고 하였다.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소집하여 모든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항하였다.

의와 죄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의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딤전 4 : 1)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 무력하였다. 그들은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戒律)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시지도 않은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신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무의미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잃고 악령이 그들의 뜻대로 활동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론(空論)은 강신술과 접신학 - 고대 이교주의의 현대화된 형태들 - 에 대한 길을 열어서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회에서까지 그 발판을 얻게 했다. 거짓 영의 매개에 지나지 않는 세력들이 복음 전파와 나란히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됨으로 계속해서 꾀임을 받아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

영혼의 방벽은 무너진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일단 거절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의 구렁에 빠질는지 알지 못한다. 은밀한 죄와 무서운 정욕이 가버나움의 광인과 같이 그를 무력한 포로로 사로잡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형편은 희망이 없지는 않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알리라"(요 8 : 32, 7 : 17)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오류의 함정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말없는 호소는 들렸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자들은 사단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 : 5)는 구주의 초대를 받고 있다. 흑암의 영들이 한때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영혼과 싸울 것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세한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대항할 것이다. 주께서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사 49 : 24, 25)고 말씀하신다.

회당에 있던 회중들이 놀라움으로 여전히 넋을 잃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시 쉬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질병을 꾸짖으시자 환자가 일어나서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은 가버나움 전역에 급속히 퍼졌다. 백성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안식일에는 감히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 들어왔다.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혹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허약하여 비틀거리면서 구주가 계신 곳으로 들어왔다.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은 오고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치료자가 내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실지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버나움은 이전에 이와 같은 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늘은 승리의 소리와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일깨워 주신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온 자들의 고통을 목격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靜寂)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그분은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그분의 활동에서 떠나도록 하려 할 때에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분은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며, 앓는 자들을 고치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무리들을 먹이면서 종일 수고하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분은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께 와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벌써 그분을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받으신 대접을 보고 심히 실망하였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그분의 고향사람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열광적인 기쁨으로 환영을 받았으므로 제자들의 희망은 다시 불타올랐다. 자유를 사랑하는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새 왕국의 지지자들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을 휩쓸던 흥분 가운데서 그분의 사명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당신에게 이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구주로서의 당신에게로 이끌려고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세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고 열망하는 동안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를 원하셨다. 세속적인 성공만으로는 그분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그분의 정신에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에는 자기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세상이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은 인자와는 관계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충성과 존경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탄생하기 여러 세기 전에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되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사 42 : 2~4)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철저한 의식 존중주의와 그들의 예배 및 자선 행위의 과시를 통하여 영예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앙을 토론의 주제로 삼음으로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열성을 입증하였다. 반대파들간의 논쟁은 언성이 높고 시간이 길었으며 거리에서 유식한 율법 박사들의 성난 논쟁의 소리를 듣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모든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분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셨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호 6 : 3)라고 기록되었다.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 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말 4 : 2) 가지고 떠오른다.

27장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것은 뿌리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홀을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로부터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러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을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에 결박된 자가 정결함을 입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을 위해 하시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의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 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자를 굽어보실까? 그분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분의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씀을 주워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 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마는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 가는 육체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기를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 : 3)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셨다.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은 불그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선언하기까지는

이런 예물은 가납될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의식을 이행하기를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단과 그 일의 결정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할 것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얼마나 긴급하게 분부하셨는지를 보여 준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증오한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적에 관한 어떤 소문도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 몸을 내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래야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회복된 문둥병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 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고려하신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늘 당신의 사업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한 소식이 사방에 알려진다면 이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다. 많은 문둥병자들이 건강의 선물을 그들 자신에게나 남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당신 주위에 이끌므로 그분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경고가 옳았음을 나타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의 치유를 목격했으므로 제사장들의 결정을 몹시 알고 싶어 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돌아왔을 때에 커다란 흥분이 있었다.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사실을 감추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문둥병자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표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선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단단히 결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은 건강의 은혜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다운 활력을 되찾은 것과

그의 가족과 사회로 복귀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을 온전케 해준 그 의원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구주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떼 지어 그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분간 당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하였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둥병자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도 복 주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한편 편견과 유전에 의해 갇힌바 된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기를 갈망하셨다. 그분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를 보냄으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 의도된 증언을 그들에게 주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반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분의 지시는 이러한 비난이 그릇됨을 증명하였다. 즐겨 깨닫기를 원하던 모든 자에게 그것은 충분한 증언이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파견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인류를 사랑하시며 율법을 존중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응대하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언하셨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시 109 : 5)도다. 산상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그분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마 5 : 44, 벧전 3 : 9) 비심으로써 그 원칙을 몸소 수범하셨다.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가 나은 것을 확인하였다. 공적으로 선언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현저한 증언이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 자신에 의하여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베푼 자에 대한 산 증인이었다. 그는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제사장들은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였으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구주의 생애 동안 그분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이 보였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행 6 : 7)였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케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케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독기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사 1 : 5, 6)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 : 2, 3)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어떤 치유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은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갈 1 : 4)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 : 14, 15).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 : 9).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또한 다른 귀중한 진리들을 예증하고 있다. 그 사실은 소망과 격려로 차 있으며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과 관련시켜 볼 때 그것은 또한 경고의 교훈을 담고 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 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버렸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 했다. 그러나 종종 그들 자신을 거룩하다고 높인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정죄한 고난자들보다 죄가 더 컸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 버렸다. 그 때에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케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쇠약해진 그의 육신은 이미 부패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집안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께 나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주위에 가까이 앉았고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다. 이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정탐꾼으로 온 자들이었다. 이 관리들 외에도 혼잡한 군중, 곧 열심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불신하는 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눅 1 : 53).

중풍병자를 멘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였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당신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다. 그분은 사정을 알아차리셨다. 그분은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셨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그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생명을 주는 구주의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그분이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랍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기 위해 궁금히 여기면서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들이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를 느꼈다.

이 고관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피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각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감정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람되다고 책잡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 2 : 7)고 하였다. 그분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자 그들은 그 시선 아래서 움츠려 물러섰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고 있던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여!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여!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동정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그 썩어 가는 육체에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을 요구하였다.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 시에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시 33 : 9) 서게 하신 그분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회복이 영적 치료에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다(요일 3 : 8; 요 1 : 4, 10 : 10; 고전 15 : 45).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 용서를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 103 : 3)신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그들끼리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혔고 패배감에 짓눌렸다. 그들은 이곳에서는 그들의 질투심이 군중들을 선동할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버렸던 그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이적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명을 주었으므로 잠시 동안

랍비들은 잊혀졌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돌렸던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태도의 은근한 위엄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더 완강하게 자신들을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새로운 술책을 꾸며내기 위하여 중풍병자가 그분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떠나갔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와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침상을 가뿐히 들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거의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는 가족들 앞에 충만한 성인의 활력을 가지고 섰다. 무기력하게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움직였다. 오그라들고 우중충한 색깔을 했던 살은 이제 생기 있고 혈색이 좋았다. 그는 든든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하였다.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고통 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그들의 어두웠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28장 레위 마태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레위 마태는 이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게네사렛에서 부름을 입은 네 제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세리 마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자기를 향하여 "나를 좇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이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 제자 중의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친구가 있었으나 구주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거나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할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예수께서 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눅 22 : 35).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마태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다. 한 종교 교사가 직접 수종하는 자로서 세리를 택한다는 것은 종교적·사회적 및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견에 호소함으로써 여론의 흐름이 예수를 반대하기를 원하였다. 세리들 간에는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의 교사에게로 이끌렸다.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다. 세리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보다 철두철미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잔치는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한 백성들 눈에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분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아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에 그분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까지 그분을 시인하지 않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회합들에서 구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았다.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이들 가운데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연회석상에서 예수님의 모본은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랍비들은 마태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 예수께서 참석하신 것을 알자 그분을 비난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편견을 일으킴으로 그들을 주님과 이간시키기를 원했다.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스도에게는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하며 그들이 상처를 받을 성싶은 곳에 화살을 겨누는 것이 랍비들의 책략이었다. 이것이 곧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은 이래로 일하여 온 방법이며, 불화와 이간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모두 사단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랍비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비난에 답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친히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므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의사로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높이 평가하였을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멸시하던 자들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었다. 세리들은 고집과 자부심이 덜했으므로 진리의 감화에는 마음 문이 더 열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말씀의 정신에는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바리새인들은 잠시 잠잠하였으나 그들의 적의는 더욱 굳어졌다. 그들은 다음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구주를 대적하게 하려고 애썼다. 이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절제 생활, 단순한 습관, 초라한 의복을 경멸하는 투로 지적하였고 그를 광신자라고 선언하였다. 요한이 그들의

위선을 규탄하였으므로 그들은 요한의 말을 반대하였고 백성들이 그를 반대하도록 부추기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영이 이 조롱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였으며 요한이 사귀에 들렸다고 말했다.

이제 예수께서 백성들과 섞여서 그들의 식탁에서 잡숫고 마시자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비난을 하는 자들 자신이 죄를 범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 의해 잘못 나타내지고 사단 자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신 것처럼 주님의 기별자들도 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기 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잡숫고 계신 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교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싹이 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산 씨임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비록 침례 요한의 전도를 반대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협력을 얻기를 원하여 요한의 제자들의 우정을 살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대의 유전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침례 요한의 준엄한 경건성과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는 예수의 행동을 대조시켰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때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이때는 그들이 요한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하기 이전이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은 감옥에 갇히고 그들은 슬픈 나날을 보냈다. 더구나 예수께서는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의 교훈을 불신하시는 듯이 보였다. 만일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크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무슨 근거가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랍비들이 규정한 많은 규칙들을 지켰으며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원하였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자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중이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럽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사명에 관하여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침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사용했던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설명하셨다.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요 3 : 29)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 예증을 드시면서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 하신 이 말들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이 일찍이 탐색하였던 어떤 신비보다도 더 깊은 신비를 그들에게 공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구주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구주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하늘의 주재 되신 분과 함께 걷고 말할 특권을 받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할 기회를 가졌던가! 지금은 그들이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러일으켰던 것은 빛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 광경 저편에는 그분의 눈만이 식별하신 무거운 그림자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 16 : 19, 20)고 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었다. 승천하신 후에는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했다. 사단이 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단은 제자들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 당했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흑암의 왕국의 지도자들과 투쟁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적합한 일이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사 58 : 4, 5).

참된 금식은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사 58 : 6, 10)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다. 그분의 전 생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거나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거나 간에 예수께서는 잃은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이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희생을 드리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계속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침례 요한의 기별은

유전과 미신으로 더불어 섞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요한의 헌신에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도 바리새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막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것과 새것 사이의 분리를 더욱 분명히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예증하셨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던 가죽 부대는 얼마 후에는 말라 부서지기 쉽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포도주를 넣는 데는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이 잘 아는 실례로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해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현명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기엔 너무 의로우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주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다른 무리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 예수께서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였다.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교훈의 계시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원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새 것으로 보였고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 제사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 : 17, 18)는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 : 4, 5)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 : 17).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29장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기원은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욥 38 : 7)던 때이다. 평화가 세상을 조용히 덮었으니 이는 땅이 하늘과 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 : 3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성된 사업을 보고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아담에게 휴식의 날로 주셨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성경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다"고 말한다. "만드신 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언한다고 하였다(창 2 : 3; 시 111 : 4; 롬 1 : 20).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 : 1~3).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래 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위안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 : 6).

다음의 노래를 읊게 한 것은 바로 이 사상이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시 92 : 4, 5).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천연계 가운데 쓰여진 기별이며 안식일은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지정되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성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사 40 : 18~29, 41 : 10, 45 : 22; 겔 20 : 20).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구현되어 있지만 이때에 처음으로 안식의 날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견책하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출 16 : 28)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안식일은 에덴에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명령과 같이 폐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마 5 : 18; 사 66 : 23).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출 20 : 8, 22 : 31).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區別)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 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랍비들이 무자비한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께서는 조금도 그들의 규례들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조차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똑바로 행하셨다.

어느 안식일,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돌아오면서 익어 가는 곡식밭을 통과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셨다. 밭 사이를 지날 때에 제자들은 밀 이삭을 모아서 손으로 비빈 후에 낟알을 먹기 시작하였다. 다른 날이었다면 이런 행위는 아무런 비평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곡식밭이나, 과원이나, 포도원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로 따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신 23 : 24, 25 참조). 그러나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곡식을 따 모으는 것은 일종의 추수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것은 일종의 타작이었다. 그러므로 랍비의 의견대로라면 그것은 이중의 범죄였다.

정탐꾼들은 즉시 예수께 불평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또한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을 변호하셨다. 이제 제자들이 공격을 받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행위의 실례를 구약에서 찾아 상기시키셨다.

유대의 교사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구주의 답변 속에는 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은근한 책망이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눅 6 : 3, 4; 막 2 : 27, 28; 마 12 : 5, 6).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곡식 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였다.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으뜸가는 일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곧 모든 문제와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논증을 끝마치셨다. 이 무한하신 심판관께서 제자들이 범하였다는 바로 그 율법에 호소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죄를 언도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꾸짖는 일로 이 문제를 종결짓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눈이 멀어서 안식일의 목적을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마 12 : 7)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무정한 많은 의식들은 항상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의 특징이 될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또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열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 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의 한 격언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대항하셨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막 3 : 4, 5).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마 12 : 10~12)고 대답하셨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난처한 처지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 두려워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었다. 한편 짐승은 구출해 주었는데 이는 버려둔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보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야수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시에 그의 소유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사 13 : 12)라고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모든 사람에게 인자한 행실로 표현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에 살의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무의미한 제한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일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정당화하셨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들은 실상 트집 잡던 유대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로써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노라"(요 15 : 10)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다. 구주나 당신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산 표본이셨다. 그분의 생애 가운데 율법의 거룩한 명령을 범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기회를 찾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 8 : 46)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구주께서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지하려고 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이 대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그러나 이 무한히 귀중한 보석이 제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 그 귀중한 빛은 오류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오류의 상황에서 벗어나 진리의 틀 속에 놓이기를 원하셨다. 오직 거룩하신 손만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오류와 관련됨으로써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진리를 둠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후 4 : 15; 고전 3 : 22, 23).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 일부를 이루는 십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신 6 : 24)니라.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 : 2~4)라는 기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사 56 : 6, 7)라고 선언하셨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안위로 차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요 1 : 3)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겔 20 : 12)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사 58 : 13, 14)고 말씀하신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 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 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한다.

30장 열둘을 세우심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러라."

열두 제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산상의 수훈(垂訓)이 주어진 곳은 산기슭의 우거진 나무 밑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들판과 언덕은 예수께서 즐겨 찾아가신 곳이었으며 그분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성전이나 회당에서보다 오히려 노천에서 주어졌다. 어떤 회당이라도 예수님을 따른 군중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예수께서 들과 숲에서 가르치기로 선택하신 것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경치를 좋아하셨다. 그분에게 조용한 장소들은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저녁 때 들판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삭에게, 벧엘의 언덕에 있던 야곱에게, 미디안 산중에 있던 모세에게, 그리고 양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150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매년 한 주일 동안을 집을 떠나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레 23 : 40) 만든 초막에 거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예수께서는 복잡한 도시에서 물러나 조용한 들과 산을 택하셨는데, 이런 장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극기의 공과와 더 잘 조화되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당신 주위에 사람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려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그분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령한 진리의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반복될 것이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거룩한 감화에 둘려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천연계의 사물은 우리 주님의 비유에 유의하게 하며 그분의 권면을 반복해 준다.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정신은 고상해지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첫 단계가 취해져야 하였다. 그들은 값비싼 성소를 소유하지 않았으나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에 열두 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열두 제자들은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훤히 아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구주께서는 그들을 불러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제자들은 얼마 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 왔다.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그분의 이적도 더 많이 목격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항상 함께 있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별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아이의 신뢰심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 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제자들이 나누어져 이룬 무리 중 한 무리의 선두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인 벳새다 태생이었다. 그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에 느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나다나엘에게 한 그의 선언은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지만 빌립에게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요 1 : 45)였다. 5천 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요 6 : 5, 7). 예수님은 슬펐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느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빌립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그는 그들을 구주께 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기 위하여 갔다.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몇 시간 전에 한 빌립의 말은 믿음을 꺾는 그런 것이었다. 도마가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라고 물었을 때에 구주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고 대답하셨다. 빌립에게서 불신의 대꾸가 나왔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 : 5~8).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다.

어린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재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로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좇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알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 : 19, 20)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야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합류함으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님에게 추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유다를 매우 냉담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고자 힘쓰시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이 유력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음으로 그분의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유다를 배격하셨더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선생의 지혜를 의심했을 것이다.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세속적인 생각을 중요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었다. 제자들이 가입시키기를 원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협력은 사업을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팔아넘길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가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혼들을 구주께로 이끄는 신령한 능력의 감화를 느꼈다.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한 유다가 빠져 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맺게 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므로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였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구주께서는 장차 당신을 팔 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던가!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중에 탐심을 뿌리째 없앨 자선의 원칙을 역설하셨다. 예수께서는 탐욕의 흉악한 특성을 유다 앞에 내보이셨다. 유다는 자신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된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에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한 행습을 계속 따랐다. 만일 유다가 신령한 중재(仲裁)와 봉사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산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계셨다. 그러나 교훈에 교훈이 주어졌지만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탐심을 날카로운 책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인내로 이 과실을 범하는 사람을 참으시는 한편 그의 마음을 펼쳐 놓은 책을 읽듯이 읽는다는 증거를 그에게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자극을 유다에게 주셨으므로 그는 하늘의 빛을 거절한 데 대해 핑계하지 못할 것이었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유다가 처음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귀중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이 되게 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분을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에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애의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 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하였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들을 조화되도록 이끌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마치고 그 작은 무리를 당신 주위에 가까이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들을 당신의 성업에 바치는 기도를 드리셨다. 이와 같이 하여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안수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그리스도의 종들과 기별자들 역시 그러하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 이외의, 그리고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대리자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된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고후 4 : 7)이라. 복음의 전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까닭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는 자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히 5 : 2) 있어야 한다.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31장 산상수훈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제자들만을 모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들만을 당신의 청중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무지와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군중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희의 어두워진 이해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그분 자신은 진리로서, 허리를 동이고 축복하기 위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고 서 계시면서 경고와 탄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려고 애쓰셨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으며 베뢰아, 데가볼리, 이두매에서, 또는 유대 남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기아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막 3 : 8; 눅 6 : 17~19).

좁은 해변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설 수조차 없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산기슭 쪽으로 되돌아가셨다. 큰 회중이 즐겁게 회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자 그분은 풀 위에 앉으셨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분의 본을 따랐다.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이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께로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들은 미구에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로 미루어 보아 그것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군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푸른 언덕에

앉아 하늘 교사의 말씀을 고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 대 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뀌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겉옷 한 벌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랐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구에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그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의 불행을 보았지만 그 비참한 실상을 그들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지는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함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 있는 샘이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 : 15).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분은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울해 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 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이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여매는 능력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강퍅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3 : 13, 12). 주께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61 : 3)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장(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이르러 온다.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 초조해 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항하거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겸비해야 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이 분명하지 않다. 그 길은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에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자비의 길이요 그 결국은 구원이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위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사 57 : 18; 렘 31 : 13)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 138 : 6)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무리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계 7 : 15)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 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손상을 입는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욕적인 부정(不淨)이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피하였던 의식상의 부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출 34 : 6)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에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 : 165)라고 말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사 55 : 13, 35 : 1)할 것이다.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모본과는 너무도 판이한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백성들은, 행복은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고 사람의 명성과 명예는 매우 탐낼 만한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이다. "랍비"라고 불리고 대중 앞에서 저희 선행을 자랑해 보임으로 슬기롭고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것이 행복의 극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모든 보수는 세상의 이득과 명예라고 언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에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잠잠하였다.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비범한 선생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신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희의 사명을 성취할 때에 중상과 고문과 투옥과 죽음을 당할 것을 잘 아셨다. 그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암흑을 쓸어버린다. 그리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욕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 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의 덕을 입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는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공언함으로 종교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세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으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신께서 율법의 요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탐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왜곡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말을 포착하기 위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 편견이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신앙과 제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동요시킬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 모두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교훈에 대한 신임을 폐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유대인을 묶어놓은 유전적인 요구의 벽을 부수려고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매우 존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제거하시는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된 중대한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경계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의 생활에 망라된 그 원칙에 대하여는 거의 무지했으므로 구주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렸다. 그분께서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쓸어버리실 때에 그들은 그분께서 진리 자체를 쓸어버리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율법을 경시하신다고 피차에 소곤거렸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논박하셨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옹호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분 자신의 순종의 생애로 율법의 교훈을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시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눅 2 : 14)라고 노래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던 율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됨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정결하게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필요를 사람에게 보여 줄 때에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대리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시 19 : 7)한다.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그분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 : 17).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당한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계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 주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 : 12)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최초로 반역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외형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분리시켰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함으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章)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神託)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敎義)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감화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형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 주며, 유대인들이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체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그분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범해진다고 선언하신다. 가장 작은 불의에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은 마음속에 먼저 존재한다. 마음에 증오심을 품는 자는 그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신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설을 내뱉었으며 그의 속성을 드러냄으로 사단을 기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유도해 온 그 무서운 행위를 하도록 해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 생애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경건성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봉기하고 그들의 부당 행위에 복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하한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이보다 한층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눅 6 : 35).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人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 : 16).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 문, 곧 영광의 문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롬 8 : 3).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 주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라. 금식할 때에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그분에게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 지워진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곧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갖는다. 그들은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가납되는 영예를 얻는다.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진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의 종교는 많은 다른 감화 속에 끼어 있는 한 가지 감화가 아니다. 그 감화는 으뜸가서 모든 다른 감화에 스며들어가 그것들을 지배해야 한다. 그 감화는 화판 위에 여기 저기 조금씩 색칠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되며, 천의 모든 실들이 짙고 퇴색함이 없는 색깔로 염색이 되기까지 화판을 물감에 담가 두는 것처럼, 그것은 전 생애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목적의 순결함과 견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는 조건이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는 그것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오류와 타협할 수 없다.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마지못해 충성하는 것은 오류의 흑암과 사단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정책과 정도(正道)를 벗어나지 않는 의의 원칙은 무지개의 색깔과 같이 피차 구별할 수 없게 섞이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굵고 명백한 선이 그어져 있다. 마치 대낮이 한밤중과 대조되는 것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단의 그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그분의 동역자들이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은 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쉬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꽃을 가리키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 : 26)고 말씀하셨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보여 주는 하늘의 관심의 척도는 그 대상의

규모의 순위에 비례한다. 작은 갈색 참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돌보심을 받는다. 땅을 덮은 들의 꽃이나 초목은 하늘 아버지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위대하신 대예술가께서 백합화에 마음을 두고 매우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나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과 영광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돌봐 주시겠는가.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일광이 꽃에 여러 가지 섬세한 빛깔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곧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한 페이지씩의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분의 마음에서 잊힌 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마 6 : 34).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 오늘을 위한 -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약 1 : 5).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통속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후 13 : 5; 고전 11 : 31).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 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 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우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마 7 : 24, 25).

32장 백부장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고쳐 주신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요 4 : 48)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야이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라고 말하였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당하고 잔학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게 친절하게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회복을 심히 갈망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은 크신 교사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로들의 대표단과 마주치셨다. 그들은 백부장의 소원에 대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예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그러나 군중에게 밀려서 천천히 걸어가셨다. 그분께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 먼저 당도하자 백부장은 자격지심에서

그분께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구주께서 여전히 오시므로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기별을 다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시므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 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하셨"(딛 3 : 5)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야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 제도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태생이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한층 더 제외된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야되심을 주장한 그분을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 : 9)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취할 사업에 대한 전조였다.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혼들을 당신의 나라로 모아들이기를 기쁨으로 고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를 깊은 슬픔을 가지고 묘사하셨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아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망을 안겨줄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방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빛이 비치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국가에 얼마나 많은가.

가버나움에서 팔십 리 이상 떨어진, 넓고 아름다운 에스드랠론 평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원(高原)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분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하였으며 내내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데려왔다. 그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알리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군중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는데, 산간 촌락의 성문 쪽으로 뻗은 바위가 많은 길을 그분을 따라서 올라간 무리는 즐겁고 기대에 찬 일행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갈 때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띈다.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선두로 운반되는 열린 관에는 시체가 있고 그 주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경의와 유가족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인 듯하다.

그것은 동정을 일으키는 광경이었다. 고인은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 외로운 애도자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위안인 아들을 뒤쫓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가 그분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울면서 무턱대고 따라올 때에 그분께서 과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곧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이었지만 이러한 자애로운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 시체를 만지시는 것도 그분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 관을 멘 자들이 조용히 섰고 애곡하는 자들의 통곡도 그쳤다. 그 두 무리들이 혹시나 하여 관 주위에 모여 섰다. 질병을 내쫓고 사귀를 정복하신 분께서 임석해 계셨다. 사망도 과연 그분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분명하고 위엄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청년은 눈을 떴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기쁜 포옹을 하였다.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것처럼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장례의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되돌아갔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온유한 마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 : 18)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능력은 세월의 추이로 말미암아 감소되지도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않았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신 구주이시다.

예수께서는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다만 이 지상에서의 생명을 누리도록 일으킴을 받은 것으로, 이생의 슬픔과 수고와 위험을 견뎌야 하며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계 1 : 18; 히 2 : 14, 15)라는 무한하신 소망의 기별로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엡 5:14)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골 1 : 13)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롬 8 : 11; 살전 4 : 16, 17).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명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분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그들이 들은 소식은 그들을 놀람과 경악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온 밤을 기도로 새우시며,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 잡수실 만한 시간도 얻지 못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분의 친구들은 그분께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그분의 이성이 안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분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그분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귀를 내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뿐 아니라 그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용하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그분을 설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협력하도록 마리아를 부추겼다.

예수께서 사귀 들어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두 번째로 행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마 9 : 34)는 비난을 되풀이한 것은 이 일이 있기 직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식별하지 못하고 그분을 반대하던 자들은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리새인들 자신이 저희가 그분에게 한 비난을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니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을 거절한 후에 그분을 메시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으므로 그들은 너무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기에 힘썼다. 그분의 능력과 긍휼하심의 증거는 그들을 격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구주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침묵시킬 수도 없었으나, 그분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따랐으므로 그들은 그 능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장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그들로 더불어 싸웠지만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퍅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에 밤이 찾아오기까지 암흑은 증가된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으며 그 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발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발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른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內在)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더하셨다. 영혼은 항거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등한히 함으로써 멸망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 당시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독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 사랑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퍅한 자는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와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는 기별을 전했다. 그분께서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으므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분과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었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그분과 더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과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그분과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는가!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 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예리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그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니 이는 그분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이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그분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이 저희의 권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분을 판단하고 만일 그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하늘의 권위를 주장하고 스스로 랍비들의 죄를 견책하는 자로 나서신 것은 분별없는 처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분께서 저희에게 그럴 만한 구실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짧은 측량줄로는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명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시험당하시는 그분을 동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거칠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말은 그들이 그분의 품성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신성이 인성과 혼합되었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한 증거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주 슬픔에 차 계신 것을 보았으나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그분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 받지 못하였다.

그분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그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그분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으므로, 그분의 영혼은 피로하고 피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들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이해로 너무 괴로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영혼은 쉼을 얻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분은 종종 홀로 되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당신께서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그들은 그분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데, 마치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이 있다. 가난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레

25 : 25, 47~49; 룻 2 : 20 참조).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신 그분께로 돌아갔다. 그분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사 43 : 1, 4)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34장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위의 말씀은 예수께서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하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그분께 나올 수 있다.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儀式的)인 참회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육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체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든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모두 쉼을 얻도록 초청하셨다. 그분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 : 6).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 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 147 : 4, 3)신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더욱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수록 그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분께 맡김으로써 더욱 복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분은 당신이 주는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가축은 일하도록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실례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메야 한다.

봉사를 위해 메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 강령은 인간 일꾼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좇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고결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의무를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친히 봉사의 멍에를 메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 : 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요 6 : 38)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힘이다. 그분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므로 후회의 짐을 더 떠 안는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근심은 맹목적이어서 장래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救贖)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분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해지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셨다.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 백배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데,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낮추도록 이끈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때에야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그분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성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심지(心志)를 더 거룩하게 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소에 멍에를 메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에게 복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쉼을 얻는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출 33 : 13, 14; 렘 6 : 16)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다시 그분은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사 48 : 18)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 26 : 3)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大名匠)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가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그분과 동행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7 : 15~17).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사(多事)한 날이었다.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 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집 주인의 비유로써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종일 가르치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밀려왔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악의에 찬 비평과 오전(誤傳)을 퍼뜨리며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그분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그분은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게네사렛 동부 해변은 호숫가 여기저기에 동네들이 있었으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쪽과 비교하면 적막한 지방이다. 그 곳에는 유대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갈릴리와는 별로 왕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한적함을 그 곳에서 얻으실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곳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그분께서는 군중을 떠나보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들만 떠난 것은 아니었다. 해변 가까이에는 다른 고기잡이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들은 여전히 그분을 보고 싶어 하며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삽시간에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놓여나셨다. 피곤과 시장기를 이기지 못한 예수께서는 뱃전에 누워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폭풍이 일었다.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포효(咆哮)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 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으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자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船上)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켜졌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귀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 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주린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었다.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외쳤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그분을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아를 잊은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자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같이 부르짖은 영혼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치며 번갯불은 그분의 얼굴을 환히 비춘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는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린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떠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슬픈 듯 이렇게 물으신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 4 : 40).

제자들에게 침묵이 흘렀다. 베드로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들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뒤쫓아 오던 배들도 제자들처럼 위기를 겪었다. 공포와 절망이 그 배에 탄 자들을 사로잡았으나 예수님의 명령으로 소란한 광경은 고요하게 되었다.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깝게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모두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 : 30)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아 의뢰의 절망에서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사 57 : 20, 21)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하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시 107 : 29, 30).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롬 5 : 1; 사 32 : 17).

이른 아침에 구주와 그분과 함께 한 동료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에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듯 바다와 땅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격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무덤 사이의 숨는 장소에서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결박에서 도망칠 때에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났으며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사로잡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제자들과 일행은 무서워 도망쳤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 위하여 돌아섰다. 그분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전에 사단을 대면하사 그를 정복하셨던 그분께서는 이 사귀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다.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파도더러 잔잔하라고 손짓하셨던 그 손을 드셨다. 그들은 더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그들은 격노하였으나 그분 앞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분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귀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발아래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사귀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하였다.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귀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접촉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저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도록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허리에 큰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사귀들은 이 돼지 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 떼를 엄습하였다. 돼지들은 미친 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달음질쳐서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

그 동안 이 사귀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해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비탈에서 돼지를 지키던 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의 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떠나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다. 이 두 사귀 들린 자들은 그 지방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떠한 행인에게도 마귀의 격노로써 대들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들을 완쾌시키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신이 생기고 공포가 일어났다. 이 외인을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했다가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재정적인 파탄을 염려하여 그분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넜던 자들은 전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 곧 태풍을 만나 위기에 빠진 일이며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졌던가를 다 얘기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말은 효과가 없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에게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이에 응하여 곧장 배에 오르사 맞은편을 향하여 떠나셨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은 그분을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인 그분을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시게 하였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그런 기회는 없다.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성령을 내쫓는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광인들의 생각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을 따르고 싶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생애를 괴롭혔고 폐인으로 만들었던 귀신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분 곁에 가까이 서서 발아래 무릎을 꿇고 저들을 곁에 있게 하여 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구주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의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큰 곤란에 부딪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지시한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순종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의 집안과 이웃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전파하며 마귀에게서 저들을 자유케 하신 사실을 말하였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일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그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요일 1 : 1~3)하노라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비록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저희가 선택한 흑암 가운데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에게 떠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되 저희가 듣기를 거절하지 않을 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다.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큰 깨우침을 주었고 그리스도께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분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그 곳에 머물러서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흑암의 임금의 매개물이었던 자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삼일 동안에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심지어 사귀의 능력까지도 우리 구주의 지배를 받았고 악의 활동은 선을 위해 역이용 당했다.

거라사에서 사귀 들린 자를 만난 일은 제자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사단이 온 인류를 끌어내리고자 애쓰는 그 타락의 깊이를 보여 주었고 또 그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여 주었다. 무덤에 살면서 사귀 들려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육욕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준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생의 각 분야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포악과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죽음의 휘장처럼 도덕적인 암흑이 사람이 사는 곳을 둘러싼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사단은 사람의 원수요 파괴자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친구요 구원자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 : 7)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살후 2 : 14; 롬 8 : 29)려 하신다.

그리하여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고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

36장 믿음으로 만짐

거라사에서 서쪽 해안에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려고 모여 있는 군중을 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그분께서는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다가 연회석에서 세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레위 마태의 집으로 향하셨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서 그분을 만났다.

이 유다 장로는 심히 슬퍼하며 예수께 나아와 발아래 엎드려 부르짖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즉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원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주를 따랐고 사람들도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뒤따랐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않았으나 군중이 사방에서 그분을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동료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하는 것이 조마조마했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그들이 아직도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이제 주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벌써 그 곳엔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공중에 사무쳤다. 무리가 모여 있는 것과 떠드는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들은 이 외인의 말에 성이 났다. 그들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집에서 떠나도록 요구하신 후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세 제자를 데리고 시체가 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십이 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치료하느라 의사에게 다 바쳤으나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 여자의 소망은 되살아났다. 그 여자는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분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그분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다. 따라오던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주위를 둘러보면서 혼잡한 군중 속에서도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이 물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분께서는 사방에서 난폭하게 떠밀리셨으므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꼭 알려고 하셨다. 숨길 수 없음을 알자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그분의 발아래 엎드렸다.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셨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주린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분을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에 치유(治癒)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43 : 12). 그분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살며 본질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는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 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분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시 91 : 6)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요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다. 그들의 심령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하여 믿음은 더욱더 많이 요구하고 받아들이도록 강화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 댄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은 흑암 중에서 빛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순례길에서 우리를 취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시 116 : 12~14)고 말하자.

37장 최초의 복음전도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실 때 그분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닥쳐오는 고생과 곤란을 예수와 함께 견뎠다. 그들은 그분의 설교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며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일상의 교훈에서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배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주위에 모인 매우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에 제자들은 시중을 들었으며, 그분의 분부를 행하고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힘썼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돈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주께로 데려오며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청중 가운데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교훈과 큰 인내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분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잡는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파견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종종 당황하였으나 그들은 저희의 어려움을 예수께 가져갔다. 그분께서는 유전과는 현저히 다른 성경의 진리를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하고 랍비들에 대한 두려움과 인습의 속박에서 그들을 매우 자유롭게 해주셨다. 구주의 생애의 모본은 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씨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였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감화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고 둘씩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칠십

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야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公生涯)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서 호위하였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섰다. 그분께서 지나가신 곳에서는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듣기 위하여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들은 최초의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발한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에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사 58 : 8)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개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칼이나 법정은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사랑의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퍅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선교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의원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그 즉시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저들의 감화를 상실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격발시킴으로써 그들은 활동 시초부터 그들을 낙담시켰을 논쟁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사도들까지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디 깨달았다. 그들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자들로 삼으실 계획이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모든 지방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진리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보낼 시기가 이르렀다. 제자들은 그분의 대표자로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었다. 이리하여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므로 구주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고 하여도 신자들이 교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장(旅裝)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호를 막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 교사들의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각처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와 또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눅 10 : 5)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었다.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기별의 엄숙함을 사람들에게 감명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분부하셨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그는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욱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그분의 예언적 눈은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종들이 당할 경험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만날 투쟁을 보여 주신다. 그분은 그 싸움의 성격과 계획을 보여 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할 위험과 필요한 극기를 그들 앞에 공개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원수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치러야 할 희생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엡 6 : 12)한 것이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나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加勢)된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그분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에는 듯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그분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을 격류처럼 쏟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용이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만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 때에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진리의 원수들과 논쟁하게 되는 자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단과 그 대리자들과도 맞설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 10 : 3)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비록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음성이 늑대의 부르짖는 소리를 발하지 않도록 심령에 감화를 끼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교훈하면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그들에게 계획을 공개하지 말 것이었다. 이는 사단의 대리자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고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자주 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산에서 보이신 모형 곧 하늘의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그분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의 의견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에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히 과오를 범할 것이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마 10 : 17, 18). 박해는 빛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끌려 나갈 것이다.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오전(誤傳)되어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에 관해서 거짓된 비난을 들어왔다. 때때로 그들이 진리의 참 성격을 배우는 유일한 수단은 저희의 신앙의 연고로 심문을 당하는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심문에 대답하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관들은 증언에 귀를 기울인다. 그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종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종의 마음을 조명(照明)하실 때 진리는 하늘의 능력과 고귀함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거룩한 모본이신 분의 온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대조점이 나타날 것이다. 구주께서는 관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될 때까지는 순교자의 용기와 꿋꿋함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 후에 구주의 허락은 성취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증언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행 4 : 13)았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행 6 : 15, 10)였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의 법정에서 심문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내가 처음 변명한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딤후 4 : 16, 17)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심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준비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들이 심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에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

복음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여 가장 친근한 혈육의 인연도 무시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라고 하신 다음 이렇게 부언하셨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막 13 : 13). 그러나 그분께서는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분께서도 친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한 선교지에서 다른 곳으로 자주 옮기셨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고,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 곳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눅 4 : 32)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늘의 임금이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니, 그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위험이 어떠하든지 저희 원칙을 공언하여야 한다. 그들은 감추는 일을 경멸히 여겨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공언하는 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배치되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은 결코 타협으로써 화평을 사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서 흘렀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절친한 친구셨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영혼 즉 그분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좇을 때에 잠잠히 계실 수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실되도록 힘쓰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을 때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화평의 일을 힘"(롬 14 : 19)쓸 것이다. 그러나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신령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거나 그분의 동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위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려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그분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 준다. 우리가 식별해 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그분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분은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

하늘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는 그로 구주께서 보호하시는 모든 대상을 증오하게 만든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애쓰며,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파괴하기를 좋아한다. 새들이 기쁜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보존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참새들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시인할 것이다.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않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그대를 보신다. 나는 하늘의 축복을 그대에게 전하여 주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바친 나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시인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분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疎遠)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은 고귀한 영예요 거룩한 위탁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푼 친절한 행위는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친절한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중 가장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포함시키신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소자 중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녀가 된 자들 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훈의 말씀을 이상과 같이 마치셨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눅 4 : 18, 19)시려고 나가신 것처럼 택함을 받은 열두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다.

38장 “와서 잠간 쉬어라”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 좋고 궂은 경험들, 곧 그들의 활동의 결과를 보았을 때의 기쁨과, 그들의 실패와 과오와 연약으로 인하여 맛본 슬픔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복음전도자로서 최초의 사업에서 과오를 범하였고,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솔직히 말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해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그 때에 그들이 있던 곳에서는 필요되는 한가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람들은 고침 받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에 열중하여 그리스도의 뒤를 좇아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에게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는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 들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회개했으며,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던 까닭이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투쟁의 시련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반대를 만났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그들끼리만 지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곤란을 여러 번 당하였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큰 용기를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심 없이 그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자신들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시내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에 예수께서는 다른 동네와 마을을 방문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분께서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은 이 때쯤이었다. 이 사건은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 종말을 당신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분께서 가시는 길 주위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분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그분의 발길을 따라다녔으며, 각 방면으로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가 증가하고 있었다. 사도들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헤롯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이 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헤롯은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헤롯은 자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유대 나라에 지워진 로마의 속박을 끊어버릴 목적으로 혁명이 비밀리에 진행되지나 않을까 하고 항상 두려워하였다.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과 폭동의 정신이 충만해 있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공적 활동이 오래 계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그분께는 당신의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혼잡한 군중에서 한 동안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

요한의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그의 참수당한 시체를 운반하여 장례를 치렀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가서 예수께 고하"였다. 이 제자들은 그분께서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예수께서 마태가 베푼 잔치에 세리들과 함께 앉으신 것을 보고 그분을 비난했다. 그분께서 침례 요한을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선생이 죽자 큰 슬픔을 위로받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지도를 받고자 그들은 예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했다. 그들에게도 또한 구주와 사귈 조용한 한때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베데스다 근방에는 봄의 신록이 우거진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 있었다. 그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유로운 휴식처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있으면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와 도시의 번잡과 소요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으며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한 방해 소리, 그리고 반박과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잠시 동안 저희의 주와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왔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되었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권세도 주셨지만 피곤한 종들에게 시골로 가서 쉬도록 지시하셨다. 그분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 : 38)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엡 4 : 11~13).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소수에게만 책임을 지우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말씀은 과거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오늘날의 교역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너희는 따로...와서 잠간 쉬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일지라도

쉴 새 없이 일과 흥분으로 인한 긴장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랍비들의 평가대로 하면 항상 부산하게 활동하는 것이 신앙의 요지였다. 그들은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자아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일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그분의 지상 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발견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막 1 : 35; 눅 5 : 15, 16, 6 : 12).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당신을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그분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쉼 없는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는 생애에서 돌아서야 하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나누어지심으로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데 이는 의무와 시련에 대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분은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히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분부하신다. 그분의 말씀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였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고한다면 우리는 실망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함과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기록된 그분은 훌륭한 모사(謀士)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9 : 6; 약 1 : 5)신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그 습관이나 행습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 : 10)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한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물러가 계셨으나 평화롭고 조용한, 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시간은 곧 깨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곳에 물러나 있다고 생각했으나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의 몇 사람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하여 뒤좇았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오천 명이나 모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도착하여 제자들과 따로 잠간 동안 시간을 보내셨다.

산기슭에서 그분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다. 그 때 그분의 마음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방해를 받아 휴식을 빼앗겼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였을 때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한적한 곳을 떠날 때 그분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발견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치유하는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의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거나 쉬지도 못하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기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었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분께 나아가 자신들을 위해서도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촉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돌아다보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 하여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오십 명씩 혹은 백 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졌으므로 앉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군중이 너무 많았으므로 피차에 짓밟힐 위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기 원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모두가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 간 이 단순한 식물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련하신 음식은 보잘것없는 식물이었다. 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왜곡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려진 진수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식습관과는 현저히 다르게 준비하신 쉼과 단순한 식물을 이 사람들이 즐겨 먹은 것만큼 즐겨 먹지는 못했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자연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더라면 인간 가족의 필요를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생겼을 것이다. 상상적인 결핍은 더욱 적을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기회는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연법칙에 반(反)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과잉이 되고 다른 한편은 결핍을 초래함으로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예수께서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푸신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오천 명을 먹이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천연계에서 휘장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산물을 생산하는 데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에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막 4 : 28)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이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로 땅의 추수 밭에 의지하여 먹고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곡식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의 활동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돌려지고 만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운 선물은 이기적인 사용을 위하여 악용되어 복 대신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변경시키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당신의 자비로운 은혜를 식별하고 당신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물을 통하여 당신을 깨달음으로 그 선물이 당신께서 의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이적이 행해진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무리들이 먹은 후에도 많은 식물이 남았다. 그러나 수하에 무한한 능력의 온갖 자원들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떡을 바구니 속에 넣으라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그 교훈은 이중(二重)적이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세의 이익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유익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라. 세상의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두어들이도록 하라. 영적 사물에도 그와 같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 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떡의 이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를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오천 명을 먹이실 때는 수중에 양식이라고는 없었다. 명백히 그분께서는 사용할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오천 명의 남자와 함께 광야에 계셨다. 그분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을 따라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초청이나 명령 없이 자청해서 온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 후이므로 배고픔과 기진함을 느낀 것을 아셨는데, 이는 그분께서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그들과 함께 한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을 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그 처지에 두셨고 그분께서는 그 곤핍을 구제할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다.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수단을 무시하고 그분이 주신 재능을 오용하면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분의 교훈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자아를 중심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자아는 하등의 명예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분부를 좇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사 58 : 7~10)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필요는 지대한대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하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작은 떡 조각을 취하셨다. 그 떡은 그분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작은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다. 양식은 그분의 손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이 작은 상점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들였으며,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한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때만 받을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그 진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그분께서 재정을 공급하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크신 일꾼을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의 책임을 기관에 미룰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數)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단순성과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와 닿을 때 그대의 대답이 불신의 반응이 되지 않게 하라.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구주의 분부를 들었을 때에 온갖 난관들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우리가 양식을 사러 마을에 나갈 것인가?" 하고 질문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생명의 떡에 굶주리고 있을 때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 와서 이들을 먹이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후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와 같이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둘려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 주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주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눅 6 : 38; 고후 9 : 6~11).

40장 호수의 밤

봄날 저녁 황혼에 사람들은 풀이 많은 평지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다. 그날 그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다. 그들이 목도한 병 고치는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리떡의 이적은 그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받았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그 날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다.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 그분은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수실 수 있다. 그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전 군대에 식량을 공급하실 수 있다. 그분은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리실 수 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그분을 당장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에게로 주의를 끌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나 관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시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분께서 결코 다윗의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함께 의논한 결과 그분을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는 데 동의한다. 제자들은 주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예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백성들로 저희 구원자를 높이도록 하라. 거만한 제사장과 관원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신 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라.

그들은 저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계획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시며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신다.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그분을 비난한다. 그분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당신이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 운동을 오랫동안 원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들은 새 선지자를 보기를 갈망하였다.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의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는 데 황금같이 귀한 기회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홀로 그 황량한 해변에 남겨 두고 저희만 떠나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에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엄으로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잠잠히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신다. 그분의 태도가 매우 단호하므로 그들은 감히 불순종하지 못한다. 찬송과 칭찬의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진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막 나서다가 그들의 발걸음은 멈춰지고 기쁘고 열성적인 표정이 그들의 용모에서 사라진다. 그 무리 가운데는 심지가 굳고 결심이 굳은 사람들도 있지만 왕다운 예수님의 태도와 몇 마디의 조용한 명령은 소동을 평정하고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 그들은 예수께 모든 지상의 권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한 마디의 질문도 없이 복종한다.

예수께서는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분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판단을 그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하실 기한이 거의 끝난 것과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을 아셨다.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 온 저희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목도할 것이었다. 사실 이것이 그분의 참된 대관식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격렬한 시험이 닥칠 것이었다. 지력을 깨우치고 이해력을 넓혀 주는 성령이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은 타락할 것이었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분은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즉시 출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이미 암흑이 드리운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그분을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그들이 더욱 강청하였다면 목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은 그분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분은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다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위험은 급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벳새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기로 예정한 지점까지는 해상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보통 일기라면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저희가 도착하려는 지점에서 자꾸만 멀리 떠밀려가고 있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이들은 노 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분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좇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희미한 빛이 물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모습을 비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우러 오신 그분을 원수로 생각한다. 공포가 그들을 억누른다. 쇳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노를 잡았던 손이 풀린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린다.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못 박힌듯 거품 이는 바다의 흰 물결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환상에 집중된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소리친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분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힌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그들이 이 기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마자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하였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소리지르기를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오라 하시"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 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바람은 몹시 사납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주님 사이로 직접 밀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난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진다. 그는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들어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예수께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 예수께서는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서 함께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고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 하였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 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곤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고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 43 : 1~3)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다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그분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그분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한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계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포의 밤은 가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하였다.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백성들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왔던 자에게 그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 : 20)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군중들은 그분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하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원근에 퍼져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벳새다로 모여 들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 왔다. 전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실어다 줄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그 동안 그분께서는 불과 하루만에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다. 그분께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막 6 : 55)왔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벳새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그분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그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들었다. 격노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여러 시간을 소용없이 노를 저었던 일, 물위를 걸어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여 겁내던 일, 그분의 안심시키는 말씀, 베드로의 모험과 그 결과,

태풍이 갑자기 잠잠해지던 일과 배가 뭍에 닿던 일 등이 궁금히 여기는 군중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분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한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슬픈 듯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분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분부하셨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주된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 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었다. 하늘의 값은 예수시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요 1 : 29)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야가 행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셨으나 그들의 이기적인 야심이 상상하던 그런 메시야의 사업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이셨으나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사십 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야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저희가 목격했던 이적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행하실 수 있으신 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분의 거절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당신의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불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이제 한 랍비는 반은 조롱조로 묻기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준 자로 공경함으로, 도구에는 찬양을 돌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다. 이제 동일한 정신으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을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참 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 : 33)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신 8 : 3; 렘 15 : 16)이라고 기록하였다.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율법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며 메시야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 먹여 주실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보리떡의 이적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이 교훈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힘쓰셨다. 그들이 만일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 전날에 기진하고 피곤하였던 큰 무리는 그분께서 주신 떡을 먹었던 것이다. 저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부언하셨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와 그들의 심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날마다 그들 앞에 나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다. 설혹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이미 보고 들은 것으로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더 기이한 이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완고한 심령에 호소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한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잃어버려질 수 없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장래의 생명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절망적인 슬픔으로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이 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미천한 가문(家門)에 대하여 경멸조로 언급함으로써 편견을 일으키고자 애썼다. 그들은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 갈릴리의 노동자요, 그분의 가족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모욕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 불학무식한 목수의 주장은 거들떠 볼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분께서 신비로운 탄생을 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분의 태생이 수상하다고 암시함으로써 그분의 탄생의 인간적 환경을 그분의 경력 가운데 한 오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탄생의 오묘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건너시던 것에 관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생애의 특징을 이룬 이적에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원하여 스스로 명성을 거절하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업적은 당신의 품성을 드러냈다. 거룩한 빛에 마음을 연 자는 모두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요 1 : 14)심을 깨달았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저희의 질문이 나타낸 것 이상으로 뿌리가 깊었다. 그 편견은 저희 마음의 강퍅함에 그 뿌리가 있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므로 그분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사 54 : 13)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였다는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보이셨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인류는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배운 자들은 그분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선포하신 그분을 인식할 것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교회에 이렇게 선언하셨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요일 5 : 11, 12)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 주셨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않음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혼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상징에 다른 상징을 첨가하신다. 그분께서는 오직 죽으심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다. 다음 말씀에서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지적하신다. 그분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라고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동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졌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이제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요 3 : 4)라고 물었을 때 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체하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나 그것을 기꺼이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이 그분께

대하여 편견을 품게 되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징적인 표현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히려 더 강력한 말로 그 진리를 반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들임으로써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징까지라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권을 나타낼 수 없다. 예수께서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분의 생애에는 아버지만 나타나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당신을 에워싼 악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세상 앞에 서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인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 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구주의 말씀 가운데서 문자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뜻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의문의 율법상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하고 저희끼리 이에 대해서 논란하였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의 눈에 보이던 임재가 거두어질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주님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마 4 : 4)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 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경고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약속,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 : 20).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할 때에 그것들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 말씀은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누어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품성을 아셨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여 그분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간직한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일 그들이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그들은 갈바리 사람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메시야가 아니며 또한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자아 희생의 생애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그분을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부언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셨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 : 14).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이 제자들은 한층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다. 그들은 선택하였다.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 다시는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마 3 : 12)리라.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의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칭찬과 아첨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 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에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한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한때는 그토록 흥미를 느꼈던 그분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원수들을 찾아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원수들의 정신과 사업에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그분의 진술을 위증(僞證)하며 그분의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든지 다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이런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크게 격발 되어 그분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야가 아니라고 고백하였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졌다. 갈릴리에서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은 일 년 전 유대 지방에서처럼 그분에 대한 반대로 돌아섰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극히 슬픈 일이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원치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였던 자들이 생명이요, 인류의 빛이신 당신에게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하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는 자각이 그분의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분을 슬픔의 사람이 되게 하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이런 사태들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떠나가는 자들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두 제자를 돌아보며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반문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가 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라고 부언하였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적인 사람들 가운데로 타락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이전 생애에서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야를 사모하여 왔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의 임재하심에서 떠나서 그분의 생명을 노리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표시하였다. 영혼의 닻을 잃는다는 생각만 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구주를 잃는다는 것은 캄캄하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 표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각 언행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저(基底)가 되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식별할 수는 있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품성을 시험하여 그 마음의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책망케 하는 자비를 깨달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시험이 올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다. 겟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등은 그들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이 될 것이었다. 시험을 미리 주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주님이 심판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 그분을 저들의 왕으로 환영하던 군중이 그분을 향하여 노성을 발하고 욕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에 이 이기주의자들은 예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장 애호하던

희망이 소멸됨으로써 슬퍼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가일층 쓰라리고 마음 아픈 슬픔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 어두운 시기에 그분에게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을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다.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신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고르게 하셨고, 그들로 가장 극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

42장 유전

유월절에 예수님을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이 모임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예수께 모"였다. 그분께서 저들에게 나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분께로 왔다. 얼마 동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방에서는 교권 제도의 권력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열두 제자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확장됨을 표시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랍비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투쟁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다시 한 번 격발시켰다. 그들이 그분의 공생애의 초기에 가버나움에 보냈던 정탐꾼들, 즉 예수께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뒤집어씌우려고 힘썼던 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랍비들은 저희 목적을 수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제 또 한 명의 대표가 그분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분에 대한 참소거리를 찾도록 보냄을 받았다.

항의의 근거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방해가 되었던 유전적인 교훈을 그분이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외양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으나 사실은 율법 그 자체보다 더 신성시 되었다. 유전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상충될 때 그들은 랍비의 교훈을 선택하였다. 결례 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가운데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로 간주되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씻음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그분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이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정탐꾼들은 이 소홀함을 비난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분께 나왔다. 그들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거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 3 : 36; 요일 2 : 3).

예수께서는 자신이나 제자들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비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의식을 고수하는 자들을 충동한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을 찾으러 나오기 직전에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한 실증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섯째 계명을 전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제쳐 놓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도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별(聖別)한 것 중의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기의 재산에 고르반이라는 말을 선언만 하면 평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는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봉헌(奉獻)을 구실로 부모를 마음대로 불공경하고 속였다.

예수께서는 말로나 행위로써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율법의 모든 명령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지상 생애를 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성전의 연보궤에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다. 그러나 제사장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자기 재산의 확대를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으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인습적인 편견과 랍비의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다.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그분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그분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은 분노로 충만하여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저들의 유전에 반대하며 율법의 옹호자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들이 지어낸 쓸데없는 규칙들과 현저히 대조되었다. 먼저는 군중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부정케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더욱 충분히 설명하셨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과 관계가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요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저희의 거짓 가르침이 폭로되자 정탐꾼들이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았으며 불만과 복수하겠다고 소곤거리는 말을 들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펼쳐진 책을 보듯이 읽으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자주 보여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분께 당신의 말씀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난 관원들을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그분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랍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관습과 유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에 대한 저희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전 12 : 14)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관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 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에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의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본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계 12 : 17)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시 119 : 99, 100).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습 혹은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내포된 경고에 유의하라.

43장 장벽이 무너짐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산골로 가셨다. 그분께서 서쪽을 바라보셨을 때 거기는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 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 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다.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복음의 사자들은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그분 앞에 놓인 사업은 저희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그분께서는 이 지방에 오면서 벳새다에서는 얻지 못했던 한적함을 찾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마 15 : 22)라고 하였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 곳에는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지방에도 퍼졌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였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그분께 고할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 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덜어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과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 원하셨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 놓은 분리의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으레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이 경멸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그 여인을 대할 때 보이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뒤이어 그 여인의 간원을 들어주심으로써 보이신 대로, 제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을 취급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도 명심하게 하실 작정이셨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분께서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은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그분께서 좋게 여기신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이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들은 나중에야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바 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였다.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아래 부복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는 듯이 대답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과는 다른 외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다.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못하겠는가!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셨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서 취급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해하신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셨다. 그 여인을 취급하신 일을 통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신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시각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 사귀가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신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신의 기도가 가납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그분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 후사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엡 3 : 6)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은 오묘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은 이 진리를 더디 배웠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보답하고 수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분은 유대인의 편협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이미 보여 주셨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한 이방인과 접촉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 여자가 그의 백성 중 어느 누구와도 달리 그분에게서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 주고자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나 값싸게 주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분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그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가나안 여인을 위하여 행한 이적에서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 중의 하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셨던 일이야말로 그들이 무시했던 일, 곧 그들에게 지정된 사업이었다. 이 행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자들 앞에 놓인 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눈을 더 활짝 열게 하였다. 그들은 유대 바깥에 있는 유용한 넓은 분야를 보았다. 그들은 보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슬픔을 지닌 영혼들을 보았다.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는 영혼들, 곧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한층 더 완강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가로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에 이 교훈과, 관습이나 민족성에 구애받지 않은 복음 사업을 뜻하는 그와 유사한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에게 저희의 사업을 지도하는 데 유력한 감화를 끼쳤다.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제자들과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함도 아니었다.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20 : 31)었다. 천팔백 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그릇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의 봉사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가운데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

계급 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그분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17 : 26, 27; 갈 3 : 28; 잠 22 : 2; 롬 10 : 11~13).

44장 참된 표적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막 7 : 31)니라.

거라사의 사귀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돼지 떼가 죽게 된 것에 놀라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께 강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뒤에 남기신 사자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례(常例)대로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는 자기가 고침 받은 이야기를 널리 공개하였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자 무리가 그분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아픈 자와 불구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아래 놓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들은 삼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삼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벳새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이실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늘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분께서 벳새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나왔다. 무리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거두었다. 이와 같이 하여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사천 명이 원기를 회복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런 후에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있는 마가단 지방에 가기 위하여 호수를 건너셨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그분의 마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확신 있는 신앙으로 힘을 얻으셨다. 데가볼리의 이방 사람들은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고 또한 당신의 자비의 사업의 대부분을 행하며 교훈을 주던 갈릴리 땅에 다시 내렸을 때에 경멸적인 불신을 만나셨다.

바리새인의 대표자들 중에는 제사장의 일단이요 회의론자이며 나라에서 귀족 계급인 부하고 오만한 사두개인들이 파견한 대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저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 세력의 호의를 사고 있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민중의 증오를 조장하여 정복자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다.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벧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휘관의 명령대로 태양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하늘을 살핌으로써 그들은 천기를 예고할 수 있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도 주어졌다.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모양과 음성 등은 그분을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시간을 "땅속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에 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들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마 12 : 40, 41)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었다. 그분은 메시야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한 무관심으로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고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이 그들에겐 질책이 되었다.

유대인들로 구주의 사업을 거절하도록 이끈 것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그분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 그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단의 꾐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요구를 채워 주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겔 36 : 26)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 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퍅하게 하였으므로 그분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사명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 : 31)고 말씀하셨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이 트집 잡는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다. 슬픔으로 침묵한 채 그들은 다시 호수를 건넜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이전에 떠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천 명을 먹이신 곳 부근의 벳새다로 방향을 돌렸다. 기슭에서 꽤 떨어져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대 이래로 유월절에는 저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가단에서 갑자기 떠나왔으므로 그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떡 한 조각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떡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처럼 오해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리하여 몇 마리의 생선과 보리떡 몇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께서는 그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겨우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만 언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책망하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한 논법이 제자들을 불신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경하게 여기도록 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저희 선생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들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그런 표적은 그분의 원수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비평자들의 위선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몇 달 후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같은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눅 12 : 1).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은 부지중에 모든 가루를 누룩의 성질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와 같이 마음속에 외식이 자리 잡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품성과 생애에 스며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너그럽게 바치는 체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의 등한을 숨기던 고르반의 행습을 책망하는 중에 그들의 외식에 대한 뚜렷한 실례를 일찍이 견책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 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의 진정한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지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처럼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듯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이와 같은 영향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 행습에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율법을 공공연히 공격하지 않고 율법의 원칙을 저해하는 위험한 이론을 내놓는다. 그들은 율법을 설명하되 그 능력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설명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교활한 악을 품게 될 위험이 있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분류하면서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논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종종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의 보화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고 그분의 자아 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묘를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 누룩을 그 작용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기적인 정신을 마음에 품으면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간의 교제가 자아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아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아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그분의 역사하심의 표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 : 28).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지(主旨)였다. 우리가 만일 그분을 따른다면 이것 역시 우리 생애의 주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일 2 : 6, 3)다.

45장 십자가의 예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분의 걸음이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분 앞에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났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전 여정을 보셨다. 그분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분께서 견뎌야 했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왕관과 왕복을 벗어 던지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시야에 공개되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바리에 이르는 길이 모두 그분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분은 당신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 : 7, 8)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다. 수고와 자아 희생으로 충만한 그분의 지상 생애는 이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격려를 받았다. 그분은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했고, 세상 죄가 그분의 흠 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그분에게 덮쳤지만, 그분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분의 공생애를 위하여 선택된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아야 하였다. 조만간 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위로함이 없이 그들을 세상에 직면하도록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당할지를 알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한 마을로 왔다.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 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와 더욱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봄으로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다. 이 지방에서 유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 더욱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힘쓰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홀로 떠나가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간 후에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을 즉시로 전달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야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이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하였다. 벳새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분이 메시야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야이심을 믿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야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왕의 영예가 주께 씌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오전(誤傳)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빛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후 4 : 18).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욥 11 : 8). 오직 양자의 영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 : 9, 10).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시 25 : 14)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증거였다(요 6 : 45). 아! 참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다.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에 대해 노래하였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고 기록하였다(신 32 : 4; 시 62 : 7; 사 28 : 16).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벧전 2 : 3~5)라고 말하였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 : 11).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함을 받으신 그분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었다.

육천 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육천 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신자들의 전체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분의 말씀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가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 있는 사명이다.

구주께서는 복음 사업을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 교회에 적용시키셨다. 그리고 대체로 같은 말씀을 신자들의 전체 대표자인 열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가 가장 크냐고 자주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 선생의 소원대로 복종하였을 것이요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를 공경하였을 것이다. 한 명을 지정하여 머리로 삼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마 23 : 8, 10)고 말씀하셨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만물을 구주의 발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전 11 : 3; 엡 1 : 22, 23).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책임 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언명하신다. 사람은 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임재이다. 가장 연약한 자도 이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약한 자임을 드러낼 것이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께서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렘 17 : 5; 신 32 : 4; 시 2 : 12).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 분부를 내리신 까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백성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메시야에 대하여 매우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표를 한다면 그분의 품성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들에게 참된 개념을 심어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주로서 날마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분은 메시야로서 당신에 대한 참된 개념을 그들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다. 예수께서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기셨을지라도 그들은 그분이 항상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니, 곧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이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증오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고 기만자로 정죄를 받아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실 등을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흑암의 세력의 때는 가까이 이르고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쟁투를 공개하셔야 하였다. 고난을 예상하였을 때 그분은 슬펐다.

이제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4, 15)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며 비록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봄으로 비록 그분의 주위 환경이 미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간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한 것에 동조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이다. 이제 장래를 숨긴 휘장이 걷혀져야 할 시기가 왔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분을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敎唆)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 보게 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께 유혹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굴욕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 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수고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 : 12, 13)고 기록하였다.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고 그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게 할 때에는 굴복 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화로 부요하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再現)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利己心)은 곧 죽음이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만 한정시킨다면 살 수 없다.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분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에 발산된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 세상 왕좌의 찬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할 당신의 영광스런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셨다. 그러고 나서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영광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은 빈곤과 치욕과 고난의 지상 생애, 곧 보다 가까운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메시야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불타오르는 기대를 버려야만 하는가? 그들의 주께서 다윗의 왕좌에 오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집도 없는 방랑자의 생애를 살다가 멸시와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저희 선생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압도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잔악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의심이 또한 저희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그 곳에서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우를 당하셔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친히 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저희가 방황하였던 것보다 더 캄캄한 흑암 중에 저들을 버리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 헤롯과 가야바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증오나 로마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었다.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에서 일하지 않으실까? 그분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분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튼튼하게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였다.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지게 될 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 않았으나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조로 함께 논의하였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환경이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운명을 반전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엿새 동안의 길고 우울한 날들을 비탄과 의혹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다.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곁으로 부르고,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적막한 산 중턱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구주와 제자들은 하루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데 보낸 데다가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더 피곤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신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의 허약한 신체에 생명의 맥박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도 또한 인성을 쓰셨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느라 피곤하셨다.

지는 햇빛은 아직도 산꼭대기에 머물러서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을 낙조의 금빛으로 물들인다. 그러나 이내 햇빛은 언덕과 골짜기에서 사라지며 태양은 서쪽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아 이 외로운 여행자들은 밤의 어둠 속에 휩싸인다. 구름이 모여서 짙어지는 주위의 어둠은 마치 저희의 슬픈 생애와 조화되는 것 같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산에서 기도하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한 그분은 자연과 친숙하게 지내며 그 고요를 즐기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그분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히 생각하였다.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더 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신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그분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으셔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신다. 그분의 엎드린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으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밤의 어둠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두르나 그분은 어둠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리하여 시간은 천천히 지나간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그분과 함께 기도하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 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셨으나, 지금도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다. 열두 제자들이 다 그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겟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제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 달라는 것과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봄으로 당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앎으로써 당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의 기도는 상달된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싼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엎드린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신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진다. 그분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진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산을 두루 비취는 찬란한 영광을 본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은 저희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한다. 그들은 그 놀라운 빛에 견딜 수 있게 되자 예수께서 홀로 계시지 않은 것을 안다.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과 친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늘 거민이 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모세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 중에 다른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귀한 특권을 받은 엘리야이다.

15세기 전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므리바에서 범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희 열조의 유업으로 인도해 들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신 3 : 25)라는 그의 애절한 탄원은 거절되었다.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 생애의 어둠을 비추던 희망은 거부되어야 하였다.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엡 3 : 20)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유혹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하였으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유 9).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고전 15 : 51~53)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히 9 : 28; 막 8 : 38).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야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한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부르짖는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분의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당신을 억누를 때에 그분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사랑과 정의(情誼) 속에서 거하였으나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출 32 : 32). 엘리야는 삼년 반의 기근 동안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다.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 선 모든 천사들 위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面談)의 요지였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자아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이 제자들은 믿는 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늘이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자 한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들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 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구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통찰을 얻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사물을 저희의 눈으로 보고 저희의 귀로 들었다. 그들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벧후 1 : 16)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진정한 메시야이심과 그분께서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여전히 산 위에서 벌어진 광경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에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인도하던 것보다 더 빛난 영광의 구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산을 진동하게 한 두려운 위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저들을 만지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친숙한 음성으로 저희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얼굴을 가린 채로 있었다. 감히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님하고만 산 위에 남아 있었다.

47장 봉사

온 밤을 산에서 새우고 해가 돋을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지로 내려왔다. 생각에 골똘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잠잠하였다. 베드로까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접촉하였던 곳,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거룩한 곳에서 즐거이 더 머무르고 싶었으나 벌써 원근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다.

산기슭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 곳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인도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디에 가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가까이 가서 세 제자에게 저희가 목도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라고 분부하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보인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에서 숙고할 것이요, 널리 공개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하면 조롱이나 쓸데없는 놀라움만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아홉 사도들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랑받은 세 제자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더뎠는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본 사실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장래에 관한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장래에 관한 계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들이 그 묵시의 성취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뛰어와 그분을 맞고 존경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러나 그분의 예리한 눈은 그들이 큰 곤경에 빠져 있음을 식별하셨다.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는 듯하였다. 바로 조금 전에 그들에게 실망과 수치를 안겨 주었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이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정한 영들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 이제 그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사귀는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편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그러나 갑자기 비난의 소리가 그쳤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으며 사람들은 급변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으러 돌아섰다.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밤의 형적이 구주와 그분의 동료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서기관들은 무서워 뒤로 물러선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구주께서는 마치 일어난 모든 일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논쟁하는 장소에 와서 서기관들을 응시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그토록 대담하고 도전적이던 음성이 이제는 잠잠해졌다. 온 회중 위에 침묵이 흘렸다. 이때에 고민에 찬 아버지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리면서 그가 곤난당한 일과 실망한 이야기를 모두 고하였다. 그는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을 잡는 서기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다.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꿰뚫어보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부르짖으셨다. 그런 후 비탄에 빠진 아버지에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아이를 데리고 왔다. 구주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자 악령은 고통스런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는 쓰러져 뒹굴고 거품을 내며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생명의 임금과 흑암의 권세의 임금이 다시 전장에서 대면하였다.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눅 4 : 18)시는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그의 지배 아래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에 몰려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이 앞으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무리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희망과 공포가 엇갈리는 고민 가운데서 지켜보았다. 예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였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아들이 낫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다.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다.

예수께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돌아보면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울부짖음과 고통스런 몸부림이 있다. 사귀는 나갈 때에 그의 피해자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으려는 듯이 보인다. 그 후 소년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데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다. "죽었다"고 무리들은 수군거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서, 심신이 완전히 건강해진 그를 아버지에게 인계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찬양한다.무리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워 하는 반면에 패배를 당하여 풀이 죽은 서기관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간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데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귀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 : 37)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발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그들은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사단의 모양으로 저하되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그 가장 괴롭고 몸서리나는 장면, 곧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의 경련으로 인해 이를 가는 마귀 들린 소년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의 기별자들과 얘기하고 빛나는 영광 중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탄하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며 서 계시던 이 능력 있는 구속주께서 땅 위에서 뒹굴고 있는 사단에게 희생된 자를 일으키려고 몸을 굽히고 그를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시켜서 그의 아버지와 가정에 돌려주신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서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 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아홉 제자들은 아직도 저들이 실패한 쓰라린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다시 한 번 그들하고만 계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아홉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투쟁에 들어갔다. 그와 같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한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입어야 한다. 믿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꾸준한 탄원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리가 들어 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여 튼튼한 성목으로 신속히 자라난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 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48장 “누가 가장 크냐”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던 잘 알려진 장소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임시로 당신의 처소가 될 집을 조용히 찾으셨다. 갈릴리에서 더 머무는 동안 그분의 목적은 무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당신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그분은 당신이 배반을 당해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이상하고 엄숙한 예고를 하셨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때와 같이 그분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않고 뒤쳐져 갔으므로 저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들이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들이 동네에 도착한 직후에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이 반세겔(성전세로 바치는 금액-난외 주석)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물었다. 이 세는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부금으로서 모든 유대인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세를 바치지 않겠다고 하면 성전에 대해서 불충실하다고 간주될 것이었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매우 무거운 죄로 평가하였다. 랍비들이 만든 법에 대한 구주의 태도와 인습의 옹호자들에 대한 솔직한 책망은 그분이 성전의 봉사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할 구실을 주었다. 이제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에 대해 의혹을 품게 할 기회를 포착했다. 세금 징수자가 쾌히 그 일에 협력하였다.

베드로는 세금 받는 자의 질문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에 관계되는 은근한 암시를 알아차렸다. 그는 선생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열성으로 주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성급하게 대답해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는 질문한

자의 목적을 일부밖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세를 내는 것을 면제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약간 있었다.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던 모세 당시의 레위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지 못했다.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신 10:9)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한 자로서 취급을 받았으며 그들에게는 성전의 유지를 위한 연세(年稅)가 요구되지 않았다. 선지자들도 역시 면제를 받았다. 랍비들은 예수님에게 세를 요구함으로써 선지자나 선생으로서의 그분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개 평범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분을 취급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세금을 거절하시면 성전에 대하여 불충(不忠)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요, 반면에 세를 바치시면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였으나 이제 그는 그의 선생의 신분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수금하는 자에게 대답함으로써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유포시키려고 애쓰는 그분에 대한 거짓된 관념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구주께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고 물으셨다. "타인에게니이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저희 왕을 위하여 납세(納稅)를 하지만 왕의 자녀들은 면세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분께 드리는 봉사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받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으셨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면세된다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만일 예수께서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치셨더라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며 그분의 신성도 부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장을 하게 된 바탕에 대해서는 부인하셨다. 세를 지불할 돈을 준비함으로써 그분은 당신의 신적인 신분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므로 그 나라의 일개 시민처럼 세를 낼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렸지만 이 이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분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선언된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 50:10~12)고 하신 그분이신 것이 분명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를 바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한편 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쟁론하지 않으셨는데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당신의 말씀을 곡해하여 당신께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께서는 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저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요구였지만 그 일을 행하셨다.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오래지 않아 성전 봉사에 대한 저희의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성 질서에 대해서 쓸데없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가능한 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피해야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논쟁을 피해야 한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가고 그리스도와 제자들만 집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예수님 앞이라는 사실과 또 그분의 질문은 그들이 노중에서 다투던 동안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였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잠잠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이기적인 야심은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사랑과는 심한 대조가 되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큰 시련에 대하여 대화하게 하려고 애쓰셨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려고 하셨던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면 그들은 쓰라린 고뇌와 절망을 면했을 것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사별과 낙담의 시기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토록 똑똑히 말하였는데도 그분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에게 구주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했다. 마침내 한 제자가 감히 예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고 여쭈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참된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왕국의 성질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얼마 동안은 저희의 분쟁을 진정시키실 수 있었을 것이나, 이것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깨달은 후였을지라도 우월성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그 다툼은 재연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에 재난이 닥쳐왔을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발로였다.

그분 앞에는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환상이 떠올랐다. 루시퍼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12, 14)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루시벨의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지정된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시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으니,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한 반면에 높임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빌 2 : 7, 8)셨다. 이제 십자가가 그분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수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러우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참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셨다.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움직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며,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열에 동참했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늘은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한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지성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것이다. 그는 사명을 위하여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많은 식자(識者)와 지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 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운 후 그 어린이를 당신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엄이나 외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님의 발아래서는 잊혀진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가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산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영광의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 18:35) 라고 다윗은 말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사 66:1, 2)리라. 구주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도 그 대답 중에 특별히 지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한 경우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그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일을 공개하였다. 그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고 말했다.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써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것을 위하여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희 잘못을 시인하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연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저희 수중에 사업이 맡겨졌을 때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원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시므로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님의 발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영혼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관용하는 사랑을 드러내실 통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들을 낙심시킴으로써 그분께서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셨던 빛줄기를 차단하지 말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셨던 사람에 대하여 한 제자가 보인 가혹함과 냉정함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던 자를 요한이 금한 것과 같은 행동 - 은 그 발을 돌이켜 원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 : 43~45)고 부언하셨다.

왜 어떤 말도 더 이상 강렬할 수 없는 이토록 중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까닭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저희의 동료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하늘의 엄위(嚴威)하신 분께서 보이신 것보다 관심을 덜 보여서야 되겠는가? 영혼마다 무한한 값을 치렀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그를 위한 구주의 사랑과 치욕과 고뇌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마 18:7)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 하면서 당신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신다. 따라서 무리들은 기만을 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된다.

죄에 빠지게 하여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무엇이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따를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품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몸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발이나 손을 절단하거나 심지어 눈을 빼버리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힘써야 할 것인가!

의문(儀文)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가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롬 12 : 1)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 때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防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마 5 : 13).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그런 생애는 세상에 구원하는 감화를 끼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활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에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들어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고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기신 모습을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고 십자가 상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 : 1).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뵈옵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많은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불안에 떠는 영혼들이 그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 그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며,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봉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협력할 것이다.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정복당하여 그대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의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유한 심령으로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갈 6:1)며 실수한 자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함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죄나 실수를 공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라. 종종 실수한 자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해 주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고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 그대의 모든 노력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되게 하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가장 세심한 감정이 필요하다. 갈바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이 경우에 그 효력을 낼 수 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우하되 그대가 성공한다면 그대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약 5:20)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때에는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의 연합된 감화는 먼저 간 사람의 감화로는 성공하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그 사건에 관계가 없으므로 더 공정하게 행동할 것이며 이 사실은 실수한 자에게 저희의 권면을 더욱 무게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도 그가 저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문제를 전체 신자 앞에 내 놓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교인들은 범죄자가 회복되도록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한다.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그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하실 것이다.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고 말한다. 이 합동 제의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킨 끈을 끊음으로써 교회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긴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의 이전 형제들은 그를 멸시하거나 등한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 중의 하나로서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라.

실수한 자를 취급하는 일에 대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레 19 : 17)고 한 교훈을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반복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의무, 곧 오류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던 죄악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범행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행한 자에게 친히 그 잘못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잘못을 우리들 사이에서 비평이나 비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혹 교회에 제출된 후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실수에 대한 정보는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다만 장애의 원인이 될 뿐이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은 해만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의 형제들의 비난에서라도 그를 보호할 것이며 믿지 않는 세상의 비난에서는 더욱 그리하실 것이다. 우리들 자신도 실수하므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필요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피차간에 대접하라고 그분께서는 분부하신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대는 하늘의 대사로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사업의 결과는 영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책임을 홀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교회의 회중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 곳에도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함으로 인성으로는 제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셨고,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동조하고 그를 위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임한다.

49장 초막절에서

유대인들은 일 년에 세 번씩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요청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께서 구름기둥에 싸여 이 모임에 관한 지시를 주셨다. 유대인의 유수(幽囚)기간에는 이 기념일들이 준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자 그 절기들은 또다시 준수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념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 민족적인 회집들을 제정하고 그 의미를 아는 그분은 그것들이 왜곡된 것을 목격하셨다.

초막절은 일 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에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서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분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햇빛과 비는 땅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골짜기와 평원에서는 수확물이 거두어졌다. 감람나무에서는 열매를 따고 귀한 기름은 병에 저장되었다. 종려나무는 그의 저장물을 산출하였고 자줏빛 포도송이들은 포도즙 틀에서 밟아 으깨어졌다. 명절은 칠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저희 가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백성들은 기쁨의 기념품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빈부 노유 모두 당신의 은택으로 연사(年事)에 축복하사 당신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신 분에게 감사의 헌물을 가져왔다. 눈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숲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도성은 아름다운 삼림의 모습을 띄었다.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명절 동안 오두막이나 또는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기거하였다. 이 초막들은 길거리나 성전 마당이나 지붕 위에 세워졌다. 예루살렘 주위의 언덕과 골짜기도 역시 이 잎이 무성한 초막으로 점철(點綴) 되어 있었으며 이 초막들은 백성들로 번잡해 보였다.

예배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 절기의 조금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 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일 길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06 : 1)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한편 호산나의 함성이 뒤섞인 모든 종류의 음악에 합창이 동반되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의 기쁨의 중심이었다. 이곳에서는 성대한 희생 의식이 있었다. 레위인의 합창대는 이 곳 성스러운 건물의 흰 대리석 계단 한쪽에 나란히 서서 찬송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많은 예배자들은 종려와 화석류 가지를 흔들면서 곡조를 높여 합창에 화답했으며 다시 아름다운 가락은 멀고 가까이에서 들리는 음성과 합하여 사방을 두른 언덕들을 찬송으로 가득 채웠다.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음악, 종려나무 가지의 물결, 기뻐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그 위로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성장(盛裝)한 제사장들 그리고 장엄한 예식들이 다 연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불러일으킨 예식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첫날 동이 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외치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그 때에 제사장은 기드론 시내의 흐르는 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발맞추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넓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시 122 : 2)라는 노래를 읊조렸다.

제사장은 물 항아리를 제사장의 뜰의 중앙에 위치한 제단에 두었다. 이곳에는 은대야 두 개가 있었으며 각각의 대야 곁에는 제사장이 서 있었다. 한 항아리의 물은 한쪽 대야에 부어지고 한 항아리의 포도즙은 다른 대야에 부어졌으며 물과 포도즙은 기드론 시내로 연결된 관을 통하여 사해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성수(聖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상징하였다. 그 때에 환호하는 노래가 다음과 같이 터져 나왔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 12 : 2, 3).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을 근심스럽게 주목하였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그분께서는 거족적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려고 그분은 갈릴리에서만 일하셨다. 그분이 큰 종교적 회집들을 명백히 경시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게 되자 백성들은 그분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였으며 그분의 제자들과 친척들까지도 그러하였다. 그분은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복 받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예배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그분께서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섞이며 랍비의 유전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관한 유전적 요구를 기탄없이 제쳐놓는 것 등 모든 사실은 그분을 종교 당국자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시게 하는 듯 했으며, 많은 의문을 일으켰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이 나라의 대인들과 학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틀림없으며 예수께서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섬으로 과오를 범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결백한 생애를 목격해 왔다. 그들은 그 제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분의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갈릴리에서 그분의 인기는 그들의 야심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분임을 바리새인들로 깨닫게 해 줄 권능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자랑스런 만족감을 가지고 그분이 만일 메시야라면, 그분이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들은 이 일이 아주 걱정스러워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가도록 재촉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이 일을 구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였다. "만일"이란 말이 의심과 불신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메시야란 것을 안다면 왜 이처럼 이상하게 사양하고 활동하시지 않는가? 만일 그분이 참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가졌다면 왜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지 않는가? 왜 갈릴리에서 그분에 관해 알려진 바와 같은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는 행하시지 않는가? 격리된 지방에 숨어서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을 위해서만 당신의 능한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수도(首都)로 가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였다. 이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현세의 보좌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의 감정은 상했다. 그들은 그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를 버릴 때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이 나타낸 바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분에게서 돌아섰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의 형제들은 권위 있는 어조로 그분이 가셔야 할 행로를 지시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자아를 부정하는 당신의 제자로 분류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분류하면서 그들의 비난을 그들에게 되돌리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사랑한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이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분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분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곳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곳이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들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실 것이었다. 그분의 사업에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분의 사업이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전해졌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달 동안 명절 때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리라는 희망으로 장막절 축제(祝祭)에 나왔다. 명절이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관하여 물었다. 바리새인과 관원들까지도 그분을 정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들은 "그가 어디 있느뇨"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사람도 그분을 메시야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분에 관하여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로 옹호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는 조용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 그분은 각처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여행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하셨다. 만약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어떤 여행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성안에 들어갈 때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되고 그분을 지지하는 대중의 시위는 관원들로 하여금 그분을 적대시하게 했을 것이다. 그분이 홀로 여행하기를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당신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그분은 성전 마당의 대중 앞에 나타나셨다. 그분께서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과 관원들의 권세 앞에 자신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시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돌았다. 그분이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모든 사람의 음성은 잠잠해졌다. 당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갈급하는 세도 있는 원수들 앞에서 취하신 위엄 있고 용기 있는 그분의 태도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운데 서서 전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미래의 생애의 전경이 그분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들은 다시 한 번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눅 4 : 32)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예증들을 사용하여 그분께서는 청중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하여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경고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 만일 그분께서 저들을 그와 같은 행위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동족에게 거절되고 살해당하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언에 관한 그분의 지식에 놀라서 서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물었다. 랍비들의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격 있는 종교적 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모두 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로 간주되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그들의 성경 지식에 놀랐다. 실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는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이셨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높은 종류의 지혜를 받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은 넋을 잃고 있었다. 그분에 대하여 가장 격분한 자들까지도 그분을 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모든 관심사는 잊혀졌다. 그분께서는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날 아침 백성들은 지루한 축제 절기에 지쳐 있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성대한 의식과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였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 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다. 이 반석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분은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따로 세워 침을 당케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않게 하옵소서"(요 4 : 15)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 진 자를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돌연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에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계 22:17; 요 4:14).

50장 함정 가운데서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언제나 정탐꾼들이 그림자처럼 그분을 따라 다녔다. 날마다 그분을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음모들이 시도되었다. 제사장과 율법사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으로 그분을 제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었다. 저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 갈릴리에서 온 선생을 천대하고자 하였다. 그분께서 절기에 참석하신 첫날에 율법사들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고 힐문하였다. 그들은 관심을 그분으로부터 그의 가르칠 수 있는 그분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관록과 권위에 관심이 돌려지기를 바랐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 : 16, 17)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 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지금 그분은 참 선생과 기만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한 시금석을 주셨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요 7 : 18).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한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그 본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 그분이 가지신 권위의 증거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랍비들에게 보여 주셨다.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심을 본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해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수호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율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빠른 섬광처럼 이 말씀은 랍비들에게 그들이 뛰어 들어가려던 멸망의 구덩이를 나타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무한한 능력자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 계획은 은폐되어야 했다.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외쳤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은 악령에 의해 교사(敎唆)된 것이라고 교묘하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묘한 말에 유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계속하여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신 일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일치하며 유대인들 자신의 율법 해석으로도 정당한 일임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마다 팔 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다. 정한 날이 안식일이어도 예식을 행하여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얼마나 더 일치되는 일인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경고하셨다. 관원들은 잠잠하였으나 많은 백성들은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부르짖었다.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들이 그분에게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사단은 곧 의심을 불어넣었다. 메시야와 그분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나 얼마 후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메시야는 인성과는 생래적(生來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야의 영광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념이 나사렛 예수님에게는 들어맞지 않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암시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디임을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애하였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청중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 달 전에 산헤드린 앞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의 반복이었다. 그때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제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고 그들에게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였다.

백성들 중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고 말하였다. 사건의 추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동정의 표시를 간파하였다.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그분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감히 그분을 잡을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홀로 계실 때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분은 곧 그들의 조소와 증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피난처를 발견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올라가 다시 천사들의 숭배를 받으실 것이며 그분을 살해한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랍비들은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트집쟁이들은 그들의 조롱하는 말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묘사하고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분께서는 하루 종일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팔을 펴셨으며, 여전히 그분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롬 10 : 20, 21).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이 선생들은 메시야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는 예언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힘 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사 24 : 23; 시 72 : 8). 그러고는 이곳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다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한다.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내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짓는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다면 그들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한다.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照明)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 : 17).

절기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하속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제사장과 당국자들은 분노하여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었다. 하속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강퍅했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녹아버렸다. 그분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분에게서 어떤 일을 책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파송된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황홀감에 빠진 사람들처럼 서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즉 신성의 영광으로 넘치는 인성을 보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돌아온 그들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에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도 처음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같은 확신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으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생각이 힘있게 그들에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짓눌려버렸다. 이제 그들은 율법을 집행하는 관리들까지도 그 미운 갈릴리 사람의 영향을 받은 데 분노하여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라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효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란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부를 등한히 여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에 대한 반증은 아니다.

다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만일 그분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더 내버려둔다면 그분은 기성 지도자들에게서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므로 제일 안전한 방책은 지체 없이 그분을 침묵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의논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그들의 의논은 갑자기 저지되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였다. 회중 가운데 침묵이 흘렀다. 니고데모의 말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정죄할 수 없었다. 거만한 관원들이 정의를 위하여 담대히 말한 그를 바라보고 침묵을 지킨 것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에 감화를 받고 그를 변호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신랄하게 비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 항의로 회의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관원들은 듣는 일이 없이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다. 당분간 모든 일은 좌절되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었다. 도시의 흥분과 혼란, 열망하는 군중들과 반역적인 랍비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그분은 성전으로 돌아가셨다. 주위에 백성들이 모여들자 그분은 앉아서 가르치셨다.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일곱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끌고 그분에게 나왔으므로 가르치시던 일은 곧 중단되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떠밀어 보낸 후 존경하는 척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분을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분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신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 로마인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 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신께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분은 잘 알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킨 채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분의 지체와 명백한 무관심에 참을 수 없게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며 앞으로 나왔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옴으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일어나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기록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았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버렸다.

예수께서는 일어나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녀는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 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아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을 용서하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분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곁길로 나아간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 신속해야 한다.

51장 “생명의 빛”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분은 초막절 예식과 특별히 관련된 성전 마당에 계셨다.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 주는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당은 큰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악기 소리와 레위인들의 찬송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었다.

예루살렘을 밝게 비추는 일로써, 백성들은 당신의 빛을 이스라엘에 비추러 오실 메시야의 강림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장면이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성전의 밝게 빛나는 등불들이 저희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 그러나 상징은 불완전하였다. 예수께서 손수 하늘에 두신 저 큰 빛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대한 보다 참된 상징이었다. 아침이었다. 해는 막 감람산 위로 떠올라 햇빛이 대리석 궁전에 눈부시게 비치고 성전 벽의 금을 비추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것을 들은 사람 중의 하나로 말미암아 오랜 후에 장엄한 인용절로 다시 반향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취되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요 1 : 4, 5, 9).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랜 후에 베드로 역시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상징을 상기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벧후 1 : 19).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태초에 창조력을 지닌 말씀에 의하여 어둠 속에서 빛이 비췄다. 빛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싸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다. 시내산에서는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다. 빛은 성막 안에 있는 시은소 위에

머물렀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에 빛이 충만하였다. 천사들이 양 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가져왔을 때에 빛은 베들레헴 언덕들을 비추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과 또한 온 인류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고후 4 : 6)게 하신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분은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만 그 빛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햇빛이 세상의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는 일찍이 위대한 교사들, 곧 높은 지능과 굉장한 연구를 한 사람들, 말로써 사람의 사상을 자극하고 광대한 지식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 민족의 지도자요 보호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으신 한 분이 계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 : 12, 18). 우리는 인간의 기록이 시작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위대한 교사들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그들보다도 먼저 있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 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 교육"이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골 2 : 3; 요 1 : 4)고 하신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야라고 선언하셨다. 연로한 시므온은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던 성전에서 그분에 대하여 "이방을 비취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 2 : 32)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 : 6). 이 예언은 일반적으로 메시야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그분이 바로 약속된 분이시라는 그분의 주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바리새인과 관원들에게 이 주장은 오만하고 참람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들은 용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듯이 "네가 누구냐"고 힐문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고 열중했다. 그분의 풍채와 사업이 백성의 기대에 매우 어긋났으므로 교활한 원수들이 믿고 있었듯이 그분이 직접 자신이 메시야라고 선언한다면 그분은 사기꾼으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네가 누구냐"란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셨다(요 8 : 25).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되었던 것이 그분의 성품에도 나타났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진리의 화신이었다. 그분은 계속해서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야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 됨을 보이셨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에게 이끌렸으며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 민족이 오랫동안 타국의 멍에를 멘 것을 무시하고 분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악의 종이요 생각이 복수심으로 기울어진 이 사람들을 보고 슬프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 : 2).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속에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크게 느껴 우리 밖에 있는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사람의 자아 곧 사람의 참 영광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약 2 : 12).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다. 예수께서는, 이 주장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입증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분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음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같은 정신을 소유하며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그와의 영적 연결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자손이 아니었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교계를 소란스럽게 해온 사도적 계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써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만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계승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에 달려 있다.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생애, 그들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과 신조, 이것이 사도직을 계승한 참된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은 조롱하는 어조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대답하였다. 암암리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형편을 가리킨 이 말은 그분을 믿기 시작한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혹평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비열한 암시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 : 44, 45)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실이 그분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였다. 진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진리는 오류의 거짓을 폭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행습을 정죄했다. 그러므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분의 원수들은 삼 년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면서 그분의 품성 가운데서 어떤 오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사단과 모든 악의 연합군은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귀신들까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막 1 : 24)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대로 생애하셨다. 그분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악마들 앞에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다면 참람된 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별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언제나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문 나는 어떤 점들을 찾아내어 공론을 벌이고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상적으로 독립되고 지적으로 예리하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기원이 하늘에 있으며 영원을 포괄하는 진리들을 옳게 평가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의의 큰 산 앞에서 그들의 정신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막대기와 짚들을 모으는 일에 분주하여 편협하고 세속적인 본성, 즉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을 신속히 상실해 가고 있는 마음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 그 마음이 거룩한 접촉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고 품성을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위치 사이의 대조를 날카롭게 묘사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이 희생은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에서 예증되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가서...번제로

드리라"(창 22 : 2)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 제단에 놓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제단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 : 12).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인간이 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異像)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때까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더욱 경이로운 희생을 하고 계심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졌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미 6 : 6, 7).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 : 8)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데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이교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 전혀 가납될 수 없었다. 어떤 아버지도 속죄 제물로 자녀를 드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세상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구주의 희생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토록 반갑지 않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아무런 깊은 의미를 심어 주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서 새로운 트집거리를 보았을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께서 미치광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조소하는 태도로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박하였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고 품위 있는 어조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I AM)"고 대답하셨다.

큰 군중들 가운데 침묵이 감돌았다. 갈릴리 출신의 이 랍비가, 영원한 존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자존자(自存者),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분,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미 5 : 2)인 분으로 선언하셨다.

다시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참람된 자라고 소리쳤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 주장에 격동하여 전에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고, 몇 달 후에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요 10 : 33)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렇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랍비 편에 서서 그분께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 : 5).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사 53 : 4, 3)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훈을 주셨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념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호기심으로 당신에게 던진 질문에 흔히 대답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해 주셨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바리새인들도 병이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없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 이적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눈멀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밝아져, 그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연달아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다른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그가 "내가 그로다" 말함으로 그 의문은 해결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낫게 되었는지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에 그들은 소경되었던 자를 바리새인의 공회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 사람은 어떻게 시력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해 다시금 질문을 받았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니 따라서 메시야가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신 분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아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 매우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적에 대한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죄인이라는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말하였다.

다시 랍비들은 소경되었던 자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고 물었다.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남아 있는 한 가지 희망은 그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성실한 체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고 물었다.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삼십 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기게 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었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다. 그의 아들을 위해 행해진 위대한 일은 부모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라고 대답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빠진 궁지와 그들의 질문과 선입견, 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않는 일들이 대중, 특별히 평민들의 눈을 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빈번히 거리에서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사업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품은 의심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과연 그런 사기꾼을 통해 그처럼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었다. 양편의 언쟁은 매우 치열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거리낌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 그들은 또다시 아래와 같은 말로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소경되었던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에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감화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깊어져 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이 위선자들은 그가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그가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도우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묻는 자들에게 통렬한 견책이 되는 말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해설자요 국가의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셨으나 분명히 그들은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물론이요 그분의 신분과 주장도 알지 못하였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라고 그 사람은 말하였다.

그 사람은 심문자들을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하였다.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넋을 잃고 놀라서 침묵을 지켰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와 접촉함으로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듯이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 주위에 흩어진 예복을 거두고 발의 먼지를 털며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그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출교시켰다. 예수께서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들으셨다. 그래서 얼마 후 소경되었던 자를 보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셨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회 앞에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그의 부모를 보았으며 랍비들의 찌푸린 얼굴도 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미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으나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구주의 질문에 소경되었던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묻는 말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 그 광경은 당신의 말씀과 사업의 결과에 항상 나타난 대조점을 예수님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그분이 막 행하신 기적은 바로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거였다. 강림하신 구주를 본 백성들은 세상이 일찍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의 더욱 충만한 나타남으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완전히 나타났다. 그러나 바로 이 계시 가운데서 심판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소경에게 육체적·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처하게 하였다. 그분의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물었다.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52장 거룩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예수께서는 저들이 잘 아는 연상(聯想)의 통로를 따라 그의 청중들의 마음에 접근할 방법을 찾으셨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감화를 차고 신선한 물에 비유하셨으며 당신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요, 자연과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제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청중들에게 이보다 더 잘 알려진 장면은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제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목자 하나하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무력하고 의존하는 양무리 가운데서 자신들을 볼 것이었다.

이 상징을 선지자 이사야는 위로하는 말 가운데서 메시야의 사명에 적용시켰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 : 9~11).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 : 1)라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평안히 거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겔 34 : 23, 16, 25, 28).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의 품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품성을 대조해 보이셨다. 바리새인들은 양 우리에서 바로 한 마리를 몰아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목자가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한 영혼을 잘라버렸다. 이 일로써 그들은 저들에게 위임된 일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양무리의 목자로서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들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고, 자신을 주의 양무리의 참된 관리인으로 가리키셨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또 다른 표상으로 말씀하셨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이 그 의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셨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시다.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표상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상징 가운데 예표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 : 29)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 왔다.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획득하여 그분의 양 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바람으로 사람들은 의식들과 제도들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혔다. 영감의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겔 34 : 4).

각 시대를 통하여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학설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왔다. 모든 이교 국가에는 사람들의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만을 주신 분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며 그리스도 외의 다른 구속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위대한 교사들과 종교 제도가 있어 왔다. 그들의 사업 경향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도 빼앗는다. 수백만의 인간들이 노예적인 공포심과 무관심에 속박된 채 거짓 종교 아래 묶여 있으며, 내세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기쁨도 포부도 없는 짐 나르는 짐승처럼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분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계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에게서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도요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리스도는 문이요 목자이시다. 그분은 혼자 힘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양의 목자가 되셨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게 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인데, 동방에서 목자들은 그들의 양무리를 끈기 있게 끊임없이 돌본다. 지금처럼 옛날에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밖에서는 거의 안전하지 않았다. 배회하는 변경 부족들에서 나온 약탈자들과 맹수들은 바위틈에 숨어서 양무리를 약탈하려고 기다렸다. 목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그가 돌보는 양무리를 보호하였다. 하란 지방의 목초지에서 라반의 양떼를 돌본 야곱은 자신의 끈기 있는 노력을 묘사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 31 : 40)라고 말하였다. 소년 다윗이 혼자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 그들의 이빨에서 도적맞은 양들을 구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친 계곡을 지나 강변의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고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에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가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양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다 안다. 양마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양무리를 아신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겔 34 : 31; 사 43 : 1, 49 : 16).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때때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분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 가기를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누가 당신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온다.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는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한다.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당신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라고

선언하신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당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시 77 : 20; 렘 31 : 3; 호 11 : 4).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분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 가서 몸소 행로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신다. 하늘에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그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해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분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그분께서 친히 지셨다.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우주의 보좌에 좌정해 계시지만 그분은 자비심 많은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다.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다. 오늘도 못 박히신 손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 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계 1 : 18).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54 : 10).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요 10 : 14, 15)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슥 13 : 7)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즉 그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분이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독자여,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예수께서는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된, 온 세상에 흩어진 영혼들을 생각하셨다. 그분의 목장의 양으로 모아들이고자 한 자들이 이리들 가운데 흩어졌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 : 16)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그대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내 생명을 드려 너희의 빚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됨으로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그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기 위해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의 저주를 견디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 : 4~6).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봉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흥분을 일으키거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기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열광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백성들의 경의를 사양하고 이곳저곳으로 빨리 왕래하셨다. 그분께서는 여러 차례 아무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말도록 명령하셨다.

초막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행은 신속하고도 비밀리에 행해졌다. 그분의 형제들이 자신을 메시야로서 공적으로 나타내도록 강권하였을 때에 그분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요 7 : 6)고 대답하셨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성에 들어가셨으며 대중의 존경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여행은 그렇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악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셨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순회로를 따라 여행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전에 결코 하신 적이 없던 일이다. 그분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실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셨는데, 이 희생에 백성들의 관심이 돌려져야 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요 3 : 14)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준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에게, 초막절에 자신을 백성들에게 공공연하게 나타내도록 권유하게 된 것은 메시야의 사업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신적 품성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었다. 이제 이와 똑같은 정신으로 제자들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제자들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이 그분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적개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 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기꺼이 권유하였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르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고민과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사단은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었다. 왜 이제 그분은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그분의 주위에는 생명의 양식에 굶주리는 영혼들이 있었다. 사방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춘의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왜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의 넓은 분야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어둠과 슬픔에 싸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주 약하고 이해력이 매우 둔하고 행동하는 데 그처럼 느린 제자들에게 추수를 맡기는가? 겨우 요람기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왜 죽음에 직면하려고 하는가? 광야에서 유혹하던 원수는 지금 무섭고도 교활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세력은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분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분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 : 49)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에서 마리아가, 그분께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였을 때에 그분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요 2 : 4)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에게 절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그분의 발걸음은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이제 그분께서는 생명을 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극히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만약 그분께서 그리심산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을 즐겁게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문간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셨으며, 당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장 풍성한 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후의에 대하여 더 귀중한 은혜로 보답하셨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 곳에 간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 주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자 몹시 분노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그분을 무례하게 취급하자 분노로 가득 찼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그분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도 그분을 존경하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행한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하여 현저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들이 그분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는 백성들의 말을 그분께 보고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께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했으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며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좇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말을 듣고 슬픔에 잠기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으며,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분의 다음과 같은 책망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간이 국한문 성서 눅 9 : 55, 56 난외 참조). 그런 후 그분은 다른 촌으로 가셨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보여 주신다. 곧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분께서는 영혼 속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막 10 : 1)셨다.그리스도께서는 수개월에 걸친 마지막 봉사의 상당 부분을 유대로부터 "멀리 요단 편에 있는" 베뢰아 지방에서 보내셨다. 이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초기 봉사에서처럼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으며, 그분이 이전에 가르치신 많은 교훈들이 반복되었다.

그분께서는 열두 사람을 보낸 것처럼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눅 10 : 1)셨다. 이 제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 위하여 얼마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다. 열두 제자들이 처음으로 독립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그분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직접 개인적인 교훈을 받았다. 이제 이 큰 무리 역시 개별적인 사명을 띠고 나아갈 것이었다. 칠십 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열두 제자에게 주셨던 것과 같으나 이방이나 사마리아의 도성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 칠십 인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인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칠십 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먼저 사마리아의 도시들을 방문하였다.

구주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일과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일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열 사람 중에서 유독 감사에 넘치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일 등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깊은 일이었다. 이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분께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더불어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성취시키도록 준비시켰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았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말씀과 그분이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분을 거칠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저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심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주의 사신들을 환영했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사 42 : 3; 마 12 : 21).

칠십 인을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울분이 그 동기가 되거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기별이나 그분의 사신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 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었다. 주님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에 그분은 그처럼 많은 봉사의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 마을들을 회상하셨다. 마음 깊이 슬퍼하는 어조로 그분께서는 큰소리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분주한 마을들에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이 값없이 제공되었다. 생명의 왕께서 날마다 그들 가운데 출입하셨다. 선지자와 왕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발아래 모인 회중에게 비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매우 신중한 체하면서 랍비들은, 이 새로운 선생이 가르치는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 까닭은 그분의 이론과 행습들이 조상들의 가르침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려고 진리를 거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사단은 빛이 어둠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 : 20)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원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 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칠십 인들도 사도들처럼 저희의 사명의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일이 끝나자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 과거와 미래의 광경이 예수님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분께서는 하늘 처소에서 처음으로 쫓겨 내려오는 루시벨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가 온 세계들 앞에 폭로될 당신의 고민의 장면을 내다보셨다. 그분은 사단이 선동하려던 참소와 기만과 허식의 위험이 하늘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이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다 이루었다"(요 19 : 30)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갈바리의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 저 너머에서 예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매우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그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다. 예수께서는 죄악의 일이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셨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었는데, 그분은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당신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당신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 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는 사실이다.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6)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아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이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자아는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 : 10)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처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동료 인간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그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됨을 기뻐하라. 그대가 자신보다도 더 높이 쳐다볼 때에 그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구주의 탁월하심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에 더욱 가까이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큰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큰 힘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됨을 기뻐하라.

칠십 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생생한 실재들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으며 그 심령의 비(碑)에 진리를 기록하셨다. 군중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은 차단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간에 영감을 받은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하셨다.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써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곧 인간으로서 그분에게 닥쳐온 굴욕을 보고 그분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부들과 세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끔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감화에 굴복시켰을 때 그들의 심령은 계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이 지식을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 기뻐하셨다. 종종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자기와 자기의 속죄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 주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를 기록자 자신들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후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리나 이미 죽은 현인들의 어록들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대하였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요 14 : 17)고 한 그분을 제자들은 바라보았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가면서 가르치신 공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베뢰아에서는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에서 보다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완고함에 눌려 있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분의 봉사 사업의 이 마지막 수개월 동안에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더욱더 괴롭혔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상징으로 가리셨다. 그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거만한 기도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 : 11, 13)라는, 참회하는 탄원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견책하셨다.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의 상징과 큰 잔치의 비유로써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이르게 될 운명을 예언하셨다. 복음 잔치의 초청을 경멸하는 태도로 거절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눅 14 : 24).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은 매우 귀중하였다. 성가시게 구는 과부와 친구가 밤중에 빵을 달라고 하는 비유는 그분의 다음 말씀에 새로운 설득력을 부여하였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눅 11 : 9). 때때로 그들의 흔들리던 믿음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눅 18 : 7, 8)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고 힘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잃어버린 은전과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잃은 양에 관한 교훈을 더욱 확대시키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의 요점을 그 당시에는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후, 이방인들의 수확과 질투심 많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볼 때에 탕자의 교훈을 더욱 잘 깨달았으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눅 15 : 32, 24)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비난과 빈곤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은 이 마지막 여행에서 하신 그분의 명령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용기를 얻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 : 32-34).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큰 무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율법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질문자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여전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지위와 사업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 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그는 많은 예식과 의식에 대한 교훈을 그냥 지나쳤다. 율법사는 예식과 의식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이 대답은 구주를 랍비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율법의 한 해설자가 말한 것을 승인한 데 대해 그분을 정죄할 수 없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 생애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율법사는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의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였다. 구주의 말씀은 그의 질문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자기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란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외인이요 원수들이었다. 그러나 자국민들과 사회의 상이한 계층 사이에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가? 제사장과 랍비와 장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순결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예식으로 세월을 보냈다. 무식하고 부주의한 군중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 터이므로 이것을 그들은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을 이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또다시 논쟁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죄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편협함을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단순한 이야기로써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율법사로 하여금 진리를 고백하게 한 천래(天來)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장면을 청중들에게 묘사하셨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아에 중심을 둔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눅 10 : 30~32)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다른 쪽으로 지나쳐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할 때에 여행자는 유대 광야의 일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거칠고 험한 협곡으로 나 있었으며 이곳에는 강도가 횡행하여 때때로

난폭한 장면이 벌어지곤 하였다. 바로 이곳에서 한 행인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를 입고, 타박상을 입은 채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행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왔으나 그는 부상을 입은 그를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 레위인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 길로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직자였으며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계층에 속했다.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여"(히 5 : 2) 사람들에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업이라고 묘사하신 사업과 같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 4 : 18).

하늘의 천사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압박과 고통에서 건져내는 데 사람들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하여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에 동정을 나타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구주는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교훈하신 분이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가운데서 그분은 지금 백성들이 저희 제사장들과 교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셨다. 율법의 자비로운 조항은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등 동물들에게까지도 뻗쳤다. 이러한 취지의 지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출 23 : 4, 5). 그러나 강도에게 상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의 경우를

제시하셨다. 그들의 마음은 짐 나르는 짐승보다 그에게 얼마나 더 동정을 쏟아야 했던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주어졌다.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신 10 : 1719; 레 19 : 34)고 명하셨다.

욥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고 말했다. 사람으로 변장한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에 롯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욥 31 : 32; 창 19 : 2)라고 말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모든 교훈을 잘 알고 있었으나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민족적 편견이 강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자국민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아마도 사마리아인일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율법사는 그가 율법의 요구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아온 것에 배치되는 점을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장면이 제시되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그 곳에 이르렀다. 그를 보자 동정심이 생겼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다. 도움이 요구되는 고통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그는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 주었다. 그가 자신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그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일정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었다.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을 지새우며 친절히 돌봐 주었다. 아침에 환자가 좀 나은 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위하여 돈을 맡겼다. 이것으로도

족하지 않아 그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주리라"고 약속하였다.

이야기는 끝났다. 예수께서는 율법사의 마음을 읽고 계신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 : 36)고 물으셨다. 율법사는 심지어 지금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이까"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죽어 가는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다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자신의 모본을 지적해 보이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 : 17, 13 : 34).

예수님에게 법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의의 대의임을 알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 : 6).

이 교훈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당시 못지않게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인간의 관심과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사업에 당신과 하나가 되라고 요청하신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 : 8)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모든 악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이지만, 죄인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과오를 범하고 수치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격려의 말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거의 절망 직전까지 내몰린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병으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한 것이든 곤경에 빠진 인간들을 볼 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말 것이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갈 6 : 1) 믿음과 기도로써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라.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 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증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하다. 그분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 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시 19 : 7)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존중하노라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유일한 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요일 4 : 20, 12).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었다. 침례 요한이 나팔 소리처럼 온 땅을 울리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 : 2)는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삼 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바라보지 말라.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은 영광스러운 '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대들은, 비록 인성에 가려졌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담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 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을 이해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이로운 그분의 생애가 저희 앞에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았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 : 14)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게 생각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해 말하는 데 결코 싫증을 느끼지 않았다. 어렴풋이 이해했던 그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예언들을 탐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당신이 세상에서 시작한 사업을 마치기 위해 승천하신 그분을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왕과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언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그분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예언적인 성경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했던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위대한 진리를 얼마나 느리게 이해했던가!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신 치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 곧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저희 견해에 붙잡혀서 인성 가운데 있는 신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분을 다시 보고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던가! 그들은 그분께 나아가, 자신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성경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던가! 그들은 그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이 들을 것이었던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 16 : 12)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무엇을 의미하셨던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열렬히 알기를 원했던가!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약했던 것과 그들의 사상이 목표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서 그 실재를 깨닫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언하며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유대 나라와 온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에게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다. 요한이 선언한 놀라운 인물이 삼십 년 이상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참으로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널리 퍼진 불신이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도록 허용했던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였다. 그들은 종종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 생각과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반대가 우리의 감각을 혼란하게 하도록 방임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모세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 하고 말하였다. 우리의 귀는 얼마나 둔했던가! 우리의 이해력은 얼마나 약했던가!

도마는 로마 군인들에게 입은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분께서 천대받고 거절당하실 때에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쓰라린 기억들이 또렷하게 그들의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옳게 평가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불신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분기시켰던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옥에 던져졌을 때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행 5 : 41)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기뻐하였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성령의 조명(照明)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안일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수고와 비천과 비난의 길에서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엡 6 : 12)하여 싸우는 전쟁 마당에서 멀리 앞선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그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오해와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자아 희생의 정신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결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 : 14).

그러나 오늘날 종교계에는 그들이 믿는 대로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주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나라의 치리자 즉 법정과 병영(兵營), 국회, 궁정, 시장(市場)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이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왕국의 율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왕국의 건설이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었다. 그분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 현세적인 왕국을 자진해서 세우고 그들을 당신의 뜻의 해설자와 능력의 대행자로 삼으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 : 36)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 보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에서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폐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 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 : 12, 13).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인구가 조밀하고 부요하고 사악하고 이교(異敎)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습으로 더럽혀진 고린도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전 2 : 2). 그 후 바울은 가장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어떤

자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6 : 11, 1 : 4)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 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 : 20).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 : 20)고 말하였다.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그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어디로 가시든지 구주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어떤 랍비에게 데려가,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기에는 그분의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분께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님을 찾아와도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분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분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 구주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알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

한 어머니와 아이는 예수를 찾으려고 집을 떠났다. 도중에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기의 목적을 말하였고 그 이웃도 예수께서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아왔다. 그 중 어떤 아이들은 유아 시대를 지나 아동과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어머니들이 그들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예수께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수줍어하고 눈물어린 요구를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보이시며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가 받으러 온 복을 주셨다.

어머니들은 위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와 복을 받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셨을 때처럼 오늘날도 틀림없이 개인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유대에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셨던 그때처럼 오늘날도 틀림없이 어머니들의 조력자이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은 오래 전의 아이들과 똑같이 그분의 피로 사신 아이들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던 그분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하신 그분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실 것이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어머니들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곤경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들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그들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의 수고를 구주의 발아래 놓고자 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문들이 열려 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당신에게서 복을 받도록 저희 어린것들을 데리고 오라고 어머니들을 초청하신다. 어머니의 팔에 안긴 영아일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꼴 지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이 어린이들이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장성한 사람들보다도 매우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동심의 이해력에 맞도록 중대한 교훈을 단순하게 하셨다. 그분은 후년에 돋아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진리의 씨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셨다.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게 열려 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강하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나이에 알맞은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늘을 위하여 교육하도록 그들에게 위탁된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로 여겨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배우는 교훈들을 어린 심령들이 받을 수 있는 대로 하늘의 원칙의 아름다움을 조금씩조금씩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은 학교가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임 교사가 되는 한편 부모들은 보조 교사가 된다.

우리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개심시키는 일에 있어서 격렬한 감정을 죄를 깨달은 필수적인 증거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개심한 정확한 시간을 아는 일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그들에게 저희 죄를 예수께로 가져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서 몸소 세상에 계셨을 때에 아이들을 영접하신 것처럼 저희를 용서하고 받아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녀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첫째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며 어머니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구주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의 모본이신 동시에 아버지의 모본도 되셨다. 그분께서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서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부(天賦)의 위엄과 예절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은 거친 것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하고 조잡하고 불친절한 모든 것을 너그럽게 할 것이다.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저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녀들을 지성적 존재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 주신 교훈들을 연구하라. 그대는 석죽(石竹)이나 장미나 백합을 기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모든 가지와 잎사귀를 매우 아름답게 번성하게 하고 균형 잡히고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는지 정원사에게 물어 보라. 그는 이것은 거칠은 취급이나 격렬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렇게 하면 연한 줄기들만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은 주의들을 자주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는 땅을 축축하게 하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심한 바람과 작열하는 태양에서 보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셨다. 아이들을 다룰 때 정원사의 방법을 따르라. 부드럽게 손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을 따라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상호간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라. 이 세상에 그토록 마음이 강퍅한 남녀들이 많은 이유는, 참된 애정을 연약으로 간주하여 막고 억눌러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더 좋은 본성은 어린 시절에 짓눌려 없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기심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정신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천연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들을 집 밖의 장대한 나무 아래나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라. 경이로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보도록 가르치라. 그분께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법칙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위한 율법을 만드셨으며, 이 율법들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긴 기도와 지루한 권고로 그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자연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의 신임을 받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쉬울 것이다. 그대가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이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세계의 희망이신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에 어린 자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은혜를 부모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추종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너희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올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를 그릇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냉대와 거침으로 어린 아이들을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그대가 있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느끼게 될 소지를 결코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신앙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말하거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라. 그리스도교 신앙은 침울한 종교이며, 구주께 나아옴으로 그들의 생애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 구주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며, 그들의 꽃다운 시절에 자신을 구주께 바치는 것보다 그분께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의 마음은 행실이 좋은 아이들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의 특질을 타고난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 많은 부모들은 저희 아이들의 이런 특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의 형편에 이르게 만든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다룰 자비심과 지혜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분은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아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의 마음에 동여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7장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청년은 관원이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나아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그분께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깨달았을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보이는 몇 계명을 인용하셨다. 관원의 대답은 당당하였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그분께서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끌리셨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한 그의 확언으로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고

싶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만약 이 관원이 구원의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된다면 이 청년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을 아셨다. 만일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둔다면 그는 선을 위한 한 능력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 관원이 구주와 연합했더라면 그는 그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었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드러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관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만약 그 관원이 그 때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가 만일 예수를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청년 관원에게 제공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의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라 극기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는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수 24 : 15)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그분께서는 그의 품성의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가!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원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 관원은 재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슬퍼하였다. 만일 그가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일원으로 등재하였을 것이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의 공회의 일원이었다. 사단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 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 때 후로 항상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한다. 그들은 젊은 관원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주로부터 돌아선다.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취급하신 일은 실물 교훈으로 제시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 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아니요"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신다. 오직 이 방법으로써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관원의 재산은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다.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 그는 그분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 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處世訓)이다. 순종만이 가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 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 : 23)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날 그들에게 주어질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 : 2).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시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의 마음은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당신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분은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다. 군중들이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께서는 군중들의 이해의 눈을 열어 저들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세상을 붙드시는가 깨닫도록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옳게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고요히 내리는 이슬과 촉촉이 적시는 소낙비와 밝은 햇빛에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들이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청중들은 잘 듣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분은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때에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그리스도께 나아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한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쉬시곤 했던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구주께 사람을 보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란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오라비가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민에 빠진 저희를 그분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곧 오시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기별을 보냈다. 그들은 그분께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로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그분을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기별을 들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기별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한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는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틀 동안 그분은 계시던 그 곳에 머무르셨다. 이렇게 지체하시는 까닭을 제자들은 알 수 없었다. 그분께서 가셨더라면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 하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그분의 강한 애정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마음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이 질문을 하곤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꺾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제시하였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련과 손실과 핍박에 관하여 경고하셨다. 시련이 닥칠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실 것인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저들이 그분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

이틀을 기다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로 가실 양이면 왜 이틀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자신들을 위한 염려가 가장 먼저 저희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께서 가시려고 하는 행로에서 위험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내 날의 열두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 내 생명은 안전하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은 곳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낮이 밤으로 변했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찬 말씀인가! 제자들은 저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입게 될 위험을 생각하여 베다니의 유가족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책망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그 기별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에 그들은 실망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 그윽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서둘러 사자와 함께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일깨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확신하였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다. 도마는 유대로 가는 경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도마는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심을 알고 있었다. 그분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으나 그분에게 할당된 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 때까지 예수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셨으므로 랍비들이 그분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것인가를 음모하던 바로 그 유대 지방에서도 그분께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 구주께서는 과연 고통받는 당신의 친구들의 가정을 고의로 피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광경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남은 누이들은 당신의 은혜로 격려를 받았다. 예수께서는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질 것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 계셨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고통 받는 누이들은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분께서 지체하신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벧후 2 : 9) 어떻게 건지실 줄을 아신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다. 그분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의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분이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베다니로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여느 때처럼 병들고 곤궁한 자들에게 봉사하셨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분은 사자를 보내 도착했다는 기별을 누이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가의 조용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큰 허례허식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고용된 애곡자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그 누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셨다. 통곡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으므로 즉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

매우 조용하게 기별이 마르다에게 전해졌으므로 방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슬픔에 잠겨 있던 마리아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마르다는 곧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마르다가 나사로를 장사한 그 곳에 간 줄로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울지 않고 슬픔에 싸여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서둘렀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렸다.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수께 대한 마르다의 신뢰심은 깨지지 않았으나 예수께서 사랑하셨고 자기 역시 극진히 사랑했던 오빠를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깊은 비통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는 희망으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애곡자들 때문에 떠들썩한 가운데 누이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인간적이고 신적인 동정심으로 예수께서는 슬픔에 가득 차고 근심으로 여윈 마르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마르다는 지난 일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란 비애에 가득 찬 말로 모든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분은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더욱 노력하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요일 5 : 12)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 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당신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써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셨다. 오래지 않아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은 사망의 열쇠를 잡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당신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할 분이셨다.

"네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당신께서 하시기를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기회만 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마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기별을 전달하였다. 곡하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막았다.

기별을 듣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진지한 표정을 짓고 방에서 나왔다.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조문객들은 그녀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오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떨리는 입술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는 그녀에게 심한 괴로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과 따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투심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다 표시하기를 삼갔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께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분은 슬픔을 표명하는 것처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지금 짐짓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무리 중에 얼마는 머지않아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자까지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꾸며낸 슬픔의 옷을 벗길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의분을 참으셨다. 모두가 사실인 말씀을 그분은 하실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당신을 참으로 믿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서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그분께서 물으실 때에 그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다. 슬픈 장면이었다. 나사로는 크게 사랑을 받았다. 그의 친구였던 이들이 오라비를 여읜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그분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 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분은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분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의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셨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그분의 슬픔의 원인에 대하여 그분 앞에 드러난 장면의 외부적인 사정밖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고 소곤소곤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를 떨어뜨릴 기회를 엿보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비웃었다. 만일 나사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면 왜 그분은 그 때에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두셨을까?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증오심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지금 겉으로 매우 동정하는 듯이 보이는 자들이 얼마 안 있어 희망의 문과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스스로 닫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이 발생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 때에는 아무도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징벌이 그분 앞에 분명하게 그려졌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이 포위될 때에 죽게 될 것이며, 저희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무거운 짐이 그분 위에 놓여졌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 주려고 하셨을 때에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그분께서 시체를 단지 한 번 보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써 거절하였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막 5 : 39)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만 앓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분의 이적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불가능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와 협력하신다.

명령은 순종된다. 돌이 옮겨진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는데 죽어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는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친다. 놀라움과 기대에 찬 무리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주목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신다. 신성하고 엄숙함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람되다고 그분을 비난한 바 있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로 그분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그분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로써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그분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그분의 능력의 보증을 볼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소멸시킬 증거, 즉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무덤 문 곁에 선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인간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선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진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멘 음성으로 구주께 감사를 표시한다. 오라비와 누이들과 친구들이 재회를 기뻐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 장소에서 떠나가신다. 그들이 생명을 주신 분을 찾을 때에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않는다.

59장 제사장들의 음모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소식은 곧 그 도시에 퍼졌다. 이적을 목격한 스파이를 통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곧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곧 산헤드린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셨다. 그 능력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이것은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격렬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은 일찍이 그분의 신성에 대한 보다 작은 증거들을 모두 거절해 왔다. 그들은 이 새로운 이적에 격노할 뿐이었다. 죽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백주에 살아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교묘히 설명하여 넘길 만한 재간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의 적개심은 더욱더 필사적이 되었다. 그들은 전보다 한층 더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심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증오심은 그처럼 격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게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소위 과학이란 것을 만들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을 넣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몇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이론은 무너지고 말았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면에서 사두개인들의 무식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받은 인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탈취해내는 데 성공한 그분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거짓 소문들이 유포되었으나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 영향을 제거시켜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후에 그들은 그분의 죽음만이 그들에 대한 그분의 담대한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이 이적은 메시야가 저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반대해 왔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저희의 위선적인 허식을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어 둔 엄격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순결한 종교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의 공언을 정죄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그분을 자극시키려고 애썼다. 그들이 여러 번 그분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분은 조용히 물러가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분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서 정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헤롯 당원들로 그분을 반대하여 분기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경쟁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그들과 의논하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흥분시켜 그분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저들의 권위를 뒤집어엎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분께서 백성들을 감화시키지 못하도록 애썼다. 그러나 이제껏 저들의 기도(企圖)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분의 자비로운 사업을 목격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아님을 알았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원들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 그분을 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자포자기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출교시키는 포고령을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침묵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결심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의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다.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전번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번 공회에는 소집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유력 인사도 공회에 참석했으나 그들의 감화는 악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누르지 못했다.

그러나 공회 의원들 모두가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간에 산헤드린은 법적으로 회집할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묵인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어떤 의원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들은 이 일로 백성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하여 로마인들이 모든 성직자들이 가진 큰 특권을 박탈하고 저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세력을 빼앗을 것을 염려하였다. 사두개인들도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에 저들과 연합하였으나 로마인들이 저희의 높은 지위를 빼앗을 것을 염려하여 신중히 행동하였다.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소집된 이 회의에는 느부갓네살의 자랑하는 말을 듣고, 벨사살의 우상숭배적인 잔치를 목격하고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참석했던 증인(성령)이 참석하셨다. 이 증인은 이제 지배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들 앞에 분명하게 떠올라서 그들을 경고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열두 살 난 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학식 있는 율법 박사들 앞에 서서 질문함으로 박사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을 회상하였다. 예수께서 방금 행하신 이적은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의 참된 의미가 저희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다. 괴로움과 번민에 싸인 관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랴"고 부르짖었다. 공회에 분열이 생겼다. 성령의 감화 아래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회의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섰다.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오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의 가족들은 거만하고 대담하고 무모하고 야망과 잔인함이 가득 찬 죄악들을 거짓된 의의 가면 아래 감추고 있었다. 가야바는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며 비록 그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큰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비록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처치해야 한다고 대제사장은 주장하였다. 그분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며 지배자들의 권위를 멸시하는 성가신 존재였다. 그런 존재는 예수님 밖에 없었다. 지배자들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보다

그분이 죽는 편이 나았다. 만일 저희 지배자들이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다. 가야바는 이 이적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때에는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 문을 폐쇄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갈릴리 사람의 생명은 민족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복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온 민족의 망함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좋다.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가야바는 비록 매우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예언들에 관하여 다소의 지식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들어 그 말의 넓고 깊은 뜻을 나타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얼마나 맹목적으로 이 거만한 가야바는 구주의 사명을 인정하였던가! 이 가장 귀중한 진리는 가야바의 입술에서 거짓말로 변하였다. 그가 옹호한 정책은 이교에서 빌려온 정책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방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죽게 되어 있다는 어렴풋한 의식이 마침내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논법으로 예수님에게서 아직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담대히 말할지도 모를 사람들의 항의를 침묵시키려고 생각하였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명시키셨다. 그러나 사단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을 주목하도록 충동하였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를 얼마나 적게 존경하셨던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해야 하는 훨씬 더 큰 의를 제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형식과 예식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죄인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저희 소원을 아뢰도록 격려하셨다. 그들의 견해로는, 예수께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써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랍비 학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폭로하셨으며, 그들의 감화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손상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이 의문의 율법을 엄격히 시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하였다고 선언함으로 그들의 금언과 유전의 효과를 해하셨다.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켰다.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그들이 그 당시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이유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감히 저희 마음의 생각을 말하지 않은 몇 사람을 빼놓고는, 산헤드린 회원들은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공회는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불화는 끝났다. 그들은 가장 유리한 기회에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재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만당했던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백성들이 매우 분노하여 그분에게 행하려던 난폭한 행위가 저희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조급한 조치를 취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이유로 공회는 그들이 언도한 형벌의 집행을 미뤘다. 구주께서는 제사장들의 음모를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갈망하고 있으며 이 목적이 곧 성취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위기를 재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방을 떠나셨다. 이와 같이 모본을 보이심으로 예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실행하셨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 10 : 23).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넓은 분야가 있으므로 그분께 대한 충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들은 저희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삼 년 동안 공중 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 없는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분의 순결, 고통,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삼 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이 구속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고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친 백성에게 거절당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까닭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겼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걷고 한마디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떠날 때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분은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이실 수 없었다.

60장 새 나라의 율법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었다. 그분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를 향해 나아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엄습하였다. 구주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당신의 주위에 불러 모으고 전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당신이 배반당하여 고통 받으실 것을 알리셨다. 예수께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도처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리스도 자신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백배를 얻고 그분의 나라에도 참여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리고 그분은 열두 제자에게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분의 나라의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특별히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이제까지 그분은 당신에 관하여 예언에 기록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메시야의 통치하시는 영광을 예언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에 비추어 볼 때 배반당하여 핍박과 죽음에 이르리라는 그분의 말씀은 막연하고 희미한 것처럼 보였다. 어떤 어려움이 방해할지라도 그들은 왕국이 곧 건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께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첫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 회집에서나 늘 그분과 같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고 위험 중에서 구원하고 고통에서 건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연결될 때까지 인내와 온유로써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 가까운 연결로써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써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들었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자신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는 탐심을 품게 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요구를 제시하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다. 이에 어머니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동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애정의 깊이를 아신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애정만은 아니다. 비록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인 요소로 더러워졌지만 그것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샘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심화시키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표시하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말씀이 회상되었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주께 닥쳐올 모든 일을 같이 당함으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와"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분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째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 중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실(情實)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오랜 후에 제자 요한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요한에게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 : 21, 12)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 역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 : 6~8)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전 13 : 4, 5)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정신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말하였다. 죽음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었으며 영혼들을 그에게로 모을 것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빌 1 : 21, 20) 한다고 말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듣고 열 제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야말로 모두가 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제자가 그들보다 앞서 유리하게 보이는 자리를 얻었다고 분노하였다. 가장 크고자 하는 투쟁이 재연될 것처럼 보였다. 그 때 예수께서는 분개한 제자들을 불러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 세상 나라에서 지위는 자아의 확대를 의미한다.

백성들은 지배 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마련이었다.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 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었으며, 하류 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은 저희 상전의 지시대로 믿고 행하도록 요청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 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권력으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 가장 미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고후 4 : 15)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제자들 중에서 모든 면에서 돌보는 사람이었으며 짐 지는 사람이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빈곤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극기하셨으며 더욱 어려운 곳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보다 앞서 가시고 미구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당신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해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분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바울의 말은 참 그리스도인 생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낸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전 9 : 19, 10 : 33).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이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무를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와 그가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과 합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문제에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롬 14 : 12, 5)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그의 생애의 만년에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증언의 요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 : 11, 16)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행 4 : 32, 34, 33)었다.

61장 삭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요단강에서 몇 킬로 떨어진, 평야가 뻗어 있는 골짜기의 서쪽 끝에 아름답게 우거진 열대성 초목들 사이에 도시가 있었다. 종려나무들과 비옥한 정원들은 생수의 샘에서 물을 공급 받고 있었으며 그 샘들은 석회암의 구릉(丘陵)들과 예루살렘과 그 평원의 도시 사이에 끼어 있는 황량한 계곡에 박힌 에메랄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많은 대상(隊商)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였다. 대상들은 언제나 축제의 절기에 도착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백성들을 움직였다. 최근에 나사로를 살리신 갈릴리의 랍비가 무리 가운데 계심이 알려졌으며 제사장들이 음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군중들은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여리고는 옛날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된 도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이 도성의 주민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교통의 대중심지였으며 로마의 관원들과 군졸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한 관세 징수는 이곳을 많은 세리들의 본거지가 되게 하였다.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자인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정한 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눅 3 : 13)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 받는 제자들 중의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길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 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헤치고 얼마쯤 앞으로 달려 나가서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드리운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거기서 이 부자인 세금 징수원은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다.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기를 갈망했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갑자기 무화과나무 바로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서자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나무 위에 있던 그 사람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불만과 조소하는 태도로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막 10 : 24, 26; 눅 18 : 27).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 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오래 전에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레 25 : 35~37, 17)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름기둥에 둘러싸인 가운데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세리들 사이에는 동맹이 되어 있어서 저들은 백성들을 압박할 수 있었고 사기 행위를 하는 데 공조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토색하는 일에도 그들은 거의 일반화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세리들을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 하에 부정직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죄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업에서 우리 주께서 기업을 관장하실 때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어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세리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배상함으로 그의 성실함을 증거할 것이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겔 33 : 15, 16)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에서 사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고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갈 3 : 7)이기 때문이다.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야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그분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적의가 서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엿새밖에 남겨 놓지 않은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분은 관습대로 나사로의 집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의 무리들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며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시리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들은 열광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였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려는 호기심에서 모여왔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하여 듣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으므로 놀랐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었다. 영감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전 9 : 5, 6)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었다.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다.

베다니를 방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다. 나사로가 그분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유월절에 그 선지자가 왕위에 앉으실 것인지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질문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힘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더 격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들의 길에서 그분을 영원히 제거해 버릴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결국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봐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얼마나 자주 저들의 살해 계획을 좌절시켰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이 당신을 대적하는 저들의 목적을 알고 오지 않을까봐 매우 염려하였다. 그들은 염려를 감출 수가 없어서 서로 질문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나오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그리스도에 대한 동정심이 매우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체포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자들은 그분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심문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분의 유죄 선고가 알려질 때에 변하기 쉬운 대중의 여론의 물결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나사로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무덤에서 나흘 동안 있다가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조만간에 반발을 일으킬 것이었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의 생명을 취한 저희 지도자들에게 복수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은 나사로도 역시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증오와 편견은 그들의 노예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왔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증오와 불신은 무한한 능력이 무덤에서 살려낸 자의 생명까지라도 취하려고 할 만큼 커졌다.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녀는 제일 먼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녀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였으므로 그녀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를 하였다.

제자들을 위한 회계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재원(財源)은 줄어들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은 가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유다의 생각에 필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샀을 경우 그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느냐"고 말하곤 하였다.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수치를 느껴야 할 그의 이기심과는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전 관례대로 그는 그 여자의 선물에 대한 자기의 반대에 어떤 가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제자들을 돌아보며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 관리인으로서 그는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식탁 주위에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불평이 돌았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떨렸다. 그녀는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분께서는 그녀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녀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알고 그녀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비난의 수군거림보다 더욱 높은 음성으로 그분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장사 때에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차고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녀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께 자신의 사랑을 쏟으므로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 놓는다. 피로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말씀하셨으며 이로써 그분이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분의 몸은 훼손될 것이나 그분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분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 : 2).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장래를 내다보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녀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힐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마리아의 행위는 유다가 취하려고 하는 행동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비평의 종자를 떨어뜨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려고 한 자에게 예수께서는 얼마나 날카로운 교훈을 주실 수 있으셨던가! 비난자가 얼마나 정당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알고 모든 행동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유다의 경험 가운데서 어두운 장면들을 공개하실 수도 있었다. 변역자가 내세우는 말의 공허한 가면도 적나라하게 폭로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그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기는커녕 구제에 요구되는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과부와 고아와

고용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분노가 격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면을 벗기셨더라면 이것이 주를 배반한 이유로 주장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도적이라는 책망을 받을지라도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까지도 동정을 받게 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하여 그에게 배반할 구실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만찬석을 떠나서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에 들어가 그곳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돈도 없고 값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강권하는 가장 부드러운 정신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귀중한 선물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저희 주를 은 삼십에 샀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것을 품어 왔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납물을 탐냈다. 그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해당하는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 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주님을 팔았다.

제자들은 유다와 같지 않았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결한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았다. 만일 제자들이 그분께서 그들은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그분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누운 아기에 불과한 그분 앞에서 경의를 표하여 경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하늘의 공손으로써 후의를 베풀었을 때 그분은 그 행위자에게 축복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드려졌을 때에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선물을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성경에는 예수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해서 말한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충성의 증거를 이렇게 언급하신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딤전 5 : 10).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재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셨으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 그분을 빼앗기게 되고 저들이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늘의 궁전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고독에 대하여 제자들은 응당 이해했어야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다. 제자들에게서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슬퍼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당신을 옹위하고 있던 하늘 천사들의 감화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사랑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헌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임을 그분께서는 아셨다.

예수께서 저들과 가까이 계셨을 당시에 제자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분께 행했어야 할 많은 일들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계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했던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오, 만일 제자들이 저희 비난의 말을 철회할 수 있었다면,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제시한 그들의 잘못을 철회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에 더욱 심한 가책을 느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해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주께서는 당신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요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효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의 관유(寬裕)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말하였다.

시몬을 문둥병에서 고쳐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감정의 표시를 매우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 외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회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분은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오백 데나리온의 빚이 오십 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써 구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써 당신께 감사하기를 게을리 할 때에 그분은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동정을 멸시하였다.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 지어 온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 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일곱 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의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분의 발아래 앉아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진노의 잔을 쏟게 할 수 있으시다. 그분은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소해 버릴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 : 33, 34).

63장 “네 왕이 임하나니”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 9 : 9).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오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의 약속된 후계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분이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자연계도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신록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 꽃들은 대기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새 왕국에 대한 희망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타고 갈 목적으로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 당신께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수많은 언덕 위의 가축들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을 이 심부름을 위하여 보내면서 주신 상세한 지시 가운데서까지도 그분의 신성이 다시 드러났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간청이 곧 수락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쓰기로 결정하셨다. 제자들은 기뻐 열광하며 저희 옷을 짐승 위에 펴고 주님을 그 위에 앉혔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짐승을 타고 가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고 왕권을 주장하시리라는 즐거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원근에 널리 퍼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으로 메시야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야로서 환호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었던 존경을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 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에 저희 겉옷을 융단처럼 펴놓았고 또한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큰길에 깔아 놓았다. 그들은 왕기(王旗)를 가지고 승리의 행렬을 인도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계의 승리의 상징인 쭉쭉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높이 흔들면서 큰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쳤다.

그들이 행진하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행렬에 참가하려고 달려 나온 자들로 말미암아 군중은 계속 불어났다. 구경꾼들은 계속적으로 군중과 섞이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이 소동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분이 지금까지 당신을 보좌에 앉히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그분임을 알자 그들은 매우 놀랐다.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선언하셨던 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들은 의아해 하였다.

저희의 질문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묵살되었다. 이 환성은 열광적인 군중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었다.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멀리 전달되었으며 주위의 산과 골짜기들로부터 메아리쳐 울려 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그 행렬과 합류하였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 그분은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에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原形的)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는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은 사색과 연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희생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하였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행하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야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에 귀의하는 개심자들이 증가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 중 이 한 번의 개선 장면에서 하늘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팔로 선포되는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 행렬은 그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생애를 주관했던 법칙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받아들이셨던 비천한 운명에 충실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때까지 그분은 인류의 짐을 지셔야 하였다. 이 기쁨의 장면이 저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의 서곡임을 알았다면 제자들의 생애 중 최고의 날로 보였던 이 날은 침울한 구름이 드리운 그늘진 날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확실한 희생을 그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즐거운 개가 속에서 그들은 그분의 슬픔에 찬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여 이루실 그분의 번영된 통치를 내다보았다.

행렬에 새로 가담하는 자들이 계속되었으며 거의 예외 없이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 고무되어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반복해서 메아리치는 "호산나"를 드높이는 데 한몫을 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환호성은 계속되었다.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 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 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 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워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민중들의 감정의 흐름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수적 우세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을 헤치고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운동은 불법적이므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의 찬양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게 하셨을 것이다. 침묵당한 자들이 뒤로

물러가자 스가랴의 예언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행렬이 언덕 마루에 도달하여 막 도성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정지하셨으며,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발을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선을 담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이 보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성전으로 끌렸다. 성전은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치솟아, 마치 백성들을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이었다. 로마인들 역시 성전의 장대함을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하였다.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성전은 그 견고함, 화려함, 그리고 장대함으로 세계의 경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그 눈부신 영광은 성전 벽의 순백색 대리석을 비추었으며,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번쩍거렸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등성이에서 볼 때 성전은 흰 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 황금 첨탑들이 솟아 있는 모습이었다. 성전 입구에는 금, 은으로 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장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세공하여 만든 푸른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다. 이 디자인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였다. 금과 은과 생생한 푸른 잎들은 진귀한 아취(雅趣)와 훌륭한 솜씨로 잘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 포도나무는 희고 번쩍이는 기둥을 우아하게 감고 있었다. 그리고 금장식에는 빛나는 덩굴이 매달려 있었는데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채를 받아 마치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을 본다. 눈물이 가득한 그분의 눈과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분의 몸을 보며 한편 마치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한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고뇌의 눈물을 흘리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분을 호위하던 기쁨의 무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그러나 이 갑작스런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함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 앞에는 겟세마네가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그 곳에서 큰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뒤덮을 것이었다. 양의 문도 또한 거기서 보였는데 수 세기 동안 이 문을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된 짐승들이 들어갔다. 이 문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곧 열릴 것이었는데 이 모든 희생 제물들은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다가오고 있는 그분의 고뇌의 장소가 될 갈바리가 있었다. 그러나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신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고상하고 자기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릴 수 있으셨겠는가?

이스라엘은 은총 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시 48 : 2).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듯이 천 년 이상이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발하였다. 그 곳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로를

흔들었다. 그 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넘쳐흘렀다. 그 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은소 위에 나타내셨다. 그 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 내려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종말을 고하여야만 하였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 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 어조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부르짖으셨다. 구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 놓으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자유한 가운데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더라면 축복 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세상의 강력한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야 했을 빛난 장면이 구주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고 그분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깨달으신다. 그분은 비탄으로 끊었던 말씀을 계속하신다.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질투,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에 임할 무서운 징벌을 아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함으로 확실히 입증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략군에 대해서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가엾은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첩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밭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네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네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할까?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 때에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에 자리를 내어 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전과 망대와 누각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의 멸망의 비운을 돌이키지 않을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자비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말씀하신다.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의 음성이 과거의 예언된 외침에 응답하면서

높이 울려 퍼진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들을 분산시키기를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나아간다. 행렬이 감람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관원들의 제지를 받는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에 제자들은 영감의 영에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창 14 : 18).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 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사 7 : 14, 9 : 6)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렘 23 : 6)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야"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호 12 : 5)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 : 29)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마 3 : 17)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야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왕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막 1 : 24)라는 말로 그분을 승인한다.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개선의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일의 희미한 전조였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마 23 : 39) 하신 말씀이 그 때에 성취될 것이다. 예언적 이상 가운데서 스가랴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보았으며 그는 또한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운명을 보았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슥 12 : 10). 그리스도께서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우셨을 때 이 장면을 미리 보셨다. 예루살렘의 현세적 멸망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백성들의 최후 멸망을 보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형편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형벌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의미심장한 한 실물 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호소도 헛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군중들에 의하여 반향된 과거의 예언적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였다. 군중 가운데는 로마의 관리들도 있었는데 그분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반란의 괴수로 고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한 음성으로 당신은 현세의 통치를 위하여 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심으로써 그 소란스러운 군중들을 잠시 동안 조용하게 하셨다. 그분은 곧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었고 그의 비난 자들은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은 그 때에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슬픔과 비범한 권능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로마의 관리들은 침묵하고 진정되었다. 신령한 감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았다. 침착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와

조용한 품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움직였다. 예수님을 잡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께 더욱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분노하고 좌절한 이 지도자들은 저희 불평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저희들끼리 화를 내며 다투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눈에 띄지 않게 성전으로 가셨다. 감람산 위의 광경을 보기 위해 백성들이 몰려갔으므로 그 곳은 모든 것이 조용하였다. 잠시 예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서 슬픔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오셨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려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도중에 그분은 무화과 밭을 지나셨다. 그분은 시장하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이 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무에 말라죽게 하는 저주를 발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침 구주와 제자들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든 가지들과 떨어지는 잎들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베드로가 말하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였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분의 방법과 행위와는 다른 것처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당신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눅 9 : 56)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분의 놀라운 행위들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회복시키는 자, 곧 치료자로만 알았다. 한데 이 행위는 사뭇 달랐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의아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미 7 : 18; 겔 33 : 11).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고하시는 일은 그분께 "비상한"(사 28 : 21)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베일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무화과 과원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기대도 일으키지 않으며 실망도 안겨주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은 경건한 체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에 어두웠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날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권들은 저희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나무에 오셨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 그들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되었다. 그 대신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서 저희의 동정과 협력을 구하셨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형벌을 읽을 수 있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죽어 시들고 이지러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서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호 13 : 9)라고 말씀하신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고 무아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사리(私利)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아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밖에 다른 것은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는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비유 가운데 열매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과원지기는 간청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봐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비유 가운데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로 결과가 드러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유대 민족은 일천 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죄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였다.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쌓았다. 그 민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벼리어 만든 쇠사슬로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자비는 여러 해 동안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자비가 마지막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져서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 때에 상냥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그 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 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유대 민족은 무한한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을 때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므로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종교인 성경 진리는 도덕적 불결의 강력한 사조와 투쟁한다. 편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저희 죄에 대한 책망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 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둠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보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그대이다.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하든지 혹은 영혼을 회개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키든지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미리 보셨다. 자비를 거절한 모든 결과인 죄악이 그의 문에 놓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모든 영혼도 그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호 13 : 9; 렘 6 : 19)고 선언하신다.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당신의 봉사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분의 엄격하고 신성한 자태는 교활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었다. 그분의 사명 말기에 그분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음을 발견하셨다.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성전 바깥마당은 마치 큰 가축 시장과 같았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동전의 짤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상인들의 분노한 언쟁 소리와 뒤섞였으며 그 가운데는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렸다. 성전의 성직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이득을 위한 탐욕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의 엄숙함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매년 유월절과 장막절에 무수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에 쏟았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셨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집회를 유혈과 잔학으로 물들였는지를 보셨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여야 할 장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정한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짐승들의 희생을 증가시켰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저희 마음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 모으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백성들의 눈에는 제사 의식의 신성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당신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행습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 : 22)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배도를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보면서 저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에게 말하듯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 : 10~12, 16, 17)고 말하였다.

이 예언들을 주신 분 자신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경고를 되풀이하셨다.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였다. 예수께서 저희의 존경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이 신분으로 그분은 행동하셔야 했다. 그분은 부패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 주셔야만 하였다.

다시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의 뜰을 훑어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쏠렸다. 제사장과 관원,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하늘 왕의 존엄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신 일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 곁에 제일 가까이 섰던 제자들은 군중이 허락하는 한 멀리 물러섰다.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 구주께서는 홀로 서 계셨다. 모든 소리가 그쳤다. 깊은 침묵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라고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마치 삼키는 불처럼 보였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요 2 : 16)고 명령하셨다.

삼 년 전 성전 치리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주했던 일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일과 일개 비천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채신없이 복종하는 일은 다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욱 무서워서 더 급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감히 물어 본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들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중에 병자들을 데리고 크신 의원을 찾는 군중들을 만났다. 도망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되돌아갔다. 그들은 표정만으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당신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그토록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큰 무리가 허둥지둥하는 군중을 헤치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인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열심히 전진하였다. 군중들이 성전에서 도망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 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 가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얼마 후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공포심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어떤 것일는지를 알고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리라고 예기하였다. 조용히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남녀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성을 들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못 박힌 듯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것을 보았다. 어린이들은 그 즐거워하는 무리의 맨 앞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껴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입맞춤을 받으셨으며 그 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이제 즐거운 음성으로 아이들이 그분을 찬송하였다.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호산나를 반복하였으며 구주 앞에서 종려나무가지들을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시 118 : 26; 슥 9 : 9),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는 그들의 외침 소리로 성전은 울리고 또 울렸다. 이 기쁘고 거리낌 없는 음성은 성전을 다스리는 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런 시위를 중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린아이들의 발과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모독당하였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감명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자 관원들은

그리스도께 호소하였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셨다.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을 말했는데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을 아이들에게로 옮기셨다. 만일 아이들의 음성이 잠잠하였더면 성전의 모든 기둥들이 구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발하였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몹시 어리둥절하고 당황하였다. 그들이 위협할 수 없는 분이 명령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성전의 보호자로서 그분의 지위를 차지하셨다. 그분은 전에 이런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그처럼 큰 권세를 가졌던 일은 전혀 없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었으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감명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적은 전혀 없었다. 그분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감히 공공연한 적개심을 그분에게 나타낼 수 없었다. 비록 예수님의 대답으로 분노하고 당황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날에 어떤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산헤드린 회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시 의논하였다. 삼 년 전에 그들은 그분이 메시야라는 표적을 요구하였었다. 그 때 이후로 예수께서는 도처에서 능력 있는 일을 이루셨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거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열린 책을 읽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번 읽으셨으며 사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관원들은 그분이 메시야이신 증거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그분에게 권위의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분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나 선언을 끌어내기로 결정하였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성전으로 모여들면서 그들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라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 주장을 그들은 부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견 다른 문제에 속하는 듯한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셨고,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는 조건 하에 저희에게 대답하기로 하셨다. 그분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고 물으셨다.

제사장들은 어떤 궤변을 가지고도 벗어날 수 없는 곤경에 그들이 빠진 사실을 알았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모순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 : 29)고 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것이었다. 만일 제사장들이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야 되심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요한의 봉사가 사람에게서 왔다는 그들의 진정한 소신을 선언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폭풍과 같은 분노를 자초할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까닭이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군중들은 결정을 기다렸다. 군중들은 제사장들이 요한의 봉사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했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의심 없이 승인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비밀리에 다 같이 협의한 후에 제사장들은 언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짐짓 알지 못함을 공언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모두 다 잠잠하였다.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감히 그리스도께 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 곁에 서서 이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존경심을 크게 상실하였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과 행동은 중요한 것으로, 그 감화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하여 더욱 증가된 분량으로 느껴질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의 결과를 근심스럽게 기다렸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사(多事)했던 날에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말을 주고받을 때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의 대조는 너무도 현저했다. 거만한 성전의 성직자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고 그의 자태는 위엄이 있었으며 머리카락과 긴 수염은 연로하여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의 외모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였다. 이 존귀한 사람 앞에 하늘의 폐하(陛下)께서 장식이나 치장 없이 서 계셨다. 그분의 옷은 여행으로 더럽혀졌으며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한 비애가 표현되었다. 대제사장의

거만하고 자신 있고 분노한 모습과는 이상하게 대조되는 존귀와 자비심이 보였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부터 저희 마음에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민중의 감정이 그분 쪽으로 선회하자 예수께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예수께서 그분의 발 앞에 설치된 덫을 벗어나신 지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되었으며 그들의 분노를 부채질하였다. 랍비들과의 논쟁에서 그분의 적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가르칠 중대한 교훈이 있었다.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펴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분은 원수들을 실망시키셨다. 요한이 베푼 침례의 성격에 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자백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분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이미 주어진 많은 경고에 다른 경고를 첨가하여 그들의 참 위치를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라고 말씀하셨다. 이 돌연한 질문에 청중들은 마음을 놓았다. 그들은 비유를 면밀히 살핀 다음 곧 둘째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눈을 그들에게 똑바로 향하고서 날카롭고도 엄숙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도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 세리들은 대체로 부도덕하였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생애로 그분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다.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에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첫째 아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였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눅 7 : 30).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요청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여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였다. 그들은 경건을 크게 공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된 순종만을 했을 뿐이었다. 세리들은 이교도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들은 저희 신앙과 행동으로, 큰 빛을 받고도 행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과 일치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양심에 가책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분을 되받아 책잡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시리라는 희망으로 잠잠하였다. 그들은 좀 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예수께서는 그 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였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죄를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유 가운데서 집 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그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사 5:4)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의 실과의 합당한 몫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써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농부들이 주인이 실과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계속해서 기별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이 확실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따르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이었다. 포도원 주인이 그의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최후로 보냈으며, 그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임박한 운명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지막 호소로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은혜를 모르는 농부에게 가해진 보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할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었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여러 번 반복해 읽었으며, 그것을 오실 메시야에게 적용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구원의 전 계획의 모퉁잇돌이셨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지금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위험을 보여 주게 될 예언들에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의 본질을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 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행한 대로 대답하도록 계획하셨고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분의 경고는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채 저희 운명에 인을 칠 것이나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 성전과 도성의 파멸뿐 아니라 민족의 분산으로 끝나게 될, 그들의 민족적 특권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보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청중들은 그 경고를 깨달았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형벌을 스스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라는 말을 이루려고 하였다. 여론이 그리스도 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특별히 적용되었으며 또한 특별한 능력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훈이 된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에 벽과 기초를 위하여 사용된 거대한 석재(石材)들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건축 장소에 옮겨지면 아무런 연장들이 쓰이지 않고 일꾼들이 이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 기초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별나게 크고 특별한 모양을 한 돌을 가져왔으나 일꾼들이 이 돌을 갖다 맞출 곳을 찾지 못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돌은 저희 길에 쓸데없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찮은 물건이 되었다. 오랫동안 이 돌은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놓기 위해 와서는 특수한 장소에 맞으며 그 위에 올려놓을 큰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강도(强度)와 적당한 모양을 갖춘 돌을 오랫동안 찾았다. 만일 그들이 이 중요한 곳을 위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온 건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그들을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딜 수 있는 돌을 찾아야만 하였다. 여러 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선택되었으나 거대한 무게의 압력에 그것들은 쪼개졌다. 다른 것들도 갑작스런 대기의 변화에 따른 시험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매우 오랫동안 버려둔 돌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것은 공기와 햇빛과 폭풍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아주 작은 금도 나타나지 않았다. 건축자들은 이 돌을 검사하였다. 이것은 한 가지 외에는 모든 시험을 견디었다. 만일 이것이 엄청난 압력의 시험을 견딜 수 있다면 그들은 이것을 모퉁잇돌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험한 후에 이 돌을 채택하여

배정한 장소에 가져가니 꼭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이사야는 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선지자는 예언적 계시 가운데 초림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솔로몬 성전의 큰 모퉁잇돌 취급에서 상징된 시련과 시험을 견디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사 8 : 13~15, 28 : 16).

무한하신 지혜로써 하나님께서는 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이것을 놓으셨다. 그분은 이것을 "견고한 기초돌" 이라고 부르셨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시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돌과 거치는 돌이라고 선언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돌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벧전 2 : 3~8).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獨善)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산 돌 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같이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넓고 온 세상 사람의 무게와 짐을 질 만큼 강하다.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 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 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 영원한 반석 곧 큰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반석이시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상 사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욕을 참으셨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 : 3).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실 것이었다(롬 1:4). 재림하실 때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져서 바람 앞의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그것은 멸시당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경멸당한 의요 무시된 은혜였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멸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수반되었다. 갈바리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할 무게가 있었다. 최후의 큰 날,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때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복하는 산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써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한 아들, 거짓 농부들, 거만한 건축자들의 모습을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66장 논쟁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질책을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책망을 논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층 더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끔 만나신 일이 있는 나이 든 바리새인들을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열심 있는 젊은 바리새인을 보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심문할 때에 그분에 대하여 적대적인 증언을 하려고 하는 어떤 헤롯 당원들이 이들과 동행하였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큰 원수였지만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의 가혹한 과세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세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 올무를 놓을 기회를 잡았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와서 겉으로는 신실한 체하며 그들의 의무를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라고 질문하였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라고 한 말은, 그들이 진실되었더라면 경이로운 고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속이기 위하여 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은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 이 질문을 한 자들은 저희가 저희 목적을 충분히 위장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을 펼친 책처럼 읽으시고 저희 위선을 경고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심으로 그분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목적을 읽고 계심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표적을 주셨다. 예수께서 "셋돈을 내게 보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더욱더 당황하였다. 그들은 동전을 가져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가리키면서 예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쪽 혹은 저쪽이라고 직접 대답할 것을 기대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로마의 관원에게 보고되어 반란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언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그분을 백성들에게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들은 혼란되었다. 요점(要點)을 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질문이 대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손에 들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주의 말씀은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한 혹독한 책망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더라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휘날리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의 보초병이 저희의 문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로마의 총독이 저희의 성안에서 다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대 민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선과 무례를 책망하셨으며 이 일을 행하심으로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그 때 이후로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굳게 고수하였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채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 질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된 것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선견지명이 있는 분별력에 놀랐다.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당하게 되자마자 사두개인들이 교활한 질문을 들고 나왔다. 두 교파는 서로 크게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유전(遺傳)을 고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외형적 의식에 엄격하였고 씻고 금식하고 긴 기도를 드리는 데 부지런하였으며 구제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한다고 선언하셨다. 한 계급으로서 그들은 완강하고 위선적이었지만 저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으며, 이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며 유물론자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또 그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다. 이 모든 점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부활은 특별히 이 두 교파 사이의 논쟁의 주제였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굳게 믿고 있었으나 이 논의에서 미래의 상태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혼란되었다. 죽음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되었다. 사두개인들의 논증에 맞설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은 계속적인 노여움을 일으켰다. 두 교파 사이의 논의는 대체로 성난 언쟁을 초래했으며, 그들을 전보다 더 멀어지게 하였다.

수효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상대측보다 훨씬 적었으며 일반 백성들을 굳게 장악하지 못했으나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부자였으며 그들은 부가 주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 계층에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제사장은 흔히 그들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회의적 견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약정 하에 그렇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수효가 많고 인망이 있는 까닭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제사장 직분이든지 유지할 때는 외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용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와 같은 직분에 적격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의 오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와 같이 스스로 드러나는 어떤 정신에 의해 고무되셨다. 하나님과 내세에 관한 그분의 가르치심은 그들의 교리에 반대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류보다 높으신 유일의 존재자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하는 섭리와 하나님의 예지는 인류에게서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을 빼앗아 사람을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욱 큰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다.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애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계획할 자유가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사람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능력을 적당하게 활용함으로 인류는 향상하고 계몽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엄격한 강요를 통하여 그의 생애가 순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 지었다. 그들의 견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들도 상호간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들 가운데 연합이란 거의 없었다.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성령의 감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저희 생애에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였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득권(生得權)과 율법의 요구를 엄격하게 지키는 일을 크게 자랑하였으나 그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비심은 없었다. 자연적인 동정심은 좁은 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애의 위안과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저희 마음은 다른 사람의 궁핍과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위로써 초자연적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현세 저편의 내세와 인간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항상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동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이기적 배타심을 질책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현세적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과오를 보여 주셨다. 사두개인들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님과 논쟁하면 그들은 그분을 정죄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부활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로 선택한 문제였다. 만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의하신다면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크게 화나게 할 것이었다. 만일 그들에게 반대하신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조롱하기로 그들은 계획하였다. 사두개인들은 만일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처럼 불멸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물질의 분자(分子)로 구성되었다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에도 살과 피가 있어야 하며 지상에서 중단된 생명이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추론하였다. 그럴 경우 세상에서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다시 연합되어 부부 생활이 계속되고 모든 일이 죽기 전과 똑같이 되어 나가고 금생의 약점과 격정이 내세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내세를 가린 베일을 거두셨다.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신조가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셨다. 그들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부언하셨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위선 때문이 아니라 신조의 오류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굳게 고수한다고 자랑해 왔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그 지식은 성령의 비침으로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야 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들의 무지가 믿음의 혼란과 심령의 어둠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추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해력을 넓혀 주고 힘 있게 할 이 거룩한 진리에 저희 심령을 열도록 초청하셨다. 그들의 유한한 지력으로써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의 경이로운 현시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와 같은 능력의 증거를 거절하며 그것을 그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 작용에 돌린다.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의 열쇠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을 승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사를 명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와 그분의 섭리의 신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성경이 쓸데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선언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사업의 결과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예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분에게는 산 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 침묵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백성들의 멸시밖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책잡는 데 사용할 말을 하도록 그분을 추궁하는 일을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학식 있는 서기관을 설복시켜 율법의 열 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크고 중대한 것이 어느 것인지 예수께 질문하도록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지적한 첫 네 계명을 그의 이웃 사람에게 대한 사람의 의무로 밝힌 나머지 여섯 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높였다. 그 결과로 그들은 실제적 경건을 이루는 데 크게 실패하였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큰 결점을 보이신 다음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행실의 필요를 가르치셨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나머지 여섯 계명을 처음 네 계명 이상으로 높인다는 비난을 받으셨다. 율법사는 예수께 접근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직접적이며 힘이 있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여섯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모든 계명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이 원칙을 범하지 않고는 한 계명도 깨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은 크게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지라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분리된 계율이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은 처음 네 계명이나 나머지 여섯 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예수께 질문한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는 예수께서 그처럼 심오하고 완전한 성경 지식을 나타내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 거룩한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하여 넓은 식견을 얻었다. 모인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바로 해석하셨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대답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다. 서기관은 유대인의 종교가 내적 경건보다는 외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죄를 속하는 데에 단순한 제의(祭儀)적인 제물과 신앙심 없는 피 흘림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이기심 없이 대하는 것이 이 모든 의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논증의 올바름을 인정한 이 사람의 신속성과 백성들 앞에서 보여 준 그의 결정적이며 기민한 대답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찌푸린 얼굴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하셨다.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의의 행위가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인 명령 이상의 더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 주셨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며 그의 죄를 보여 준다. 사람은 그리스도께 용서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예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고 질문하셨다. 이 질문은 메시야에 관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즉 그분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무리들은 음성을 합하여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메시야에게 예언된 칭호였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 하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물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매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15 : 22)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 : 9)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의 만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즐거운 찬송을 반향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답하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마지막 날이었다. 예루살렘에 모인 큰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다.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운집하여 진행 중에 있는 논쟁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전에는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일이 전혀 없었다. 세상의 명예도 제왕의 휘장(徽章)도 가지지 않은 젊은 갈릴리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분의 주위에는 값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과 휘장으로 단장한 관원들과 그들이 항상 참고하는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든 서기관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들 앞에 조용히 서 계셨다. 하늘의 권위가 부여된 분으로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당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애쓰는 대적들을 움츠리지 않고 바라보셨다. 그들은 전에 큰 수효로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나, 함정에 빠뜨려 그분을 정죄하려던 계획들은 헛수고였다. 도전에 도전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류와는 대조되는 순결하고 빛나는 진리를 제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지도자들 앞에 그들의 참된 형편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분명히 형벌을 받을 것을 보이셨다. 경고는 충실하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다른 일이 남아 있었다. 성취되어야 할 다른 목적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또한 크게 당혹하였다.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모든 종교적 문제에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밝히 드러난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쉽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 놀랐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저희가 항상 권면을 따르던 자들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셨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하고 행하지 아니한" 다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은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의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극도의 순종과 복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율법에 따라 가르치는 랍비의 교훈은 행할 것이나 랍비의 모본은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다.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에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또 그들의 목적에 맞을 때는 그 율법의 순종에서 저희는 실제로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적인 목표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관하여 모세에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신 6 : 8)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의롭고 자비롭게 거래함으로 그 손은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뇌물과 부패하고 기만적인 모든 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적극적이 될 것이다. 고상한 목적으로 향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간하지 못하였다.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경의 교훈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는 지시로 해석되었다. 이 명령은 양피지 조각에 기록되었으며 머리와 손목에 눈에 잘 띄도록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게 하지는 못했다. 이 양피지는 다만 주목을

끌기 위한 휘장으로 차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들은 착용자들에게 백성들의 존경을 일으키도록 하는 헌신된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헛된 가장(假裝)에 일침을 놓으셨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마음은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거짓된 겸손을 나타내며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는 그들의 이기적 야망을 드러내셨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손님들은 신분에 따라 좌석에 앉았으며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첫째로 주목되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러한 명예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수께서는 이런 행습을 견책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랍비나 선생이라는 이름을 탐내는 허영심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칭호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율법의 해석자들과 관리자들은 다 한 하늘 아버지의 자손인 형제들이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저희 양심과 신앙을 그가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예로운 칭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상에 계셔서 레버런드(Reverend:성직자를 높여 부르는 말) 혹은 라이트 레버런드(Right Reverend:대주교의 존칭)의 칭호를 가진 이들에게 둘러싸이신다면 그분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 : 9)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칭호가 어떤 인간에게 적합한가? 그 칭호가 가리키는 지혜와 의를 인간은 얼마나 적게 나타내는가! 이 칭호를 받은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와 성품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슬프다, 얼마나 자주 세속적 야망과 독재와 가장 비열한 죄악들이 높은 성직자들의 과장된 예복 아래 감추어졌던가! 구주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을 곡해함으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참된 성결에 긴요한 저 내적인, 거룩한 생명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의 심령을 눈멀게 하였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영문 성경 참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건한 과부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냈다. 과부들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부정직을 감추기 위하여 공중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경건한 모양을 크게 자랑하였다. 이 위선이 그들에게 더욱 큰 천벌을 가져 올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와 같은 책망이 오늘날 경건하다고 크게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들의 생애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순결한 것처럼 보이는 예복으로 가려서 한동안은 저희 동료들을 속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목적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저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용을 용서 없이 정죄하셨으나 또한 의무를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셨다. 그분은 과부의 예물을 강요하여 악용한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고에 예물을 가져온 과부를 칭찬하셨다. 사람이 예물을 악용한다고 하여 그 바친 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연보궤가 있는 마당에 계셨으며 거기서 저희 예물을 넣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그들의 후한 예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한 불쌍한 과부가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다. 부요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들의 예물을 넣으려고 옷자락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여자는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뒤로 움츠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 여자는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녀의 소유의 전부였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급히 두 렙돈을 놓고 빨리 돌아갔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중에 그 여자는 자기를 주목하여 열심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다.

구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 때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넣어 주면 연보궤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들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여자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녀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여자의 마음은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되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그 여자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자들은 그들의 풍부한 데서 바쳤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드린 큰 예물은 그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과부의 푼돈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정 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한 작은 일을 이루고자 생활비를 바쳤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두 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의 큰 필요를 모른 체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부유한 동포들과 분담하기를 매우 원한다. 이런 영혼들을 거절하지 말 것이다. 그들의 푼돈을 하늘 금고에 넣게 하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친다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적은 금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귀중한 재물, 성별된 예물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과부에 대하여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동기에서 뿐 아니라 그녀의 예물의 결과에도 적용되었다. "두 렙돈(헬라동전의 명칭) 곧 한 고드란트(로마동전의 명칭)"는 부요한 유대인들이 바친 헌납물보다 훨씬 큰 금액을 하나님의 보고(寶庫)에 드린 것이 되었다. 이 적은 예물의 감화는 그 시작은 작으나 각 시대를 통하여 흘러 내려오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냇물과 같았다. 수천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공헌하였다. 과부의 자아 희생의 모본은 각 나라에서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에 호소하였으며, 그들의 헌금은 과부의 예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과부의 푼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결과들의 근원이 되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지한 열망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고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선물을 위한 그 결과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구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탄핵(彈劾)을 계속하셨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전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짓되고 좁은 표준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해석하였다. 그들은 어떤 죄들은 가볍게 여기고 다른 죄는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듯이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등급을 만들어 독단적으로 까다로운 구별을 지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사람들이 한 맹세를 면제해 주었다. 때때로 그들은 많은 돈을 받고 한층 더 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었다. 그와 동시에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다른 경우에는 사소한 과오에도 엄중한 형벌을 선언하였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남용을 다시 정죄하신다. 의무 그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것은 아니다. 십일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옛적부터 준수되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십일조를 지불하였다. 유대의 관원들은 십일조를 바칠 의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무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수행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모든 경우에 독재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요구 조항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의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이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으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중대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인정하셨으나 이것이 다른 의무들을 등한히 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바리새인들은 박하(薄荷)와 회향(回香)과 근채(芹菜)와 같은 정원의 채소의 십일조를 바치는 데 매우 정확하였다.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으로 정확하고 고결하다는 평판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쓸데없는 제한은 백성들을 억눌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신성한 제도에 대한 존중심을 파괴하였다. 그들은 하찮은 구별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긴요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였다. 율법의 더욱 중요한 일들 곧 공의와

자비와 진리는 무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율법들도 랍비들로 말미암아 같은 방법으로 왜곡되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에는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피를 불결하게 하여 생명을 단축시킬지도 모를 돼지고기와 다른 특정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제한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대로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까닭없이 극단에 치우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물을 거르라는 요구를 받았다. 예수께서는 이같은 사소한 엄밀성과 그들의 실제적인 죄악의 크기를 대비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이 그 속에 썩고 있는 유해(遺骸)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원의 외관적인 성결 속에 불의가 감춰져 있었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보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책망에 주의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무덤에 대하여 미신적인 관심을 품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무덤을 장식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낭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였다. 죽은 자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나타냄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와 같은 우상숭배는 오늘날도 매우 성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값비싼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과부와 고아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산 자에 대한 의무는 돌아보지 않는 반면에 이런 일을 위하여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낌없이 허비한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마음을 기만하여 진리의 빛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맹목에 대하여 의아해 한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아들였을 것이요 구주를 거절한 자들의 죄에 결코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극기와 겸손을 요구할 때에 그들은 확신을 짓눌러 없애고 순종을 거부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바리새인들이 행한 정신과 같은 정신을 나타낸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는 자신들의 무서운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의로운 아벨이 가인의 손에 쓰러져 최초의 무죄한 피가 흘려진 때로부터 그 같은 역사는 죄악을 증가시키면서 반복되었다. 각 시대의 선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왕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저희의 음성을 높였다. 대대로 빛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형벌은 축적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이 형벌을 이제 저희 자신의 머리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죄악은 이전 어느 세대의 죄악보다도 더 컸다. 구주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아벨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한 모든 의인의 피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의 죄악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얼마 후에 공정한 보응으로 저희의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았다. 그들은 선지자 사가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알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 있을 때에 배도한 왕은 사단적인 격분에 사로잡혔고 그의 명령으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피는 바로 성전 마당의 돌에 물들여져 지워질 수 없었으며, 이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물로 남아있다. 성전이 서 있는 한 이 의로운 피의 흔적은 하나님께 복수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무서운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에 공포의 흥분이 군중들을 둘러쌌다.

장래를 내다보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들의 편협을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 스데반, 야고보와 다른 많은 사람들 - 은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하늘로 드시고 거룩한 빛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서 말씀하셨다. 자주 친절하게 간청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 책망과 정죄의 음성으로 들렸다. 청중들은 벌벌 떨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안색(顔色)으로 말미암아 받은 인상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하여 분개하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그럴 듯한 기만적인 논법 가운데서 그분은 사단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으나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 의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고자 하는 격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음부의 세력에 의해 행동하는 자들을 만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평온과 침착을 유지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뇌와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멘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잠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 곳에 있는 원수들에게 져서 내쫓기는 모습이 아니요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가는 모습이었다. 그분은 논쟁에서 승리하고 물러나셨다.

다사한 그 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으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선두에 나아와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애를 위축시킨 낡은 미신들을 약화시키는 기별을 전파했다. 그들의 증언 앞에는 인간의 학설과 철학이 쓸데없는 우화(寓話)와 같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움과 위엄에 눌린 군중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에서 넘쳐흐른 결과는 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절연(絶緣)하였다.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은 꺾여 나갔다. 마지막으로 성전 내부를 바라보신 예수께서는 비통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을 나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그 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할 것이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68장 바깥뜰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업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그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결코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최후의 결별이 다가왔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해 접근하고 계셨다.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갈한 외침의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의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생애의 말기에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적인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분의 강림을 알지 못하였다. 박사들은 구주를 경배하고자 선물을 가지고 이교의 땅으로부터 구유까지 왔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마 8 : 11)을 것이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냈고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간청은 허락되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분께서 치르시려고 하는 희생이 많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그분께 보여 주었다. 그분은 헬라인들이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처지에 계신 당신을 곧 보게 될 것을 아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석방 결정을 받게 될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선동에 영향 받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는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마 27 : 22)라는 대답이 주어질 것이다.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은 완전하게 되고 다시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회복자로서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성령은 각처에 편만할 것이다. 잠시 그분은 장래를 내다보셨고 온 세상 각처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 : 29)라고 전파되는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위대한 수확의 결실에 대한 증거를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입으시는 방법에 대하여 잊으신 적이 결코 없었다. 다가오는 그분의 죽으심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었다.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밀알처럼 인자는 땅속에 던져져 죽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장래를 나타내실 때에 자연의 사물을 통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밭을 가는 자들 앞에는 언제나 실물 교훈이 있다. 해마다 농부는 가장 잘 선택한 곡식을 흩어 뿌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곡식을 공급받는다. 얼마 동안 그것은 밭이랑 속에 파묻혀서

주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나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히고 감추어져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은 그 결과로 영생할 자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은 그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사욕을 좇아 허비한 삶은 먹어 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며,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써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모아들일 것을 예시하는 헬라인들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명을 생각하셨다. 하늘에서 그 계획이 세워진 때로부터 죽음이 임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구속 사업이 그분 앞을 지나갔다. 어떤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가까이 있는 자들도 그 어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마침내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슬픈 음성을 발하셨다.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그분의 인성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으로 보일 때, 곧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생각할 그 때의 버림받은 순간에 대한 생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으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 일 때문에 위축되셨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과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 저상하셨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그 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써만 구속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고뇌에 동의하셨으며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의 머리 위에 떠돌던 구름 속에서 한 응답이 나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구유로부터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구름 속에서 빛이 투사되어 그리스도를 둘렀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벽처럼 그분의 주위를 두른 듯이 보였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은 눈길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하실 때 구름은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흩어졌다. 당분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문의하려 왔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봉사의 시초인 예수님의 침례 시에 들렸고 그분께서 변화하시던 때에 다시 들렸다. 이제 그분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마쳐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상태에 관한 가장 엄숙한 사실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마지막 호소를 하셨고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분을 인정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야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것은 세계의 위기이다.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 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구주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에 대한 명상에 잠기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빛나는 영광과 함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신다.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비난들은 논파된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 주위에는 많은 백성들이 둘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고 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한 번은 구주께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요 6 : 30) 하고 물었다. 셀 수 없는 표적들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생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때 이후로 모든 세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여 왔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신 구주의 경고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예수께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 : 48)고 말씀하셨다.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境內)를 영원히 떠나셨다.

69장 감람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 23 : 38)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공포로 사로잡히게 하였다. 이 말씀에 그들은 무관심한 체하였으나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족의 영광인 이 장엄한 성전이 곧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불길한 전조는 제자들도 함께 느끼게 되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더욱 분명한 말씀을 고대하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나갈 때에 그들은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그 중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어떤 부분의 벽은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 온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성전의 장대함에 그리스도의 주목이 이끌렸을 때에 거절 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아노라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들이 분명히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가리키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께 나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거짓 메시야들이 나타나 이적을 보이며 유대 민족의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사이에 많은 거짓 메시야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경고는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도 주어졌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성행하던 것과 같은 기만이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해졌고 또다시 행해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들은 살해되었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유대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징조들이 메시야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징조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배반하였고 자녀들은 저희 부모를 배반하였다.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을 산헤드린에 넘겨주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심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벌써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다. 박해가 일어날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혹은 그분을 반대하든지 결정하게 된다.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이 저희 행동을 직접 부당하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다.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 주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경고는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한 사람도 도성이 함락될 때에 멸망당하지 않았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이것을 십자가에 못박지도 않으셨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효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0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곧,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빠르게 나아가셨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흑암의 세기들 즉 그분의 교회를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지은 세기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므로 예수께서는 짤막한 말씀으로 그 장면을 지나치셨다. 예수께서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천년 이상 계속될 미증유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분명한 말로써 우리 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며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위험을 경고하신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아갔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 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유혹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부르짖음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희망으로 광야에 나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과 교제한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집회들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강신술이 제시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 그분은 그 징조들 가운데 첫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을 정하신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 : 32, 33)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고전 15 : 52).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유 24)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고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께서 나타나실 그 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면서 계속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현세적 천년기를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일천 년으로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 : 5).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시대의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죄악을 현대에서 본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골 1 : 23)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계 14 : 6, 14)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행 17 : 31)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벧후 3 : 12 상단 참조).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영문 성경 참조)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을 실천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에게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해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였다(창 7 : 1, 19 : 14).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눅 12 : 37).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의 제안을 거절하는 큰 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 준다.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눅 12 : 42)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여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취향과 무감각 속에 굳어진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범죄하는 일에는 동류끼리 어울린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는 세상과 더불어 함정에 빠져 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 : 3).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리"(살전 5 : 3)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그들의 집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은 그들을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벧후 3 : 4; 사 56 : 12)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 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계 16 : 15)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바로 그 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홀연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드리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 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피해야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해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쳐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큰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자들은 저희가 그분을 섬겨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리둥절한 그들의 질문에 그분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대답하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백배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다음에 그분은 저희 형제들을 섬길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확약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거룩한 관계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 : 7).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미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한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인자이시므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는 죄 많은 자들을 포용한다.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가납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다. 우리는 지금 누가 구원의 후사들인지 알지 못하며, 누가 승리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하거나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과의 사귐을 청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저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자들 즉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눈멀게 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저희 형제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 일에 열중하여 다른 사람들의 곤경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당신의 고통 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재물을 주셨으나 너무도 흔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형제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을 가난한 사람의 처지와 바꿔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유혹과 투쟁을 이해하지 않으므로 저희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되었다.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에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곤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낭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교육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필수품들을 공급받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생활을 압박하는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종종 시험에 들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악한 억측으로 가득 차게 된다. 스스로 곤궁의 압박을 참고 견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며 그들이 거지처럼 간주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가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에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에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에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대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몸에 스며드는 냉기를 피하도록 보잘것없는 의복을 주었을 때 그대는 영광의 주께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는가? 그대의 생애 동안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대는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생애 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와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므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요 12:8)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따라서 누구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수백만의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심판 때에 우리들을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12)이다.

구주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일단의 신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경 너머"에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까지 미칠 일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 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 수준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던 빛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불타게 할 수 있다. 때때로 청년들에게 위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정열도 축복의 시내로 흘러가는 통로로 향하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흥분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에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밋거리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교(社交)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무관심하게 그분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 입술에 불붙여질 것이다. 무식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반역적인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3 : 14, 3 : 12)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심어 주어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 : 12)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그러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 24 : 11, 12). 전 세계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선고를 받는다.

모든 영혼에게 책임이 부여되었다. 목자장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받았던 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있느뇨" 하고 힐문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벌할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렘 13 : 20, 21, 영문 성경 참조).

71장 종의 종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였다. 구주께서는 오직 열두 제자와만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자기 때가 왔음을 아셨다. 그분 자신이 참 유월절 양이었으며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되실 것이었다. 그분은 바야흐로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셨으며 곧 최후의 고통의 침례를 받으실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그분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아(無我)의 봉사의 생애였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마 20 : 28)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그것을 영원히 인식시켜 준 한 예증으로써 당신의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만나는 시간은 대체로 조용한 기쁨의 기회였으며 그들 모두 이를 매우 귀중히 여겼다. 유월절 만찬은 특별한 흥미를 자아내는 자리였으나 이번 경우에는 예수께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슬픔을 동정하였다.

그들이 식탁 주위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는 슬픈 어조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분이 배반을 당할 때 그분은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은(忘恩)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과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아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시고 자연히 압도당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열두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분의 마음에 떠올랐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에 경고와 위안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머물렀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듯하였다. 제자들은 편안치 않았다. 그리스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환기되었던 동정과 친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말씀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하였다. 각자가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해 주었다.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 서로를 평가하였으며,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두 형제가 감히

가장 높은 지위를 요구한 것이 열 제자들을 격분시켜 서로를 멀리하게 하였다. 자신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게 평가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였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 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생겼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 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었으나 종이 그 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할까? 어떻게 그분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또한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은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은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실 수 있을까?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런 다음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들은 놀란 나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 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 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의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유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 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잠시 동안 사라졌던 옛 충동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진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현세적 왕국의 세속적 영광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본 후에 그는 그리스도와 의절하려는 의도를 굳게 하였으며 속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다.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베드로는 이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분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큰 소리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 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離間)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 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 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입었으나 종종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러운 발을 그의 주요 주인이신 분의 손과 접촉시키기를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세우셨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을 팔 자의 발을 씻기셨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 : 45).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였을 때에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마 20 : 26)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함에서 찾을 수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지 친절한 행동만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 여행에서 더러워진 먼지를 없애려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상을 의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다. 우리 주님의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다.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하였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준비토록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최고가 되려고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 의식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영광의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性癖)이 있어서 이것들은 종종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을 초래한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런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높은 위치에서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이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순찰자가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 곳에 계신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저희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의 감각을 활발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에 사상과 사상은 연결되며 일련(一連)의 추억들, 곧 하나님의 크신 인자(仁慈)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 뿌리들이 나타난다.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대한 일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 가운데 드러난다. 우리의 사상은 자기도취의 사상이 아니요, 엄격한 자책과 겸손의 사상이 된다.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 버린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제거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끈다.

이와 같이 준비 예식에서 교훈을 배우게 될 때에 더욱 높은 영적 생애에 대한 소망이 불붙게 된다. 이 소망에 대하여 거룩한 증인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영혼은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 광선은 마음의 밀실과 심령의 성전에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 : 29)을 바라본다.

이 예식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예식이 될 수 없다.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 : 13)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고(寶庫)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무아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일터는 그들의 주님의 일터만큼이나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지한 자들이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그분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우신 예식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그분의 교훈의 목적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72장 “나를 기념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 : 23~26).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사천 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당신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하였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된다.

애굽에서 구출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행할 준비를 갖추고 선 채로 유월절 만찬을 먹었다. 그들이 이 예식을 지킨 방법은 그들의 입장에 합당한 것이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나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다. 그들은 이제 타국으로 쫓겨 나가려는 자들이 아니요 저희 나라에 사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생활에 맞추어 백성들은 기대어 앉은 자세로 유월절 만찬을 들었다. 식탁 주위에는 긴 의자가 놓여 있어서 손님들은 왼팔을 의자에 걸치고

바른손은 먹기에 자유스럽게 하도록 그런 자세로 앉았다. 이런 자세로 손님은 자기 머리를 옆에 앉은 사람의 가슴에 위에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발은 의자의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사람이 좌석 주위를 돌면서 씻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유월절 만찬을 차려 놓은 식탁에 계셨다. 유월절 절기에 쓰던 누룩 없는 떡이 그분 앞에 놓여 있었다.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징물들을 흠없는 희생물이신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셨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로 부패되지 않은 것만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벧전 1 : 19)을 대표할 수 있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 앞에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꾀하고 있었으며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의 성질을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요 13 : 11)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거짓 제자에게 그의 은밀한 목적을 아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식탁에 자리잡고 앉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재난을 예고하는 구름이 저희 모두를 덮고 있었다. 제자들이 잠잠히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분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누가 이런 구상을 마음에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자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들,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처럼 큰 관심을 나타내신 자들인 그 사랑하는 열두 제자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와 낙담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라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극히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례로 "주여 내니이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유다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싸여 있던 요한이 마침내 "주여 누구오니이까" 하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은 "주여 내니이까" 하고 물으면서 피차에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유다의 침묵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질문들과 놀람을 표현하는 일로 혼란한 가운데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감시를 피하려고 유다는 그들처럼 "랍비여 내니이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엄숙하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놀라움과 혼란 중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났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반역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밤이었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이 유혹 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가 두

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이 없었다. 완강한 교만에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러운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죄가 탄로나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할 뿐이었다. 그는 성만찬에서 나와 배반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갔다.

유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가 메시야라는 최고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그에게 닥쳐올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잠잠히 계셨다면 저희 주께서는 거룩한 선견지명이 없으시고 불시에 배반을 당해 잔인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제자들은 생각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둘을 택하였지만 그 중의 하나는 마귀라는 것을 일 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의 배반을 주께서 훤히 알고 계셨음을 보여 준,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이었다. 유다가 무서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반역자에게 선고하신 재난을 기억할 것이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반역자로 알려진 그에게서 당신의 봉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하신,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한층 더 그분이 식탁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요 13 : 11, 18)고 선언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들은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배반자는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오래 참으시는 구주께서는 죄인이 당신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온갖 권유를 다하셨다. 이 모본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유혹의 희생이 되게 하며 혹은 그를 사단의 전쟁 마당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열둘 중 하나를 제하고는 모두 회개하였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신다. 공개된 죄로 인해 죄지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고전 5 : 11). 그러나 이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누가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누가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낼 수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까닭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전 11 : 27, 28, 29)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 흑암의 왕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그 곳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중드는 까닭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역시 참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문객들은 이런 때에는 언제든지 참석한다.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회중 가운데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그 곳에도 참석한다.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 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 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汚點)을 씻기를 열망하신다.

합당치 못한 어떤 사람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라도 참석을 거부하지 말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참석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당신의 임재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지정하신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 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마땅할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批准)될 것이었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것이 향상시키는 것이었든지 저하시키는 것이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내지 말 것이다. 준비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요 14 : 27)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 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 : 26)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굳고 영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리키는 이 예식들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도 많다. 이것들은 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우리들의 지각이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리신 바 되셨으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4, 15).

우리는 죽어 가는 구주께서 달리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 : 53~55)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생의 삶에서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이 매일의 생활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얼마나 더욱 그러할까!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요 6 : 54, 56, 57)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예식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산 연결을 이룬다.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은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상 가운데서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분의 고뇌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쟁을 목격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주재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 : 14)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룩한 사랑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유다는 다락방을 떠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열한 제자와만 함께 계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임박한 이별을 말하려고 하셨으나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당신의 사명의 큰 목적을 지적하셨다. 그분께서 언제나 염두에 두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분은 첫째로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을 이 점에 향하도록 하셨다.

그 다음 그분은 애정을 느끼게 하는 “소자들아”라는 말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구주의 주위로 바싹 다가갔다.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였다.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의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의 위로를 그분에게 구하였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과 곤경으로 침울해 있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술책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이는 것”에서 떠나 “보이지 않는 것”(고후 4 : 18)으로 향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어 너희들로 믿게 하려고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아직도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항상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도마가 말하였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빌립이 부르짖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스럽게 놀라면서 물으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통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서 그대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너는 믿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에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삼 년 동안이나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셨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리어 거기에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에 그 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엄숙한 두려움을 느꼈다. 저희 마음은 더욱 결정적으로 예수께 이끌렸으며, 그들이 더 큰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이끌릴 때 상호간에도 가깝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이 아주 가깝다는 것과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당신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시고자 함이었다.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지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께서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일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의 광경들이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거룩하신 교사가 바로 그분께서 그로라 하신 분임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당신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아직도 제자들이 구주의 무한한 재원(財源)과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요 16 : 24)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모든 성실한 기도는 하늘에서 듣는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서투르거나 더듬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한 그분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을 닮은 모습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인정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에 실망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매기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려고 그처럼 값비싼 심부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데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 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 없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뢸 때 바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요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 : 22).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 : 16~18)고 말씀하셨다.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 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계자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바다의 고독한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대신 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계 1 : 18)라.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보혜사가 보내지실 것이다.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대는 더 이상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유리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엡 3 : 18, 19)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업을 증거해야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주께서 지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굴욕과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큰 시련과 실망을 맛보아야 하였다. 이 경험 후에야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될 것이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약속하기를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언과는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 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를 형성시켰다.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분의 교훈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자비롭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 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진리의 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이야 말로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를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느 한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증언은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행 5 : 28)였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 하에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빌 2 : 13)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슬픈 빛도 보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락방을 떠나시기 전 구주께서는 찬양의 노래로 그분의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어떤 비통한 만가(輓歌)의 곡조가 아니요 다음과 같은 유월절 찬송의 즐거운 곡조였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할렐루야"* (시 117편).

찬미를 부른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혼잡한 거리를 지나 성문을 통과한 후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으며 저마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동산을 향하여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께서는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기신 목소리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마 26 : 31)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슬픔과 놀라움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돌아갔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 때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불충실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선언하였다. 그 때에 구주께서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요 6 : 70)고 말씀하셨다. 다락방에서 예수께서는 열둘 중의 한 제자가 당신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또한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말씀은 그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격렬히 항의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다락방에서 그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바로 그 밤에 자기의 구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 경고를 반복하신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막 14 : 29, 30, 31)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그들을 아시는 그분의 반복된 말씀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시험이 그들을 덮칠 때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었다.

베드로가 옥이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의 부추김으로 생애 속에 나타난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입증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시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고 할 때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 : 30) 하고 부르짖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를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께 부르짖었다면 그는 보호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벌써 마음이 상해 더욱더 자신을 고집스럽게 과신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할 수 없었으나 그들을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무덤의 속박을 깨칠 것이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마 26 : 32)고 말씀하셨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소중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가끔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한적한 곳이었다. 구주께서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과 제자들이 유지해야 할 당신과의 영적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이제 그분은 예증을 통하여 교훈을 설명하신다. 달이 밝게 비치어 한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리스도 앞에 보여 준다. 제자들의 주의를 이 포도나무에 집중시키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아한 종려나무나 높이 자란 백향목이나 강한 참나무를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덩굴이 달려 있는 포도나무를 취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주(支柱)도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시렁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 : 30)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나무를 가장 고상한 식물이며 힘 있고 뛰어나며 열매 잘 맺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대표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팔레스틴 언덕에 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분은 친히 농부가 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에 이끌리어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른 땅에서 솟아난 뿌리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 나무를 꺾어서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발로 짓밟았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농부께서는 그분의 나무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저희가 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취하여 성벽 다른 편에 다시 심으셨다. 포도나무 그루터기가 더이상 보이지 않아야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난폭한 공격을 피해 감추어졌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성벽 위에 걸렸다. 이것들은 포도나무를 대표해야 할 것이었다. 그 가지들을 통하여 접붙이는 가지는 여전히 그

포도나무에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것들로부터 열매를 얻었다. 거기에는 통행인들이 따먹을 수확이 있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들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지지를 받아야 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가지는 산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되 섬유질과 섬유질이, 잎과 잎이 연결되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인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樹液)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잔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치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보일 것이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가 예증하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다닌 선택받은 열두 제자로부터 한 제자는 시든 가지로서 곧 찍어 버림을 당할 것이었으며 나머지 제자들은 전정하는 칼의 쓰라린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고도 친절하게 농부의 의도를 설명하셨다. 가지를 치는 일은 고통을 유발할 것이지만 칼을 대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난폭한 손으로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덩굴이 땅의 지주에 붙지 않도록 잘라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 나아가야 하며 그들의 지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로 가야할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과도한 잎들은 잘라 버려야 한다. 의의 태양의 치료하는 광선이 활동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웃자란 것들은 잘려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해롭게 자란 가지는 잘라 버린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생명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마 4 : 4)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회합에서 나타내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은혜의 온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아 희생적인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힘이나 사리(私利)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어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거룩한 본성 가운데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불과하다.

세상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외형상의 실패에 직면하셨다. 자비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당신이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일에서 하고자 갈망한 일을 거의 하시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사단의 세력은 그분의 길을 방해하려고 계속적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낙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분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선언하신다.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께 주어진 약속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사 49 : 4, 5, 7~10).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의지하셨으며, 유리한 것은 하나도 사단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굴욕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 놓으셔야 했을 때, 곧 가장 깊은 슬픔이 그분의 영혼을 둘러쌌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 14 : 30, 16 : 11, 12 : 31). 이제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큰 투쟁에서 벌어질 광경들을 훑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그분은 그 때에 사단의 제국의 멸망을 고하는 조종이 울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음을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섭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어졌음을 알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 성령의 전능으로 무장한 진리가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며 피묻은 깃발이 당신의 추종자들 위에 의기양양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당신이 신뢰하는 제자들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와 같이 중단되지 않는 승리의 연속이 될 것인데 비록 현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위대한 내세에서는 그렇게 인정되리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거나 낙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며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여야 한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주장(主將)으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을 통하여 의의 태양은 광명한 광채를 세상에 비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속하고 사신 사람들에게서 큰 영광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에 막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분 자신의 충분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보고(寶庫)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당신의 영광을 보충하는 순결과 완전함을 입은 백성들을 당신의 굴욕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보신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발산하는 대중심이시다.

힘 있고 희망에 가득 찬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교훈을 마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하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하도록 주어진 사업을 마치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할 자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자의 언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위탁하셨다.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곧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당신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그분에게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은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74장 겟세마네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유월절의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나 겟세마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뇌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 : 29)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일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하는 죄악의 무게는 크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는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신다.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 주님에게 이른 변화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전에는 결코 예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심에 따라 이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 갔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저희 주님을 쉬게 하려고 예수께서 항상 쉬시던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았다. 이제 그분은 단 한 걸음도 떼어놓기 힘드셨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신음하셨다. 두 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동산의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에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의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종종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써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深淵)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셨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슥 13 : 7).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삼 년 동안 준비해 왔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과 배은망덕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추어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보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破碎)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신다. 밤의 찬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 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신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고 위로하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셨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온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더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처음에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투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상태에 빠져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동산으로 향하기 직전에 이미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는 가장 굳센 보증을 그분에게 드렸다. 불쌍하고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막 14 : 27, 29)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 하였다. 구주께서는 온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에 질문하신 일이 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은 감히 "할 수 있나이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마 20 : 22 참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삼(杉)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굳센 백향목처럼 서서 당신에게 분노를 퍼붓던 반대의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완고한 의도와 적의와 교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분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서 계셨다. 지금 그분은 분노한 폭풍에 시달려 꺾인 갈대와 같으셨다. 그분은 매 발걸음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사업의 정점에 다다르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임을 주장하셨다. 분명한 어조로 그분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셨다. 그분은 용기와 친절을 담은 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승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시는 구주의 음성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께 가려는 충동을 받았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다시 그분은 우정에 대한 갈망을 느끼셨다. 곧 자신을 거의 정복한 듯한 흑암의 마력을 깨뜨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말을 제자들로부터 듣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이 고뇌의 피땀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사 52 : 14)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흑암의 공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었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두려운 순간이 이르렀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간에게 할당된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 아직도 그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 버리고 인간이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이 떨면서 흘러나왔다.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그 마지막 최고의 희생으로 인해 세 번 움츠러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 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떠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그분은 일어나다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를 그들의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천사들은 구주의 고뇌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인성이 몸서리치는 불가사의한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거문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시는 아버지를 말없는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더 잘 깨달을 것이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 사업의 이 큰 위기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세 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거룩하신 분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험에 처하고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 때에, 하늘이 열리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위급한 시간의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추었으며, 사단이 떨어져 나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큰 무리의 인류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뇌는 그치지 않았으나 우울과 낙담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으셨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해 지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잠자던 제자들은 구주를 두른 빛으로 인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신 저희 주님을 굽어보는 천사를 보았다. 그들은 천사가 구주의 머리를 그의 품에 들어 올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안위와 희망의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광경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둘렀던 영광과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였다.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다시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더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으며 그분을 보호하려고 힘센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제자들은 피로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엄습한 이상한 혼수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다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는 폭도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배반자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실 때에 조금 전까지 고민하시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의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내로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최근에 예수께 수종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로 나섰다.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렸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살기 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천사는 물러가고 빛은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남아 계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당신 발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러진 그 무정한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광경은 곧 변하였다. 폭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로마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다는 그리스도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희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분이 도망하지나 않을까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구주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저희는 저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았으나 그것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에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으므로 시험과 시련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셨다.

배반자 유다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폭도들이 동산에 들어올 때에 그는 길을 안내하였으며 대제사장은 그를 가까이 따랐다. 유다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신호를 주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마 26 : 48)고 말하였다. 이제 그는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서 다정한 친구인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라는 말로 유다는 연거푸 예수께 입맞춘다. 그리고 마치 위험 가운데 계신 그분을 동정하여 우는 것처럼 한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우고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이미 저버렸다. 그는 상냥해질 의향이 없음을 보이며 방약무인(傍若無人)하게도 버텨 섰다.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폭도들은 조금 전에 저희 눈앞에서 영화롭게 되셨던 그분의 몸에 유다가 접촉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담해졌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선한 일에만 쓰시던 그 귀한 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은 저희 주께서 자신을 잡히도록 내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폭도들을 죽은 사람처럼 넘어지게 한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도망할 때까지 폭도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저희가 사랑한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포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하였다. 베드로는 분개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뿐이었다. 이 일을 보신 예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굳게 붙잡은 당신의 손을 풀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상한 귀를 만지시니 곧 귀가 완전히 나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각 제자들 대신에 한 군단(軍團)씩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그분은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의 발설되지 않은 생각에 대한 대답으로 그분은 다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유대 지도자들 중 고위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친히 가담하였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부하들에게 맡기기에 너무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교활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 경호원들과 폭도들과 합세하여 유다를 따라 직접 겟세마네에 온 것이다. 이 고관들과 연합된 무리는 어떤 무리였던가! 마치 사나운 짐승이라도 잡으러 가는 것처럼 온갖 도구로 무장한 매우 선동적인 폭도들이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돌아보며 예수께서는 엄중한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생명이 계속되는 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 말씀들은 전능하신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다. 예수께서는 위엄 있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도적이나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러 왔구나. 나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너희는 나를 잡을 기회가 많았으나 너희가 잡지 않았다. 밤이 너희들의 일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잡아 묶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자신과 그들에게 굴욕을 허락하시는 데 대하여 그들은 상심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같은 도망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요 16 : 32).

75장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폭도들은 예수님을 재촉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과하였다.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그분을 쫓아온 분노한 폭도들의 부르짖음이 고요한 밤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구주께서는 포박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았으며 고통스럽게 발을 옮겨 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을 사로잡은 자들은 길을 재촉해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안나스는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그의 나이를 존중하여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권고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추구하고 실행하였다. 성직자의 권력에 의해 잡혀온 예수님을 그가 먼저 보아야 했다. 경험이 부족한 가야바가, 저희가 도모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죄수를 심문하는 일에 안나스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였다. 여하튼 간에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의 재치와 교활과 음흉이 이런 기회에 사용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산헤드린 앞에서 정식으로 심문을 받을 것이었지만 안나스 앞에서 예비적인 심문을 당하셨다. 로마의 통치 하에서 산헤드린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죄수를 심문하고 재판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의를 예수께 뒤집어씌울 필요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분이 정죄받을 만한 죄상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적지 않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으나 그들은 다만 파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제사장들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요 7 : 51)라고 질문한 니고데모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지금 회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집되지 않았으나 공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심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산헤드린 회원들을 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하였다. 제사장들은 두 가지 혐의를 주장하고자 했다. 만일 예수님이 참람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분은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요 소요죄(騷擾罪)가 확인된다면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안나스는 먼저

둘째 혐의를 성립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어떤 말이 죄수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교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새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어떤 비밀 단체를 조직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말을 유도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제사장들은,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와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서 그분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펴놓은 책을 읽는 것처럼 그 제사장의 의도를 읽으셨다. 그분에게 질문하는 자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어떤 비밀스런 연합 관계가 있거나 혹은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감추기 위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비밀히 그들을 모았다는 것을 부인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이나 교리에 대해 아무런 비밀도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셨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일하는 방법을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일하는 방법과 대조시키셨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분을 비밀 법정에 세워 그곳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위증(僞證)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을 쫓아다녔다. 이제 그들은 그같은 저희의 목적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폭도들에 의한 한밤중의 체포와 아직 정죄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기 전에 그분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지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에 위배되었다. 저희의 법은, 모든 사람은 죄가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한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사장들은 저희 자신의 법으로 정죄를 받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질문하는 자를 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분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보고할 첩자들을 보내지 않았던가? 이 첩자들이 백성들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그분이 하시던 말씀과 행동을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던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안나스는 이같은 결정적인 대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가 덮어두기를 원하는 그의 행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는 그리스도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안나스가 잠잠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보복에 불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은 무죄하고 인내성 있고 온화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고 또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거룩함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몸서리나는 일이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시련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해 보일 메시야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압도하는 의지의 섬광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사조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메시야를 기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 자신의 심적 고양을 확보하고 그들의 야망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에 그분에게는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디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로 당신이 왕들과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성전보다 더 높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당신이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신 그 입장을 유지하는 일이 몹시 어려웠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하나님의 명령 하에 천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의 군사 185,000명을 죽였다. 그리스도께서 심문을 받으시는 수치스러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소멸시킴으로 그들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았다. 원수들의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죄를 지는 분이 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으로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로부터 당하는 야비한 대접을 불평 없이 참도록 해 주었다.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빚어지는 온갖 것들을 견디어 내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이 책잡을 만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포박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구실이 있어야 했다. 법률이 요구하는 심문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국자들은 이 일을 급히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분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석방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또 심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월절 축제로 인하여 한 주일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그들은 주로 폭도들의 소동에 의존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폭도들이었다.

한 주일 지체하게 되면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며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여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행한 힘 있는 기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서 산헤드린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이 자극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석방되어 군중들로부터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고소할 조건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이제껏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도록 명령했다. 가야바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고 그들 중의 얼마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지독한 원수였다. 가야바는 덕망이 없었으며 안나스처럼 가혹하고 무정하며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때는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아침이었는데 무장한 무리가 죄수를 데리고 횃불과 등불을 밝히고 대제사장의 궁전을 향하여 나아갔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다. 양편에는 재판관들과 심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었다. 의장석 아래 심문대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심문대 맨 아래 단에 서 계셨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는 거룩한 감화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 왔었다.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 버렸다. 곧 예수께서 당신의 힘있는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기를 요구하는 그의 교만하고 비웃는 투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말이 구주의 귀에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상기되고 악의에 찬 태도와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냉담한 군중들의 마음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야바는 그같은 감화력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심문을 재촉하였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의회 회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분열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증오와 논쟁이 있었으며 어떤 논쟁점은 싸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몇 마디의 말씀으로 그들 사이에 있는 편견을 자극시켜 그들의 분노를 자신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으셨다. 가야바는 이것을 알고 논쟁을 일으키는 일을 피하고자 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들과 살인자들이라고 비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롭지 못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맹렬한 논쟁을 벌일 때 그들에 대해 그같은 말을 사용했었다. 따라서 이런 증언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는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유전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의식들 중 대부분을 불손하게 말씀하신 증거가 많았으나 유전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가 대단히 나빴으므로 이 증언 역시 로마인들에게 무가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감히 그분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저희가 예수님의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게 될 어떤 조사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병 고치는 이적들을 밝히게 되면 제사장들이 원하는 바로 그 목적이 좌절될 것이었다.

거짓 증인들은 매수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모호하고 모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문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진술이 거짓됨을 드러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 초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비유적인 예언의 말로 그분은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 : 19, 21).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말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로마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는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으며 그 일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어떤 멸시도 분명히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 문제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성전을 크게 존경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났고 그들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모순되지 않았다. 그들 중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뇌물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했더라면 그들은 산헤드린 회의에서조차 그분에 대한 선고를 얻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단순한 한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분의 선언은 다만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요 과장된 정신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참람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거짓 증언에 의하여 잘못 전해졌을지라도 그분의 말에는 로마인들이 볼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절망적이었다. 한 가지 최후 수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재판석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격앙되어 일그러졌고 그의 음성과 태도는 분명히 자기 앞에 서 있는 죄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 : 7).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요청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그 요청은 민족의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 10 : 32)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써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빛났다. 대제사장도 구주의 꿰뚫어 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 시선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일생 동안 핍박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때에는 정반대되는 장면이 일어날 것을 보여 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上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에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는 장래에 자신의 행위대로 선고를 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를 원치 않았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들어왔다. 잠시 동안 그는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 주는 무서운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어지기를 바랐던 비밀들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어졌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 광경이 제사장의 환상에서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두개인인 그의 급소를 찔렀다. 가야바는 부활과 심판과 내세에 관한 교리를 부인하였다. 이제 그는 사단과 같은 분노로 발광하였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죄수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학설을 논박하려고 하는가? 그는 자신이 짐짓 가장하고 있는 공포를 백성들이 보도록 그의 예복을 찢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죄수가 참람된 말을 했으므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분노가 뒤섞인 확신이 가야바로 하여금 그처럼 행동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야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이 행위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가야바는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정죄케 한 이 행위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금지된 행위였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친구가 죽을 때에 옷을 찢는 풍속이 있었으나 이 풍속을 제사장들은 지키지 말아야 했다. 이것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다(레 10 : 6).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原型)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의복과 태, 말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의 영광과 완전함이 지상 봉사에서 나타나야만 하였다. 완전함만이 하늘 봉사의 신성함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었다.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간하실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은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의복을 찢으므로 그는 상징적인 성격을 띤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 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식을 집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납되지 못하였다. 가야바가 나타낸 행동은 인간의 격정과 불완전함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의복을 찢으므로 가야바는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참람된 사건에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 무서워서 자기의 의복을 찢는 경우에는 죄가 없도록 인간이 만든 법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대제사장의 모든 행동을 백성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가야바는 그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비난하려고 계획된 이 행동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출 23 : 21)고 말씀하신 그분을 모욕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참람된 죄를 범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서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참람된 자라는 선고를 내렸다.

가야바가 그의 의복을 찢었을 때에 그의 행동은 유대 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 때 이후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차지할 위치를 의미하였다.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백성들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었으며, 신속히 여호와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요 19 : 30)고 부르짖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는데,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상징물의 원형이며 그들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분을 거절했다고 선언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가야바가 크신 대제사장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대로 그러한 뜻을 지닌 그의 예복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옷은 그와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한 공포에 눌려 예복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했으나 밤에 죄수를 심문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합법적인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성원이 된 의회 앞에서만 가능했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수로 취급되었고 가장 낮고 비루한 인간에게 학대를 받도록 내어준 바 되셨다. 대제사장의 관저는 개방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들과 무리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정원을 통과하여 감방으로 잡혀가셨는데, 그 때 사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조롱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분의 말씀이 희롱조로 여러 번 반복되었다. 합법적인 심문을 기다리면서 감방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셨다. 무식한 폭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의회 앞에서 잔인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을 저희의 악마적인 성질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허가서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로 미치게 만들었다. 그분의 온유와 결백과 위엄스러운 인내는 그들을 사단에게서 유래한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채웠다. 자비와 공의는 짓밟혔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심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감히 멀찍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제사장들은 요한을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그 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밤 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문을 지키던 여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그가 요한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여인은 가야바의 집 종이었으며 호기심이 나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베드로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말을 못들은 체하였으나 여인은 집요하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제자 요한은 제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 곳에서 그는 주님을 심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하므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귀므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 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 들이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심문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분에게 퍼붓는 잔인한 욕설을 듣고 그분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고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그가 놀라고 분개한 것은 예수께서 그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겨 주고 계신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얼토당토않은 조롱에 가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는 거짓을 행하고 있었으며 태연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주께 퍼붓는 욕설을 듣자 분개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아직도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 곧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가까운 친척 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네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영문 성경 참고)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였다. 또 다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막 14 : 30)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의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추억의 조수가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눅 22 : 31, 32)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는 자신의 배은망덕과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였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주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하였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 : 41)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였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 곳에 와서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 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 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공회 앞에 끌어 왔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대적할 혐의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다. 이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법정이 그분의 말씀에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되풀이되어 나오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메시야라는 그분의 주장을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하셨다.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마침내 비통한 음조로 그분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엄숙한 경고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고 부르짖었다.

유대의 권력자들로부터 세 번째 선고를 받으셨으므로 예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필요한 일은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로마인들의 재가(裁可)를 받기 위하여 그분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식한 폭도들에게 받던 것보다 한층 더 심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참석한 바로 그 곳에서 또 그들의 허락을 얻어 이 일이 벌어졌다. 모든 동정심이나 인도적인 감정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만일 저들의 논법이 약해서 그분의 음성을 침묵시키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른 무기들 곧 각 시대를 통하여 이단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고통과 폭력과 죽임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야수의 소리와 같았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하고 부르짖었다.

로마의 군병들이 없었던들 예수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살아 계시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 당국이 간여해서 무력으로 폭도들의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재판관들 앞에서 갈가리 찢기셨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을 야수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위를 침해했고 더군다나 그 자신의 증언만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의 개입이 사건 진행에 일시적인 소강(小康)상태를 가져왔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동정과 수치심에는 모두 무감각해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가진 직분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추악한 형용 어구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문을 들어 그분을 욕했다. 자신을 메시야라고 선언한 그분의 외람됨이 그분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끌어갔다고 그들은 말했다. 가장 방탕한 사람들이 구주를 파렴치하게 학대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박해하는 자들은 헌 옷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의 얼굴을 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하였다. 그 헌 옷을 그분에게서 벗길 때에 한 초라하고 비루한 자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평온하고 창백한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한 비열한 자들은 장차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76장 유다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삶의 슬픈 종말을 보여 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크게 아쉬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수 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닌 증오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생애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의 특성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월절 조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그 때 그는 구주께서 기도하고 명상하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분을 잡기로 계획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의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종 한 명의 몸값인 은 삼십에 영광의 주님을 팔아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주된 동기가 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들이 회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서 들은 그분의 말씀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구주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로부터 예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았다. 그는 죽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모든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둘 중의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워 모아 간직하는 보잘것없는 재정가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는 민첩하고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우쭐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 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항상 자신을 그렇게 나타냈다.

유다는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처지에 그를 두셨다. 제자들을 위한 회계로서 그는 그 적은 집단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유월절에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 : 27) 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에게 잔치를 위하여 필요되는 것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명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계발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무아의 생애를 보면서도 유다는 탐욕적인 기질에 사로잡혔다. 손에 들어오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적인 유혹물이 되었다. 가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은 봉사를 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면 그는 이 빈약한 자금에서 자신이 한 봉사의 대가를 챙겼다. 자기가 볼 때에는 이러한 구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핑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도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유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일에 선(線)을 그어 놓았다. 그는 침례 요한이 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해놓았으나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요한의 죽음을 복수하는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시골로 물러가셨다. 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을 원했다. 만일 예수께서 저들의 계획 수행을 막지 않으신다면 사업은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증가하는 것에 유의하였으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할 때에 저들의 도전이 무시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불신에 대해 열려 있었고 원수는 의심과 반역의 정신을 넣어 주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용기를 꺾는 일에 그처럼 골똘하시는가? 왜 그분은 당신 자신과 제자들에게 시련과 박해를 예언하셨는가? 새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기대가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지하게 하였다. 그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는가?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은 하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의심했고 예수님의 크신 이적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구주 자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시리라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 때 유다는 배고픈 군중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만족이란 항상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군중들 중에서 병자와 고통하는 자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크신 회복자의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르러 오는지를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다. 유다는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을

이용하려 한 첫 번째 사람이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희망이 컸기에 실망은 더 쓰라렸다.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 : 53)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 유익보다는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보았다.

그 때부터 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증을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끌어들이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유다는 복음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 고난, 및 표면상의 장애물들은 복음의 진실성에 불리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절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성경절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밀려오는 낙담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갔다. 제자들이 크신 교사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그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길로 인도하려 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께서 전달하시지 않은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에 유다는 불쾌하였다. 그는 주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이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신자들과 연결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제자들 중에 불만의 누룩이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참 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사단이 그의 특성을 유다에게 전달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기 일 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요 6 : 70)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였다. 이것은 죄와 뒷거래하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단의 유혹에 응하여 영혼으로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그러나 유다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두 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추리하였다. 구주를 파는 그의 행동이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 일은 오직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좌우간 유다는 자기의 배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 그는 주님을 파는 일로 빈틈없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구주께서 그 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의 뚜렷한 예증에 넋을 잃었던가! 얼마나 자주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정죄를 선언하였던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 마음에 느껴졌을 때에 종종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그분은 피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처럼 여러 번 올무를 피하셨으므로 그분은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유다는 그 문제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야라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큰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 들어 그분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다. 이번 일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고정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킨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그로 하여금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다.

이 가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자기가 담당한 몫을 잘 수행하였다. 동산에서 그는 폭도의 두목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마 26 : 48)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를 놓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그는 내가 그분을 빨리 꼭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자신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끌어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에서부터 재판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다. 매 순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케 하여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 주소서"라는 목쉰 음성이 갑자기 재판정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율(戰慄)을 느꼈다. 놀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는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 대제사장 앞에 그의 주님을 판값으로 받았던 은전을 내던졌다. 그는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분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놓아 달라고 간청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며 그를 뿌리쳤으나 당황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이 드러났다. 저희가 이 제자를 매수하여 그의 주님을 팔게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유다는 또다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부르짖었으나 대제사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마 27 : 4)는 조소 섞인 대답을 했다.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은 것을 기뻐했으나 그의 비열함은 멸시하였다. 그가 통회하며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 버렸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라고 간청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 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에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온 회중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자신의 속박을 풀고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고 부르짖으며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살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절망 중에 나아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바로 그날 늦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갈바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 소리가 멈췄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날 때에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몹시 소름끼치는 광경이었다. 그가 나무에 자기의 목을 매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으나 군중 가운데 조롱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징벌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수로 포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둘러섰고 재판정은 구경꾼들로 꽉 차 있었다. 출입문 바깥에는 산헤드린의 재판관들,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다.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산헤드린 의회는 선고를 확인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갔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 관리들은 로마인의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그 일로 더럽혀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우매하여 저희 마음을 더럽힌 살기등등한 증오심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거절한 이상 그 큰 잔치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구주께서 재판정에 끌려 나오실 때에 빌라도는 그분을 다정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로마의 총독은 그의 침실에서 급히 불려나왔으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몹시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사람을 심문해야 하기에 휴식 중인 사람을 이렇게 한 시간이나 일찍 불러내는가 하고 둘러보았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들이 급히 심문하여 처벌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범죄자의 흔적이 없고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들은 소문을 다시 회상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 죄수를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묻기로

결심하였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고 물었다.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드러내 놓고 심문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기만자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다.

또 다시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물었다. 제사장들은 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초조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이 나라의 일인자들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왔는데 그에 대한 고소 죄목이 왜 또 필요한가? 그들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란 인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예비 심문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선고에 대해 속히 재가 받게 되기를 열렬히 원하였다.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와는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전에 빌라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사형 영장에 급히 서명한 일이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죄수의 생명이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그들 민족의 대축제일에 드리는 청이므로 이것을 호의로 받아 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는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제사장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정죄의 선고에 서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이며 저희가 능히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대들의 재판으로도 충분하다면 왜 죄수를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하였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저희는 이미

그에게 선고를 내렸으나 그들의 정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의 선고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대들의 선고가 무엇이냐고 빌라도는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것이 사형 선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가 유죄하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내린 선고를 집행하도록 요청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지겠다고 하였다.

빌라도는 공정하거나 양심적인 재판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심지(心志)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들어 주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성립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제사장들은 궁지에 빠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선을 깊숙이 은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종교적 문제로 잡혀왔다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하였다. 만일 그것이 잡혀온 이유로 대두된다면 그들이 추진하는 일이 빌라도에게 아무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공법(公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과 반란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반란을 매우 가혹하게 다스렸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라는 질문으로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였고 그 곳에 있던 로마인들은 음모를 꾸민 자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바치라"(눅 20 : 22~25)는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제사장들은 이 기회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바랐던 그것을 그분이 가르치셨다고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후 수단으로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거짓 증인들을 불러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세 가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고소였음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같은 위증죄(僞證罪)를 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빌라도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다. 그는 죄수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 막는 이 무죄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가 물었을 때에 구주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가야바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그분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소당하고 있는 죄를 자인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청했다. 소란스런 큰 소리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요구했다. 폭도들의 울부짖음이 일어났고 소음으로 귀청이 터질 지경이었다. 빌라도는 당황하였다. 예수께서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을 보고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빌라도의 뒤편에 서셔서 온갖 욕설을 들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태도는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그분은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다.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점점 높이 치솟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로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였지만 그분을 치지는 못했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것은 한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 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에게서 그같은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다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가 자신의 확신을 표명할 기회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라고 물으셨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 라는 말이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 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빛을 주지 않고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그분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황폐된 성질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빌라도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혼란하였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그것이 참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감동되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힘주어 선언했다.

한 이방인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구주를 고소하던 이스라엘 관원들의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이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실망과 분노는 끝이 없었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기다려 왔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석방될 가망이 보이자 그분을 갈갈이 찢을 듯이 보였다. 그들은 큰 소리로 빌라도를 탄핵하고 그가 로마 정부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들은 그가 가이사에게 대항한 것이 분명한 예수를 정죄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힐난하였다.그들은 성난 음성으로 예수님의 선동적인 감화가 온 나라에 퍼졌다고 선언했다. 제사장들은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 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공의는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역의 통치자 헤롯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빌라도는 심문의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헤롯 사이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그 일은 예상한 대로 되어서 두 장관은 구주의 심문을 계기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군사들에게 내어 주었고 예수님은 폭도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헤롯의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 그는 전에 구주를 만나본 일은 없었으나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때문이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손을 침례 요한의 피로 물들인 사람이었다. 헤롯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막 6 : 16; 마 14 : 2).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는 이제 이 선지자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마음에서, 피가 흐르는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오던 기억을 영원히 씻어 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또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었다. 만일 예수께 석방될 수 있다는 가망성을 보여 준다면 그분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헤롯에게 왔다. 구주께서 끌려 들어갈 때에 이 고관들은 모두 격앙된 목소리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의 고소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질문할 기회를 찾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명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포박한 줄을 풀도록 명하고 그분을 너무 난폭하게

다룬다고 그분의 원수들을 책망하였다. 세상의 구주의 침착한 얼굴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는 그 얼굴에서 지혜와 순결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빌라도와 같이 그도 그리스도가 적의와 질투에 의하여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안심하였다.

헤롯이 여러 말로 그리스도께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왕의 명령으로 노쇠한 불구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적을 행함으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으셨다. 사람들이 그대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니 나는 그대의 널리 퍼진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헤롯은 말했다. 예수께서 이에 응하시지 않자 헤롯은 계속해서 재촉하기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지금 그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의 선한 의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명령하기를, 그대가 소문난 대로 능력을 가졌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에 인간이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셨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신다면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고소하는 자들은 이미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으로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 준 사실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은 자가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그분이 이적을 행하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지나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들의 계획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아마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를 일이었다. 몹시 근심하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또다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목청을 돋우어 그분이 반역자요 참람된 자라고 선언하였다. 그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함으로 재판정은 수라장이 되었다.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때 공포에 떨던 그 때보다 지금 헤롯의 양심은 훨씬 덜 민감하였다. 한동안 헤롯은 그가 저지른 무서운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음탕한 생애로 인하여 그의 도덕적 지각은 점점 타락하였다. 이제 그의 마음은 매우 완고해져서 담대히 자기를 책망했던 요한에게 형벌을 내린 것을 자랑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석방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

헤롯은 이와 같은 침묵에 분노하였다.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자만심이 강하고 도도한 왕에게는 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견책이 훨씬 덜 모욕적이었을 것이다. 다시 그는 화를 내며 예수님을 위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역시 움직이지도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 죄로 병든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말씀해야 하셨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발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완고한 왕의 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죄에 가득 찬 헤롯의 생애와 다가오는 무서운 운명을 그의 앞에 공개하심으로 그를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히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헤롯은 선지자 중의 가장 큰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아무런 다른 기별이 없었다. 하늘의 임금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기울이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던 그분의 눈은 헤롯에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 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음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만한 왕에게는 닫혀 있었다.

헤롯의 얼굴은 격정으로 점점 어두워갔다. 그는 군중들을 둘러보며 분노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협잡꾼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군병들과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협잡꾼이라면

그들의 손에서 그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행하여 그대 자신을 구원하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었다. 야수처럼, 군중들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으며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가리 찢기셨을 것이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도 욕설하는 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의 고관들의 지지를 받은 사악하고 부패한 군병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주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저울질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처럼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장면의 뒤편에는 다른 장면 곧 그들이 그 모든 영광 중에 어느 날 보게 될 장면이 끼어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떨고 있었다. 무례한 무리가 그분 앞에 조롱하는 태도로 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나왔다가 돌아서서 무서워 떨며 말없이 서 있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조롱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시간에 헤롯은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처럼 마음이 굳은 헤롯도 그리스도에 대한 선고를 감히 재가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무서운 책임에서 놓여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정으로 돌려보냈다. 빌라도는 몹시 실망했을 뿐 아니라 매우 불쾌해 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수를 끌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를 성급하게 물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심문해 보았으나 그분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데려왔으나 그들 역시 단 하나의 허물도 입증하지 못했잖느냐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요 그들의 민족 중의 한 사람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으나 그 역시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허물을 찾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고 빌라도는 말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연약함을 나타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채찍질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 했다. 이 일이 그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실행하였더라면 유대인들은 감히 그에게 지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셨다 해도 그 죄의 책임은 빌라도가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을 거스르는 중에 한 걸음씩 발길을 내딛었다. 그가 공명정대하게 재판한다고 변명하였으나 이제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수중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그가 막 행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심문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죄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손을 보았다. 그녀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 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내어 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갈바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으며 "다 이루었다"는 신비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전히 다른 장면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신 장면과 이 지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고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몹시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즉시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 보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한 사신이 군중들을 헤치고 들어와서 그의 부인이 보낸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사연은 아래와 같았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석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한 관습을 생각해 냈다. 이 축제일에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이 관습은 이교도가 창안한 것으로 거기에는 공의라고는 추호도 없었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었다. 이때에 로마 관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라는 죄수를 잡아 두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메시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물에 대한 다른 질서를 세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악마적인 착각 아래 도둑질과 강도질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백성들 중에서 추종자를 얻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다. 그는 종교적 열성의 가면을 쓰고 반역과 잔인한 일을 감행하는 무정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다. 빌라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무죄하신 구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예수께 대한 동정을 얻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군중들을 돌아보며 그는 진지하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폭도들은 야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바라바"라는 부르짖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백성들이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는 대답 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빌라도는 곤혹스러웠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그가 선고할 수 있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 주기를 두려워하였다. 포효(咆哮)하던 음성이 그친 후에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십 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져만 갔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쳤다. 그 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 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에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람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엄을 번쩍이심으로 공포에 싸인 폭도들을 당신의 시야에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사단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분의 낮아짐은 높아질 것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분의 상처받은 관자놀이에서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린 고민의 핏방울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즐거움의 기름"(히 1 : 9)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 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 주어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으로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는 저희가 이것으로 형벌은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제사장들의 악의도 그쯤으로 만족하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민한 지각으로 유대인들은 무죄하다고 선언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약점을 간파하였다. 그들은 빌라도가 죄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문제를 결정적인 점까지 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제 빌라도는 사람을 보내어 바라바를 재판정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 다음에 그는 두 죄수를 나란히 세우고, 구주를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간청하는 음성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였다.

조롱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으며 그 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한임을 말해 주고 있었다. 이들의 대조는 모든 관중에게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듯 했으며 관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하시는 그대로임을 확신하였다.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던 로마 군병들 모두가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범죄자인지 또는 위험한 인물인지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열심히 주목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바라바에게 멸시의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훑어 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심문을 받으시는 그분께로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깊은 동정심으로 그 거룩한 고통자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조용한 복종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라바와 대조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으로써 그들의 어둠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 모를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 하여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부르짖었다.

비록 잔인한 일에 익숙한 로마의 총독이었을지라도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마와 찢긴 등에서는 피를 흘리면서도 보좌에 앉은 왕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죄수에 대하여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과, 인간보다도 높은 존재에 대하여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한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떠올랐다. 조롱의 표시인 자줏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서냐"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진리의 증거자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미 빌라도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었다. 빌라도는 빛을 거절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응하여 원칙과 권위를 굽힘으로 재판관이란 높은 직분을 남용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비추실 빛이 없었다. 그분의 잠잠하심에 성이 난 빌라도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거만하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대답하셨다. 이와 같이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 그것은 후세에까지 계속하여 전해질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던가! 온 땅의 재판관이신 그분의 품성에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는가! "나를(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민족을 대표한 가야바를 의미하였다. 그들은 로마 관원들을 지배하는 정책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입증해 줄 예언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과 이적에 대한 빛을 받고 있었다. 유대의 재판관들은 저희가 사형을 선고한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받았다. 또한 저희가 받은 빛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죄악과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과 그들이 지금 비열하게 배척하고 있는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고관들에게 지워져 있다.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군병들은 비교적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함으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 그처럼

풍부하게 받았던 빛을 받지 못했다. 군병들에게 빛이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저들처럼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구주의 석방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위선자들은 가이사의 권위에 대하여 열심이 있는 체하였다.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이 민족적, 종교적 요구 사항들을 시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무모하리 만큼 강행했으나 그들이 어떤 잔인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가이사의 권세를 높였다. 그리스도를 멸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들이 미워하는 외국인 통치자에게 충성을 공언할 것이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런 보고는 자기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그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복수하기 위하여 온갖 방책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까닭 없이 그들이 미워하는 한 분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저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의 본보기가 있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다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보이며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음성에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물었다. 그러나 야비하고 참람된 입술에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은 신정(神政)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 때부터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었다. 가이사만이 저희의 왕이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였다. 이것과 그에 뒤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 한 민족의 죄와 멸망은 그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혼란에 빠진 무수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고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 : 12).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을 때에 가야바는 도전적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대답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처럼 무서운 말을 받아서 말했으며 그 말은 비인간적인 소란스런 부르짖음으로 군중에 의해 되풀이되었다. 온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하였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였다. 사단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다.

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무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기원은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저희 자자손손에게 영원한 저주였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무섭게 실현되었다. 그것은 또 천팔백 년 동안 유대 민족이 겪은 상태 가운데서 무섭게 나타났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다. 수 세기를 통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죽어 갔다.

그 기도는 큰 심판 날에 무섭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탁월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 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에 그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막 9 : 3)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계 19 : 16)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때린 자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재판정의 광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불로 기록된 글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기도한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인 저희가 누구와 더불어, 무엇 때문에 싸워 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계 6 : 16, 17)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78장 갈바리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히 13 : 12)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중범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 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갈 3 : 13)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많은 군중들이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각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모여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잡히면 그분의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러 도시와 인근 지방에서 온 신자들이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과 합세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다. 바라바의 두 동료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에게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 그분은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졌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심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둘째 번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아무런 동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친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듣는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춘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운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 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적지 않은 부녀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할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그분을 따라가는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데려왔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광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증오심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노기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그분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은 더욱 큰 심판으로 향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다. 그분은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 곧 무죄하신 구속자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당신의 분노를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계속하여 범죄하는 죄인이 져야 할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구주를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실의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마 26 : 31)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맞았는가!

사형장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다.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갈바리까지 왔다. 그녀는 십자가에 눌려 졸도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녀는 그분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 가슴을 베개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같은 슬픈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근심스런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야"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녀는 고난당하는 예수께 봉사할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구주께서는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땀을 씻어 줄 동정 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 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 당신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탄원하셨다.

만일 저희가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으나 그들은 무지하여 그들의 범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다른 이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드린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도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 후에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쓴 패(牌)를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 십자가에 붙였는데 이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이 패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 19 : 15)라고 부르짖었다. 누구든지 다른 왕을 인정하는 자는 반역자라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빌라도는 그들이 표시한 감정을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패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세에 충성한다는 사실상의 고백이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들에 의하여 사형에 합당한 자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제사장들은 자기 꾀에 넘어갔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고 있을 때에 가야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로운 일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민족의 존재까지도 희생하려 하였다.

제사장들은 저희가 한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패를 고쳐 쓰도록 요청하며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말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전에 자기가 약했던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이제는 그 질투심이 강하고 교활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철저하게 멸시하였다. 그는 냉정하게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답변하였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 때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야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언은 성취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다. 그분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시 22 : 16~18)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옷에 대한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친구들이나 원수들의 조언이나 간여 없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군사들이 자기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의 속옷은 이은 데가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고 하였다.

다른 예언 중에서 구주께서는 "훼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시 69 : 20, 21)다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폭도와 연합하여 막 숨을 거두려는 구주를 조롱하였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유리한 어떤 증언도 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홀로 악인에게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

그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라고 외쳤다.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할 때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마 4 : 3, 6).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분에게 형벌을 선고하도록 유도했으며 심지어는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폭도들은 악마 같은 광포 가운데 결탁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언의 해설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구주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 영감이 이때에 그들이 발하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 저희가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라고 조롱하던 자들은 그들의 증언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 없이 열성적으로 성경말씀을 연구하게 하였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까지 성경절들을 비교하며 연구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때는 전에 결코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 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 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심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요 19 : 4)하였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주목하였다.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본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한다. 죽어 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제 죄로 더렵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는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는 탄식한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진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 속에 회상해 본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名牌)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발견한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 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 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는 제십일 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던 자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 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가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이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 숨을 거두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신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권세이다.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도 그 날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 20 : 17)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 날에 주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다.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 날에 예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예수께서는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다.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분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죄수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사 53 : 12)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졌다. 그리고 참회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치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고 참회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굴욕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그분은 당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간청하셨다. 그분은 또 사랑하는 구주로서 참회하는 도둑을 용서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다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눈을 고정시키셨다. 십자가 밑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한은 그녀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다.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오!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이 없었다. 요한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곧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삼십 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의 짐을 나누어 지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신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 일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가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 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 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이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의 짙은 어둠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최후의 인간적인 고민을 가리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한 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늘의 인(印)에 주의하지 않았다. 조롱하던 군중들이 고뇌의 긴 시간 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그분은 자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외투로 가려지셨다.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린 듯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저주와 욕설은 도중에 멈춰졌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렸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환히 비추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폭도들은 모두 다 저들이 보복을 받을 때가 이른 줄로 생각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제구시에는 어둠이 백성들에게서는 걷혔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 볼 수 없었다. 성난 번갯불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셨다. 구주의 주위에 짙은 어둠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걷혔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한 로마 군인이 타는 입술을 바라보고 동정심이 일어나 우슬초(牛膝草) 막대기에 해융(海絨)을 매어 그것을 신 포도주 그릇에 찍어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분의 고통을 보고 조롱하였다. 어둠이 땅을 덮었을 때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그 공포심이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께서 도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살아났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하였다. 심한 멸시와 조소로 그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다. 그분을 고통에서 놓이게 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거절하였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그들은 말했다.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관중들은 말없이 그 무서운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이 비치고 있었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싸여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빽빽한 구름이 도성과 유대 평야를 덮고 있었다. 의의 태양이시요 세상의 빛이신 그분은, 한때 은총을 받았던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그분의 광선을 거두고 계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번갯불이 운명지어진 도성에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서 걷혔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부르짖으셨다. 한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고 운명하셨다.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당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가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인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 떨어졌다. 무덤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 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왔다.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때와 같이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다. 그 곳에 세키나가 거했었다. 하나님께서 그 곳 시은소(施恩所)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부분과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는 이 휘장을 쳐들 수 없었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곳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라! 이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다. 지상 성소의 일부인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죽이려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 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 : 7)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이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히 9 : 12) 들어가신다.

79장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요 19 : 30)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반역자는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단은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였다. 루시벨에 대하여 주님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겔 28 : 12)고 말씀하셨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내는 데 첫째가는 존재였다. 범죄한 후에 그의 속이는 능력은 더욱 기만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사천 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며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찬탈자는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 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분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 : 39)라는 그분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들었다.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에 그들은 죽음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땀구멍에서 흘러나온 피땀이 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그분의 입술에서 세 번이나 흘러나왔다. 하늘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위로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보내졌다.

하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 다니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다. 하늘은 사단의 광포(狂暴)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았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궁정에서 재판정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다. 그분은 제사장들 앞에서 두 번, 산헤드린 앞에서 두 번, 빌라도 앞에서 두 번, 헤롯 앞에서 한 번 심문을 받으셨다. 그분은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통곡과 잡다한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상처 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 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허덕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라고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어둠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 같은 불신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주께서 이들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하였을 때에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 그들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은 그들의 높은 지위와 조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부요하였고 하늘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신들이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한때 하늘 궁정에서 섬기던 영광스러운 스랍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사단의 대리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수로 믿게 하고 그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에 악인들과 동맹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은 최초의 대반역자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단은 그들을 비루하고 야비한 말로 가득 채웠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퍼붓도록 고무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하셨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 12 : 10).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 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심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일점일획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 : 19)셨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롬 3 : 26)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 보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시 85 : 10)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 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그는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 수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약 2 : 10)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 데 동의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단 7 : 25)리라고 발표되어 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쓸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리(分離)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그 때에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말 4 : 1)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너 덮는 그룹아...내가 너를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겔 28 : 6~19; 시 37 : 10; 옵 16).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엡 4 : 18; 잠 8 : 36)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신들의 성격을 계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사단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 때에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 때에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80장 요셉의 무덤에서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의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창 2 : 1)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 : 7).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으며,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임을 보았다. 예수께서 쉬신 이 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의 공덕은 완전하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신 32 : 4; 전 3 : 14)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행 3 : 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사 66 : 23)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걷히고 구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 : 54)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게 되시리라는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저녁이 가까웠을 때에 초자연적인 고요함이 갈바리 언덕에 드리워졌고 군중들은 흩어져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저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로 떼를 지어 갔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았다. 이상한 흥분에 휘말려 그들은 폭도들과 한패가 되어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러나 땅이 어둠에 싸이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서 있었고 큰 죄를 범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어둠 속에서는 희롱의 말이나 조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걷히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일 후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수천 명 가운데 그들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목격한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감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땅을 덮었던 어둠보다 훨씬 더 짙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는 별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박사들을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로 인도했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베들레헴 평야를 뒤덮은 그분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노획물을 그분에게 놓아주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 가시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으실 때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편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저희가 기대했던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승리가 분명해진 시간에도 그들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요 19 : 30; 눅 23 : 46)라는 부르짖음을 그들은 들었다. 그들은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으므로 불안해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백성들에게 끼치던 감화를 질투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죽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보다도 죽으신 지금에 그분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에 더욱더 쏠리지나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동안에 그분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남겨 두기를 원치 않았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는 것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구실삼아 지도층의 유대인들은 죄수들의 죽음을 재촉하여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시체를 치우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빌라도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기를 원치 않았다. 빌라도의 동의를 얻어 죄수들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께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으로 밝혀졌다. 난폭한 군병들도 저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본 것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수족을 꺾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 유월절의 규례가 성취되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민 9 : 12).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놀랐다.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언제 생명이 끊어졌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여섯 시간이 채 못 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구주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하여 생긴 상처에서 현저하게 구별되는 두 액체가 많이 흘러 나왔는데 하나는 피요 다른 하나는 물이었다. 모든 관중들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요한은 그 사건을 매우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요 19 : 34~37).

부활 후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기절하였다가 그 후에 소생하셨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무덤 속에 안치된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진짜 시체가 아니라 시체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었다는 다른 소문도 떠돌았다. 로마 군병들이 한 일이 이러한 거짓 소문을 논박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제사장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만일 생명이 이미 끊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상처가 즉각적인 죽음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마 27 : 50; 눅 23 : 46)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들은 그분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와 피가 엉겨있는 머리카락과 찢어진 수족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슬픔에 억눌려서 그들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없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볼 뿐이었다. 장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느낀 때는 일찍이 없었다.

비록 죽으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은 제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장례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선고받으신 죄목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는데, 그러한 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는 그런 부류의 죄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지에 매장되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함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무정한 군병들의 손에 의하여 저희 주님의 시체가 불명예스러운 무덤에 매장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 고관들의 배려를 얻어낼 수도 없었고 빌라도를 움직일 힘도 없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지내기로 결심하였다.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빌라도는 그 때 처음으로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관련된 엇갈린 보고가 그에게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짐짓 그에게 숨겨왔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듣고는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알아보았다. 빌라도는 또 갈바리의 장면에 대한 보고를 그로부터 듣고 요셉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요셉의 요구는 허락되었다. 요한이 주님의 장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백근 쯤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들이 저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산헤드린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헤드린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한동안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 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 이때야말로 부자요 존경받는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요셉은 바위를 잘라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것인데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제 그는 이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쌌다. 구주께서는 무덤으로 옮겨지셨다. 그 곳에서 세 제자들은 만신창이 된 수족을 싸매고 상한 손을 접어서 맥박 없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생명이 없는 저희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마쳐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다 막아 놓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여 구주께서는 편히 쉬시게 되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그들이 사랑했던 그분의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다"(눅 23 : 56).

그 안식일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었다. 예비일 저녁 해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월절이 가리켰던 그분이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시는 한편, 수 세기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지켜졌다. 안식일에 성전 마당은 예배자들로 가득 찼다. 골고다에서 온 대제사장은 제사장복으로 훌륭하게 단장하고 그 곳에 있었다. 흰 두건을 쓴 제사장들은 분주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 참석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수소와 염소의 피가 속죄 제물로 드려졌을 때 몹시 불안했다. 그들은 모형(模型)이 원형(原形)을 만나고 세상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그처럼 상반된 감정으로 주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팔과 다른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음성은 전과 같이 높고 맑았다. 그러나 이상한 감정이 어느 것에나 가득했다. 사람들은 서로 전날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에 대하여 물었다. 지금까지 지성소는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성하게 수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공개되었다. 순수한 세마포(細麻布)로 만들어졌고 금빛, 자줏빛, 진홍빛으로 아름답게 짜인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장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알현실(謁見室)이었던 곳이 모든 사람의 눈에 공개되어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난 사실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바리의 장면으로 발단된 온갖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예언을 불철주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 연구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연구했다. 또 다른 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야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때 그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깨달은 자가 많았다. 그들의 예언 연구는 헛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4, 15)고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 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議員)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써 극복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 때처럼 군중들의 주목을 끈 일은 일찍이 없었다.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병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성전 마당으로 데리고 와서 누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만나려고 먼 곳으로부터 왔다. 사방에서 우리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노라고 부르짖었다. 이 때에 문둥병의 증세(症勢)가 보인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문둥병의 선고를 받고 안락한 가정과 친구들의 돌봄을 떠나 낯선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슬프게 부르짖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몸서리치는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 주셨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의 정다운 손이 지금은 그분의 가슴 위에 접힌 채 놓여 있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 : 3)는 위로의 말씀으로 문둥병자의 간청에 응답하셨던 그분의 입술이 지금은 전혀 말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동정과 구원을 청했으나 헛수고였다. 분명히 그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다시 모시기로 결심한 것같이 보였다. 그들은 끈질긴 열성으로 그분을 찾았다. 그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마당에서 쫓겨났고 문들에는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군중들을 막기 위하여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낙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의 진단은 효험이 없었다.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분과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한

큰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확신을 가져다주었다. 그리스도 없는 세계는 어둡고 캄캄하였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임한 재화를 깨닫고 만일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달라고 열렬히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었다.

백성들은 예수께서 제사장들에 의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자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예수께서 재판받으신 전말(顚末)이 될 수 있는 대로 비밀에 붙여졌으나 그분이 무덤에 계신 동안에 그분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 오르내렸고 그분에 대한 부정한 재판의 보고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메시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설명하라는 지식인들의 요청을 받고 거짓된 대답을 조작해 내느라고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많은 질문자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몹시 달콤하리라고 생각했던 복수가 이미 그들에게 쓰디쓴 것이 되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영향을 끼쳤던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 자신이 한 부끄러운 일로 무서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기만자로 믿게 하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나사로의 무덤 곁에 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 : 19)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회상했다. 이미 유다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삼 일에 살아나리라"(마 20 : 18, 19). 저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이 현재까지 다 성취된 사실을 기억했다. 그분이 삼 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역시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내어 쫓으려고 무던히 애썼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저희 아비 마귀처럼 그들도 믿고 떨었다.

이제 그같은 흥분의 광기는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앞에서 침착하고 아무 불평도 없이 계시는 것을 보았으며 원수들의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참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뿌리칠 수 없게 하였다. 그들은 고소를 받은 분이 고소자가 되기 위하여, 정죄받으신 분이 정죄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 당신을 살해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 공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그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방인의 문지방은 밟고 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하여는 회의를 열었다. 죽음과 무덤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마 27 : 62~65)고 하였다.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어귀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 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백 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예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그처럼 연약한 인간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 살인자들은 저희의 노력이 헛됨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같은 노력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다.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수백 년 전에 성령께서는 시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시 2 : 1~4). 로마인의 파수꾼들과 그들의 무기는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기에는 무력하였다. 예수께서 놓임을 받으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81장 “주께서 살아나시고”

주일 중 첫날밤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좁은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 큰 돌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로마의 인은 떼 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 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 있는 무덤을 영원히 인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으며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전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춰 주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그대들의 파수병의 힘이 어디 있는가? 일찍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 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아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 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실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겠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히 12 : 26; 사 24 : 20, 34 : 4; 벧후 3 : 10; 욜 3 : 16).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라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에게서, 저희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그 죄수를 보았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 되신 모습으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며 자기만족에 도취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흔들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 27 : 42)라고 조롱한 분이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다. 하늘의 칙령(勅令)은 포로를 석방시켰다. 그분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늘의 수행원들이 저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동산 문으로 달려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급히 도성으로 달려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로 가고 있었으나 그 보고가 유대 관원들에게 전해져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저희 앞에 데려오도록 했다.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의 폐하(陛下)시요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가야바는 뭔가를 말하려고 애썼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군병들이 회의실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한 음성이 그들을 멈춰서게 했다. 가야바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거짓 보고를 꾸며 군병들에게 주었다. 제사장들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했다. 이 점에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의 술책에 넘어갔다. 어떻게 군병들이 저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저희가 잤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적질한 죄가 입증된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는가? 또 보초병들이 무덤 곁에서 잤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지 않겠는가?

군병들은 저희가 초소(哨所)에서 잤다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 저희가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거짓 증거를 할 것인가? 저들은 졸지 않고 깨어 밤새껏 피곤을 무릅쓰고 파수를 보지 않았던가? 돈 때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심문을 견딜 수 있겠는가? 제사장들이 두려워한 그 증언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들은 빌라도도 저희가 보고한 그런 보고가 더 이상 퍼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수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로마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성실성을 유대인들에게 팔았다. 그들은 가장 놀랍고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왔다가 돈 짐을 지고, 저희 입술에서 제사장들이 조작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보고가 빌라도에게 전달되었다. 비록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도록 한 책임이 있지만 그는 비교적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동정심을 가지고 마지못해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린 반면, 지금까지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에 칩거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저들이 조작한 이야기를 한 후에 보초들이 의무를 등한히 한 일에 대하여 묵과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그 일에

동의하기 전에 은밀히 파수꾼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감히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으나 그 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취하시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죄수로서 붙잡아 두기 위하여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을 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 주는 일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 하에 있게 됐다.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서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그들은 원근에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가 길을 걷거나 자기 집 은밀한 거실에 혼자 있다가 그리스도와 마주치지나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공포에 싸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문빗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저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 : 25)라고 부르짖던 재판정의 무서운 장면이 밤낮 그들 앞에 떠올랐다. 다시는 저희 마음에서 그 장면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는 저희가 베갯머리에 누워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 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이 밝혀졌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10 : 17, 18, 2 : 19).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搖祭)의 원형(原型)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일천 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 가지고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들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들일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 : 14).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사 26 : 19).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당신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요 10 : 10, 4 : 14, 6 : 54)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 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요 8 : 51, 52; 골 3 : 4)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값있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82장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일 중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을 덮었다.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스러운 사업과 위안의 말씀들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요 16 : 22)라 하신 그분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동산 가까이 이르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라고 말하면서 걸어갔다. 저희가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의 길을 계속해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영광으로 환하여졌는데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 아니었다. 땅이 진동했다. 그들은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 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 곳에 없었다. 그 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다.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도망하려 하였으나 천사의 말에 저희 발걸음을 멈추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그들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 다시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다른 천사가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젠 향료가 필요 없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날은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하였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壽衣)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수의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 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들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原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빈 무덤을 들여다 볼 때에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녀는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쪽에 있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천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눈물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된다면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한 무덤이 있었는데 곧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다. 그녀가 그 곳에 주님을 장사할 곳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귀중한 시체를 보살피는 일이 슬픔에 싸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녀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랍오니여"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가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사 13 : 12)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천사들은 여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고 말하였다. 이 천사들은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로서, 그분의 지상 생애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문받으시는 광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낸 그들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들에게서만 올 수 있는 기별이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싸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에게는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주어졌다. 그는 이름까지 들먹이며 언급된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 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란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매우 명확하게 주신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과 혼란을 물리칠 수 없었다. 여자들이 저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였다. 재난에 잇따라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주일 중 여섯째 날에 저들의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주 첫째 날에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퍼져나가는 거짓된 증언조차도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증오와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외롭고 상심되어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다(눅 24 : 21; 23 : 31).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하신 운명이 어느 땐가는 그들의 운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갔다. 그러나 저희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 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살아나셨다"고 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막고 로마의 인으로 인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 계신다. 그분이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닻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83장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삼 킬로미터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 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 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 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그분에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다. 실망으로 인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고 그들은 덧붙여 말하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을 그분께서 예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삼 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마 27 : 62, 63)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 이 행인이 누구이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같은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경탄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 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 주셨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으며 한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 : 31)고 말씀하셨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 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 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언을 들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인성을 취하시고 어떤 분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의 욕망과 일치하게 보좌를 취하고 왕권을 잡으시리라는 메시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을 오도해 왔었다. 그런 생각은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데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이 모든 면에 있어서 순결하고 참되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할당된 고통의 잔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해야만 하였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모든 범법자들이 범죄를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나 아직도 저희 눈은 열리지 않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동행자가 누구일까 하는 의아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그들이 저희가 나누는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이었다. 제자들은 그분이 큰 절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의 하나인 줄로 생각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매우 조심스럽게 거친 돌작길을 걸어가셨으며 이따금 그들과 같이 멈추어 잠시 쉬기도 하셨다. 이와 같이 그들이 산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마 28 : 18) 말씀하실 그분이 그들 곁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해가 져 그 행인들이 쉴 곳에 이르기 전에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동행하던 행인은 마치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심령은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분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며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라고 간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길을 걸으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한 그 제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음식은 식탁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84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절기 때면 밤에도 열어 두는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 집들은 어둠과 적막에 싸여 있으나 그들은 떠오르는 달빛에 의지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몇 시간을 보내시던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그 곳에서 저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주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제자들이 자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방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다. 그저 조용할 뿐이다. 그들은 저희 이름을 댄다.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께 들어가신다. 그리고는 어떤 정탐꾼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다시 잠긴다.

여행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놀라운 흥분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방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두 여행자는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 때에 보라! 그들 앞에 다른 분이 서 계신다. 모든 사람의 눈은 그 낯선 사람에게 집중된다.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문을 두드린 일이 없었다. 아무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놀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서 당황한다. 그 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었다. 그들은 잔인한 못에 상하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가 항상 듣던 그분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다.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하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 : 20)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 인간 세상에서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고전 13 : 12).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 산상 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大權)이다. 그러나 그분은 조직된 교회에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 : 2)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잘못을 성실하게 다루라. 위험에 빠진 영혼들을 경고하라. 그들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죄를 그 바른 이름대로 부르라. 거짓말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과 도둑질과 우상 숭배와 다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언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 : 21). 만일 저희가 그냥 죄를 고집하면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한 판결이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선고된다.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시인하거나 주께 욕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죄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행위는 하늘의 재가를 받게 된다.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다.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이 사상을 맨 먼저 갖도록 하라. 잘못한 자를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은 그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라. 목자들로 주의 목장의 양떼들을 친절하게 돌보도록 하라. 그들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해 주도록 하라.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그들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 : 9)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라.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미 7 : 19)는 보증이 있다.

교회는 죄인의 회개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회개한 사람을 불신의 어둠에서 인도해내서 믿음과 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라. 그의 떨리는 손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도록 하라. 이와 같은 용서는 하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죄인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나 제자들 자신은 한 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이름"(행 4 : 12)이다.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갔다. 만일 예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그 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두었다.

다수의 제자들은 이제 익숙해진 다락방을 저희의 임시 거처로 삼았다.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 곳에 모였다. 어느 날 저녁,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소식이 참이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의심하는 제자는 자기 동료 중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주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 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는지를 보여 준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85장 다시 한 번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유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절기 동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곱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으나 진리의 지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부유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 최고의 선생이었다. 그들은 선지자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으나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서 삼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치심 아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상하고 학식 있고 세련된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봉사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 이 바다 위에서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 저희를 삼킬 것처럼 몰려와 저희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파도 위를 걸어오셨던 것이다. 그 때 그 큰 폭풍은 그분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었다. 몇 개 안 되는 적은 떡덩이와 물고기로 만 명 이상을 먹인 해변도 눈에 보였다. 그처럼 많은 이적의 장면이 벌어졌던 가버나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은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날 저녁은 상쾌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피로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배는 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요한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 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불과 떡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던졌던 그물로 달려가서 그의 형제들을 도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일이 끝나고 음식 준비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명하셨다.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일곱 사람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았다. 산중턱에서 오천 명을 먹이시던 이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으나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싸여 그들은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고기잡이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도의 직분을 다시 갖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감화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냄으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 : 33)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아실 수 있는 분에게 그는 자신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며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명하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처음 하였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이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셨다. 두 번째 대답도 처음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과장된 보증이 들어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 번 더 구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근심했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할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씩이나 바늘 돋힌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짐으로써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하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셨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이용하였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 : 31, 32)고 말씀하셨다. 그 시간은 이제 이르러 왔고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하였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 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도록 부르신 사업이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단 둘이 걸으셨으며 이는 그분께서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 : 36, 37)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인도할 그 길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거의 알지 못했다. 시험이 닥쳤을 때에 베드로는 실패했으나 다시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의 믿음의 최후의 시험을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의 장래를 공개하셨다. 유용한 생애를 산 후에 노령으로 힘이 쇠하여질 때에도 그가 참으로 주를 따르리라는 사실을 구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고 더욱이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펼 것까지 예언하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 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요한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 제자가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주장하신 것뿐이다. 만약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사업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장래는 저희 주님의 수중에 있었다. 주를 따르는 일에서 순종은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싸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요한은 매우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인 장엄한 성전의 파멸을 목격했다. 요한은 최후의 운명의 순간까지 주님을 가까이 따랐다.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증언의 요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 : 7, 16)는 말이었다.

베드로에게 사도직이 회복되었으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형제들 위에 군림할 대권을 주지는 않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란 베드로의 질문에 그가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신 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은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이 보여 준

충성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는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 : 1~4).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게 하늘의 빛이 밝고 힘 있게 비춰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저희 구주와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였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열두 제자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 불러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약속은 유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하여 저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먼 곳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투심 많은 유대인들의 의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우회로를 택하여 사방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그리스도께 대해 들은 소식들을 열심히 주고받으며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곳으로 왔다.

약속된 시간에 약 오백 명 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중턱에 모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들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 주었다.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분에게 경배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와 같은 일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의 불신 때문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유일한 회견이었다. 예수께서 나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경배하였는데, 죽음으로 닫혀졌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특이한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이셨다. 저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사단의 작용을 제어하는 일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반대를 진압하고 자연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분은 사나운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흰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였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산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분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19, 20).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이었으나 바리새주의는 그들을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배타적이요 가장 편벽(偏僻)된 자들로 만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관한 모든 것 곧 의복과 관습과 의식과 유전들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 곧 유대 나라를 온 세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믿음과 예배,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 회의에서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메시야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 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삼 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손에 맡겨 주신 사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겸비를 나타내신 곳이다. 그 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받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유대 땅은 그분의 출생지였다. 그 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 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과 그분의 수고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함을 보고 제자들은 더 유망한 일터를 주시도록 간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질투와 증오에서 오는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 주께서 참으셨던 것이므로 그들도 그 박해를 피하지 말아야 하였다.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해져야 하였다. 온 예루살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일어난 소름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이곳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었다. 이 사업은 가장 먼 변경(邊境)까지 확장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아 희생적 생애를 목격하였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목도하였다. 비록 저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희가 하고자 한 대로 나에게 행하였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나를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으리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믿는 모든 자는 한 교회로 모여야 한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적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 : 17, 18)고 말씀하셨다. 이 때에는 독살(毒殺)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무법한 사람들은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자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명이 이런 위험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분의 증인들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위험에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실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마 4 : 23, 9 : 6). 그리고 이제 한 새로운 선물이 약속되었다. 제자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 날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겨 주셨다. 그분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며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지셨다.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 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그 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계 22 : 17).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초청을 반복할 것이다. 생애의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가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는 일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한 자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근에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그것이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주리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까지도 그 감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사업이 좁은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으나 각 나라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의 기별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의 사업의 모든 부분이 마치 모든 것이 사이좋게 움직이는 바퀴 속의 바퀴처럼 모든 다른 부분에 의존하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심금(心琴)을 울릴 때에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릴 것이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너머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 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기심이 정해 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며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 그분은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며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구주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그 사명과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미친다. 그 모든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고전

12 : 11)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주님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보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고 힘이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은 여전히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병을 고치시는 구주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한번은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 : 7).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 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 : 14)고 당부하셨다. 이와 같이 질병은 하나님의 자연적·영적 법칙을 범한 결과라고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 : 26)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시(신 7 : 15)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에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시 105 : 37)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주께서는 자연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간에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복음의 진수(眞髓)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곳들이 있었다. 그처럼 지금도 불신은 교회를

도우시는 거룩한 분에게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다.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교회의 힘이 약하다. 교회가 믿음이 부족하므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의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 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식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업에서 목사들이 교회의 교육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인가? 슬프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꺼져 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리려고 애써서 부채질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사람들에 의해 병든 양들처럼 돌봄을 받고 있는가? 줄곧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을 위한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같이 큰 사랑을 단지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간주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 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눈물만큼이나 뜨겁고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양의 의분이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 큰 심판 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눅 13 : 27)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사업의 윤곽을 말씀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도 주셨다. 그분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 여기에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가르침은 여기서 제외된다. 유전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추론이나 교회의 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위탁에는 교회의 권위로 법을 제정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관한 기록과 "율법과 선지자"만이 이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맡겨진 보물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군호(軍號)와 저들을 구별 짓는 표가 되며 그들의 연합의 띠와 저희의 행동 노선을 결정하는 권위가 되는 동시에 성공의 원천이 된다. 그분의 이름을 지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복음은 생명 없는 이론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나누어주시고 신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충실한 자들의 거처로 보내사 당신의 무한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당신의 크신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이 증거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어 사람들로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이와 같이 그분의 종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의 부요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 : 1, 9~11). "만 사람에 뛰어나"고, "권세가 사랑스러"운 그분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라(아 5 : 10, 16). 말로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이 품성에서 반사되고 생애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롬 8 : 29)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최초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 : 20). 이 제자들은 저희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준비했다. 오순절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다. 인간의 공론(空論)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시대에 부어 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욜 2 : 23).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다함이 없는 하늘의 비축물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여 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 비록 사단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며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사 53 : 11)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시 22 : 30)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단 7 : 27; 사 11 : 9, 59 : 19).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사 52 : 7~10).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戰利品)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시려는 참이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요 17 : 4)나이다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분은 작별하시려는 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아 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 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다. 그 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다. 그리하여 피로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다.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쉐키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쳤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곤 하셨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 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런 승리의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드리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열한 제자와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적은 무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것이 저희 주님과의 마지막 회견이 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전에 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저희와 이야기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다시 그것으로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셨던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며, 전에 보여 주셨던 진리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나게 했다. 그분의 마음에 그처럼 사랑스러웠던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 그분을 원망하며 버리고 달아났었다.

그리스도께서는 33 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 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고 약속하셨다.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 곳에서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축복의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제자들이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였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난 구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 중에서 온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왔던 천사들로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 왔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 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 : 14).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저희와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배 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애써 감람산으로 올라오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계 1 : 7; 살전 4 : 16; 마 25 : 31)라. 그 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3)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낙망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 : 23, 24)고 하신 보증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믿음의 손을 더욱더 높이 벌리고 힘 있는 논증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 : 34)고 말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놓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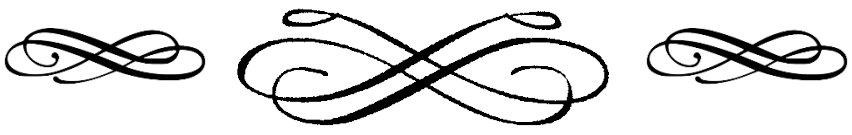
기다리던 파수꾼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고 묻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싫증나지 않기 때문이다. 호위하던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 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搖祭)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신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요 19 : 30, 17 : 24).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엡 1 : 6, 영문 참고).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시 85 : 10)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히 1 : 6)라고 말씀하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 : 12)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거문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 : 13)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 20 : 17)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향 되어 돌아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 : 25).

끝을 기대하면서